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12월 24일 수요일 (주간) 제 453 호

"'북한산' 강행땐 부안사태 수준 저항 초래

정부는 공약이행 결단 내려라"

조계종 '강경대응' 방침

대통령의 SBS 대담내용 불교우롱 규정

환경단체들, "시민불복종운동 · 헌재 제소"

조계종이 북한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관통을 백지화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고 공론조사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범불교적 결단을 내리겠다고도 했다.

조계종 대변인 현고 스님(기획실장)은 12월 18일 총무원 청사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현고 스님은 "건설교통부 장관과 국무총리는 물론 대통령까지 언론에서 불교계의 권위와 사회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사실을 왜곡하며 환경활동에 대한 가치를 부인하는 등 부적절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규탄한다"며 "조계종은 이같은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2 · 5면

현고 스님은 또 대통령의 '백지화 공약'과 '공론조사의 공정성 보장' 및 '선거 중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공약을 한 것'이라는 SBS 대담에서의 발언, 고건 총리의 '불교계의 반대로 5,400억원의 경제적 손실 발생' 발언에 대한 부적절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론조사를 거부한 것은 조계종이 아니라 정부이며, 불교계와의 약속을 어기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범불교적 결단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조치에 달려 있지만 매우 강력할 것이다. 부안 핵폐기장 사태처럼 종단적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17일 조순형 민주당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SBS 대담 발언은 대통령이 공약할 때 백지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불교를 이런 식으로 우롱하는 것은 합당한 처사가 아니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과 우이령보존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운운하나 정부의 계산법에는 북한산국립공원이 보전됨으로 생성되는 연간 7,300억원이라는 가치는 전혀 계산되어 있지 않다"며 "공사 강행 시 전국적인 국립공원 입장료 거부운동을 포함한 시민불복종운동과 함께 국민 환경권을 위한 헌법재판소 제소와 해당 기업의 불매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명우 · 남동우 기자



◇조계종은 18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 예수님 탄생 축하 현수막을 게시했다. 사진= 박재완 기자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경제는 어렵고, 대선자금 특검이니 하면서 연말 정국은 요동치고 있으니 세상살이가 편치 않다. 뉴스를 봐도 온통 골치 아픈 얘기만 있으니,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가' 하는 생각이 절로 나기도 한다.

이런 때 몇 년 째 계속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불교계의 성탄절 축하는 그래도 메마른 세상살이에 작은 희망을 준다. 종교는 다르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면서도, 또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탄생 축하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성탄절을 앞두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해하자는 내용의 '기독교인들에게 드리는 축하 메시지'를 12월 17일 발표했다. 다음날인 18일에는 총무원과 조계사가 조계사앞 우정국로에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의 성탄축하 현수막을 게시했다.

서울 화계사도 성탄절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사찰 앞에 내걸었고, 대구영남불교대학은 18일 지역의 한 미군부대와 함께 교류하면서 법회도 보고 성탄축하 음악회도 열었다. 경북 구미불교사암연합회는 16일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성금을 기탁하고 성탄절의 뜻을 기렸다. 이밖에 지방의 여러 사찰들도 이런 화합분위기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단순히 서로의 명절을 축하만 할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함께 자비와 사랑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낮은 곳에서 '너와 나'의 구분을 버릴 때 평화와 화해의 참뜻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우리 종교인들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또 다른 희망을 가져본다.

한명우(취재1부 차장)



◇12월 13일 원적에 든 서옹 스님 영결식과 다비식이 19일 봉행됐다. 서옹 스님의 법구를 다비장으로 이운하고 있다. 사진= 박재완 기자

서옹당 상순 대종사 원적

19일 백양사서 조계종단장 봉행

불교계의 큰 별 하나가 또 졌다. 근대 한국불교의 선지식이자 조계종 제5대 종정을 역임한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서옹당 상순 대종사가 12월 13일 밤 백양사 설선당에서 세수 92세, 법랍 72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다. 관련기사 2 · 3면

서옹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사부대중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종 종단장으로 19일 백양사 대웅전 앞과 다비장에서 봉행됐다.

서옹 스님은 원적에 들기 전 시자 호산 스님과 법담을 나누다 자세를 가다듬은 후 좌탈입망(坐脫立亡)에 들어 평생 수행 정진한 수행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한 번 백학이 날으니 천년동안 고요하고 솔솔 부는 솔바람 붉은 노을을 보내네'라는 열반송을 남겼다.

21살 때인 1932년 만암 스님을 은사로 백양사에서 출가한 서옹 스님은 평생을 수행정진에 몰두해 왔으며, 1974년 조계종 제5대 종정을 지내고 1996년 고불총림 방장에 오르면서 '무차선회'와 '참사람 결사'를 통해 선풍진작과 인재양성에 매진해왔다.

장성= 이준엽 기자

열반송

雲門日永無人至(운문일영무인지)
猶有殘春半落花(유유잔춘반낙화)
一飛白鶴千年寂(일비백학천년적)
細細松風送紫霞(세세송풍송자하)
운문에 해는 긴데 이르는 사람 없고
아직 남은 봄에 꽃은 반쯤 떨어졌네.
한 번 백학이 날으니 천년동안 고요하고
솔솔 부는 솔바람 붉은 노을을 보내네.

조계종 제26기 행자교육원 내년 2월 26일~3월 19일 개원

31일까지 서류접수

조계종 제26기 행자교육원이 내년 2월 26일~3월 19일 개원한다.

교육원은 12월 16일 교구본사 교무국장 회의를 열어 내년도 주요 교육 및 연수 일정을 확정했다.

제26기 행자교육원에 입교하기 위해서는 12월 18~31일 입교지원서를 접수해, 서류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교무국장 회의는 이와 함께 행자교육원에 입교하기 위한 예비과정인 권역별 행자교육을 내년 1~2월중 3박4일 일정으로 개최한다. 1월 5~8일 호남권(백양사)을 시작으로, 부산 · 경남권 1월 13~16일(해인사), 대구 · 경북권 2월 9~12일(직지사), 충청권 2월 11~14일(수덕사), 직할 · 경기 · 강원권 2월 10~13일(용주사)로 일정을 잡았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문화재관람 · 공원입장료 20일부터 300원씩 인상

조계종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사찰 문화재 관람료와 국립공원 입장료를 300원씩 인상하고 12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사찰 21곳 중 19개 사찰의 관람료는 기존 1,300원에서 1,600원으로 인상됐다. 화엄사는 500원, 도갑사는 200원을 각각 올렸다.

그러나 이번에 인상된 문화재 관람료는 어른에 한하며, 청소년과 어린이의 입장료는 기존요금 그대로 적용된다.

도립과 군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사찰의 경우는 이번 인상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명우 기자

송년특집 올해의 인물 4면 10대 뉴스 6면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02)737-0090 부산:(051)632-0064 대구:(053)768-8008 호남:(062)375-9986 전북:(063)255-2274 대전:(042)489-9390 충북:(043)258-3282 강릉:(033)643-5599 영주:(054)634-3429 경남 동부:(055)353-1196 경남 서부:(055)547-3469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노선에 관련한 불교계의 입장

우리 종단은 최근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노선과 관련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화답은 매우 치욕적이며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다.

작금 건설교통부 장관과 국무총리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불교계를 모독하고 우리의 노력을 왜곡하고 있다. 또한, 불교계와 시민환경단체의 정당한 환경활동과 선거공약 이행촉구를 일방적으로 폄하하고 있다. 이에 우리 조계종은 불교계를 대표하여 국민적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불교계의 입장을 발표하게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불교계는 대선 당시도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2년 여 동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구간 총 4.6km 8차선의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 개설을 반대해 왔다.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이런 우리들의 반대노력을 평가하여 동감하고 민주당에서 불교계 10대 공약 중 7번째 공약으로 채택했던 환경공약을 "첫 번째 공약"으로 격상시키고, "전면 재검토"를 "백지화"로 전격 변경한 공약서를 만들어 2002년 12월 4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하여 전달한 바 있다.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는 2003년 1월 9일 "신년하례식 법회"에서 1,3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서 "반드시 챙기겠다"는 말로 백지화 선거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대통령 취임 후에는 "백지화 공약"은 이행하지 않은 채 "제로베이스에서 노선재검토위원회 구성"을 요구해왔다. 형식적으로는 국무조정실이 주관부서지만 사실상 건설교통부가 주관한 가운데 45일간의 활동은 시작됐다. 활동과정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불공정과 왜곡의 연속이었으며 대통령의 "제로베이스"약속은 시작과 함께 실종됐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관통 찬성이 4명이고 우회찬성이 6명으로 결론이 났다.**

국립공원의 생태는 절대 보존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뒤로하고라도 선거공약, 중진대덕스님과의 약속, 노선재검토위의 긍정적 결론 등은 통치자의 정책적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또다시 공약이행의 기미는 보이지 않은 채 건설교통부의 관통강행 움직임만이 감지되었다. 이에 우리 종단이 요청한 **2003년 9월 22일 면담과정에서 노무현대통령은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공론조사" 수용을 제의했고 "공정성확보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시민환경단체는 생소한 공론조사 방법과 사안에 대한 적용의 적절성,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저의를 의심하여 대부분 강력한 어조로 공론조사 반대와 불참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종단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존중하고 공론조사 제의에 대한 진심을 받아 들여 국민화합을 위한 결단으로 또 다시 공론조사 참여를 결정하고, 3단계 해법안을 10월 27일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바 있다.

3단계 해법 회신내용 에는 "관통노선"에 대비할 수 있는 "비교노선(우회노선)"탐색과 토론자료 마련을 위한 정부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대통령이 약속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고, 토론방식은 공론조사 참여자의 명료한 판단을 위해 "비교토론"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 였다. 그런데 정부는 소요시간과 경비를 부풀려 선전하고 "불교계의 사실상 공론조사 거부"로 언론에 흘려 보도하게 하였다. 이는 정부 스스로가 대통령이 약속한 공정성 보장을 위한 매우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요구마저 거부한 자기모순을 은폐하고, 사실상 불교계의 공론조사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저의이며, 자신들의 정해진 관통관철의 속뜻을 드러내 보인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또한, **고건 총리는 12월 6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공사지연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어 이 문제를 해를 넘길 수없다"라고 결단의 시간이 촉박했음을 시사하고 "원안대로 추진하되 불교계가 요구한 제도개혁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등 서슴없이 백지화 약속 철회를 공식화 하고 있다.** 또한 건설교통부와 국정홍보처 "참여정부 알립마당"을 통해 불교계의 반대로 5,4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원안대로의 연말 결단의 배경은 그들이 주장해 온 "건전한 사회적 합의 절차의 사례로서의 공론조사"나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노선 재검토"가 아닌 사실상 건설업자가 추진중인 일본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계획실현의 편의제공과 일정을 따른 것에 불과하다.

"5,400억 국민혈세 낭비" 운운 또한 공사가 완공되어 영업을 했더라면 그 정도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이며, **실제 국고가 손실된 것이 아닌데도 국민들로 하여금 불교계와 시민환경단체를 국고나 탕진하는 무의미한 행동을 일삼는 부정적인 집단으로 오인시키고, 자신들의 결단을 정당화하려는 저의가 아닌가 의심한다.**

더욱 우리 2,000만 불자를 실망스럽게 한 것은 대통령의 부적절한 선거공약 관련 발언이다. 상대당 후보에게 공약을 선점당한 상황에서 2,000만 불교계 표를 의식해서 선거공약을 강화시켜 제시한 것이 "백지화"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와중에서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결정"이고 "그때 재론한 것이 잘못된 것 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한 것이다.** 이는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발언인가? 불교계와의 약속은 함부로 해도 되고, 함부로 어겨도 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신념에서인지? 지키지 못할 약속은 왜 거듭했으며 재검토다 공론조사다 해여 불교계를 혼란스럽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2,000만 불교도의 이름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참회하는 것은 인간다운 것이다. 그러나 대상과 절차는 분명해야 한다.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백지화 공약은 일차적으로 조계종과의 약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를 뒤로한 채 약속을 저버리고 상대를 경시한 중대한 발언을 방송사 대담에서 가볍게 흘린 것에 대해 조계종과 불교계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매우 당혹스럽다.

이에 우리 종단과 불교계는 향후 정부의 태도를 좀 더 지켜본 후 종단적 그리고 범불교적 최후 결단을 내리고자 한다.

불기 2547(2003)년 12월 18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기획실장 현 고

사 설

북한산 관통 의도를 버려야 한다

정녕 정부는 북한산 국립공원에 길이 4㎞, 폭 40m에 이르는 장대터널을 뚫으려는 것인가. 절대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 국립공원이며, 국립공원 내에서는 개인 소유의 땅일지라도 재산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불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국립공원이 지닌 자연생태 · 역사문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 후손들의 세대에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와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불교계와 많은 시민 · 환경 단체들이 2년여 동안 반대활동을 펼쳐왔던 것이다. 특히 불교의 환경활동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현하는 거룩한 신앙행위이며, 나아가 가르침 그 자체라는 의미를 지닌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치신 핵심 내용은 연기(緣起)와 자비(慈悲)인데,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과 온갖 미물도 당연히 '나'를 형성하는 또 다른 나이다. 따라서 자연과 온갖 미물은 자비를 베푸는 대상이기 이전에 귀히 여겨야 할 '우리'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불교계는 환경의 문제에 대해 멀찍이 떨어져서 벌어지는, 우리와는 무관한 남의 일인양 너무나 무심했다. 이제야 환경 문제의 본질을 파악한 몇몇 스님들의 몇 마디 언사로는 표현하기 힘든 처절한 호소와 불교환경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연기와 자비의 가르침에 한 발짝 다가가고 있다.

그런데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정부의 최근 행태를 보면 너무 치졸하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선재검토위원회 위원 다수의 '관통 불가' 의견도 무시하더니, 최근에는 불교계가 공론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곧 노선을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은 분명히 공론조사를 거부하지 않았다. 관통노선과 비교할 수 있는 몇 개의 대안노선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 공론조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선이 결정되면 전통문화와 환경의 문제가 충분히 고려된 노선설계를 하자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 그런데 정부가 조계종의 이 같은 입장을 공론조사 거부로 받아들인 것은 관통노선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 하나, 정부는 12월 안에 노선을 결정하겠다는데, 근거가 무엇인가. 공론조사를 하자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6개월여의 기간이 필요한데, 12월로 시한을 잡은 것은 공론조사를 형식적인 절차쯤으로 여겼음을 고백한 것이다. 정부의 결정이 이런 식으로 이뤄지니 갈등이 진정되기는커녕 증폭되는 것이다.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를 반대하는 불교계와 환경단체를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매도하기에 이른 것은 치졸함의 극치이다. 환경과 수행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태이며, 잘못된 개발정책의 책임을 떠넘기는 구태의 전형이다. 또 총리실의 한 공무원이 "관통노선을 결정해도 불교계의 반발이 일회성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이는 불교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막말을 해대는 사람이 고위공직에 앉아있는 한 우리 사회의 갈등은 합리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정부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에 임해야 한다. 불교계와 시민 · 환경 단체의 의견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사회적인 합의절차와 환경과 문화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지금 다시 그 기회가 왔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부모 없는 아이들은 따뜻한 방안에서 편안히 잠을 청해도 왠지 춥다.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이다. 버려진 아이들, 무의탁 독거노인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 연말을 보내는 불교단체들이 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깔끔하고 으리으리한 행사장에서 풍성한 음식을 즐기는 송년모임을 대신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훈훈한 연말을 맞고 있다.



이웃 위한 아름다운 송년

불교단체들, 즐기는 모임 대신 어려운 이웃과…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12월 30일 74명의 부모 없는 아이들이 지내는 의정부 선재동자원을 찾아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다. '즐기는 문화를 나누며 회향하는 문화로 바꿔 나가자'는 취지에서다. 이 자리에는 불교환경연대 실무자와 회원들도 동참한다.

안산승무사무소 법우회도 매년 열어오던 송년모임을 취소하고 22일 대부도 자현사에 있는 둥지청소년의집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충남지방경찰청 불교회와 전남지방경찰청은 송년회에 사용될 1백만 원을 대전 자애원과 광주 향림사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각각 전달했다. 또 금융단불자연합회 회원 30여명은 20일 버려진 아이들이 지내고 있는 수원 '행복한집'을 찾아 성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일일 봉사활동을 펼쳤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어려운 이웃의 빚을 탕감해주고 큰 덕을 나누던 '동지 포덕'에 착안해 12월 한 달 동안 후원금을 모아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등 4명에게 성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대불도 자현사 둥지청소년의집서 봉사

송년비용 자애원·향림사 어린이집 전달

중앙신도회 이상근 총무부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송년문화가 불교계로부터 우리 사회에까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태고종 종회의장 인공스님 추대

새해 예산 81억원 책정



12월 18일 열린 태고종 제11대 중앙종회 개원종회에서 의장에 인공 스님(서울 봉원사 주지·사진)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부의장에는 원봉 스님(종무원 부원장)과 대은 스님(인천교구 종무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이어 제88회 정기중앙종회를 열고 △전통불교문화센터(총무원 청사) 건립 △동방대학원대학 개교 △사회복지법인 설립 등의 사업을 2004년에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81억1천6백여만 원을 책정했다.

한편 태고종 중앙종회는 총무원 부원장에 교무부장 학현 스님을 선출했으며, 교무부장에 법현 스님(동방불교대 교학처장), 사회부장에 백운 스님(강원교구 종무원장)을 인준했다. 박봉영 기자

원융·원혜스님 징계

조계종 초심호계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당선 무효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던 간월암 원융 스님에 대해 멸빈 징계가 선고됐다. 또 보우당 불사와 관련해 공금 유용으로 물의를 빚었던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에게는 공권정지 3년이 내려졌다.

조계종 호계원은 12월 21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제38차 초심호계원을 열어 이같이 징계를 확정했다. 한명우 기자

"대적관 여니 만고에 당당한 면목"

함박눈 속 서옹 큰스님 영결 · 다비식

좌탈모습 그대로 팔각전통한옥 상여로 이운

폭설로 내빈들 뒤늦게 행사장 도착하기도



◇서옹 스님의 법구가 안치된 연화대에 불이 붙여지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온통 눈으로 뒤덮인 다비장. 서옹 대종사가 세속의 마지막 인연을 벗던 날, 세상은 스님의 청정 수행자 모습 그대로 하얗게 수놓아졌다.

서옹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그렇게 함박눈이 내리는 가운데 12월 19일 백양사 대웅전과 다비장에서 봉행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원로회의 의장 도원 스님,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각 교구본사 주지, 백창기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조순형 새천년민주당 대표, 이태일 열린우리당 공동의장 등 3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종정 법전스님은 영결법어에서 "노승이 스스로 대적관(大寂關)을 여니 만고에 당당한 면목(面目)이 드러나 있다"며 "노승의 진면목은 분명하고 명백하나 찾아보면 흔적이 없고 아득하고 심오하나 지금 눈 앞에 나타나 있다"고 법문했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영결사에서 "대종사께서 평생을 한밤중 밝은 달이 되어 천지를 밝히시고, 석화(石火)를 일으켜 정(正)과 사(邪)를 판별해주셨다"고 추모했다.

원로의장 도원 스님은 "이제 어두운 길을 누구에게 물어 출신활로(出身活路)를 열어야 하느냐"고 안타까워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조윤제 청와대 불자회장이 대독한 조사에서 "대종사께서 남기신 큰 가르침을 소중한 좌표로 삼고, 온 국민과 함께 기린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영결식이 끝난 뒤 서옹 스님의 법구는 일광정 앞에 마련된 다비장으로 이운됐고 곧바로 다비식이 치러졌다. 팔작지붕 전통한식으로 제작된 상여는 전국 선방 수좌 24명이 멨다. 법장스님과 원로의원 스님들이 연화대에 거화를 했고, 서옹 스님은 그렇게 세속의 연을 벗었다.

장성=이준엽 기자

영결·다비식 표정

○…영결식이 시작된 오전 11시까지 폭설로 인해 주요 내빈들이 뒤늦게 행사장에 도착하는 등 대부분의 참배객들이 애를 먹었다.

○…서옹 스님의 법구를 이운한 상여는, 스님의 좌탈입망에 따라 앉아계신 그대로 팔작지붕 전통한옥으로 제작됐다. 스님의 상여는 문화재 보수기술자 양승문씨가 12월 14일부터 나흘간 제작했다.

○…장의위원회는 영결식 추모 입정시 영결식장에 설치된 멀티비전을 통해 "참사람의 본래면목 자리에서 역사를 창조할 때 인류가 살 수 있다"는 내용의 서옹 스님 화상 법문을 방영했다.

○…연화대에 불이 붙자 일부 불자들은 큰 스님의 마지막 가심을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생사가 둘이 아니건만 스님을 떠나보내는 불자들에게는 큰 슬픔이 아닐 수 없었던 듯.

대한불교 대승종 종도 여러분께

본 종단은 종헌종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총무원장 중심제로 종단의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종권 쟁탈을 위해 일부 몇몇 사람의 해종 행위로 인하여 종단이 일파만파 된 것을 전 종도들이 단합하여 종단의 위상을 정립하고 더욱더 종단 발전에 거듭날 것을 당부 드리며 다음과 같이 그 과정을 알려 드립니다.

1. 그간 불손한 마음을 가진 몇몇 종도들이 불법적인 행동으로 종권을 쟁탈하고자 지난 11월 29일 11시에 약 20여명이 흥도사에 모여 소위 종도 총회란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비상대책 위원회라는 불순한 조직을 만들어 12월 12일에는 새로운 총무원장이라면서 박기현(일명:박성원)스님을 내세우는 초 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2. 더욱이 이들이 내세운 박기현(일명:박성원)스님은 **종정 도암스님의 친아들**이며 현재(2003년) **조계종 승려**로서 본 종의 종헌종법 중 상벌법 제18조(체탈도첩. 제적) 7항(본 종의 승적을 취하고 있으면서 타 종단의 승직을 공유하거나...)에 해당되는 승려이며, 이는 마땅히 체탈도첩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탈법적 종도회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본 종단에서는 불기 2546년도 전 교육원장 법타스님이 이중 승적(태고종)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제적된 예가 있습니다. 고로, 조계종 승적을 가지고 대승종 총무원장을 하겠다는 박기현(일명:박성원)스님의 의도는 우리 대승종 전 종도의 위상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원래 본 종단에 총무원장 자격은 종헌종법 145페이지 종무직원 자격표에 의하여야 (55세 이상) 되는데 총무원장이라 자칭하는 박기현(일명 박성원)스님 연령이 만50세 이므로, 자격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자칭하는 아도정사 법효스님이 몇몇 사람을 모아놓고 총무원장을 선출 했다고 하며 언론에 기사화해 줄 것을 요청한 몰지각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종헌종법도 모르는 자가 종회의장 이라니... 예로써, 불기 2541년 9월 23일 7대 총무원장 선출시 법찰(송원진)스님이 단독 출마하여 총무원장에 당선된 바 있으나, 위의 자격(연령)요건이 미달하여 당선이 취소된 적이 있으며 총무원장 행세를 하여 제적시킨 바가 있습니다.

3. 이들의 행위는 **종정 친아들이라는 것을 내세워** 종권을 차지하려는 파렴치한 소행임이 여실히 들어 나는 것입니다. 특히, 조계종 종적부에는 "기현"으로 되어있는 법명을 감추고자 "성원"으로 법명까지 바꾸어 이중신분으로 본 종단의 종권을 탈취하려는 파렴치한 가공할 행위를 우리는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파사현정의 정법 아래 이들을 응징하고 여법하게 종단의 종풍을 바로잡아 화평하고 번영하는 종단을 만들고자 아래와 같이 **종도 비상총회**를 소집하오니 불사 다망하신 중에도 참여 하시여 종단의 위신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종도 비상종회 일시 :** 2003년 12월 26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종무원 만장사 큰법당 ● **전화 : 031)448-8811**

2003년 12월 15일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법도 일오



◇포행하며 생각에 잠긴 생전의 서옹 스님.

'한국의 임제' … 후학양성 큰 족적

서옹 스님 행장

무위진인의 삶… 끝까지 수행자 본분 지켜

"현대문명위기 극복" '참사람 운동' 펼쳐

평소처럼 선정(禪定)에 든 모습 그대로 단정하게 앉아 열반(좌탈, 坐脫)에 든 서옹(西翁) 스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했던 '우리 시대 최고의 선승(禪僧)'이자 '현대 한국불교를 지탱해온 큰 기둥'이었다.

일찍이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와 선(禪)을 전해주었다면, 이 '서역(西)에서 온 늙은이(翁)'는 조사선 수행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의지로 한국 조사선의 선풍 진작과 후학 양성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조사선임을 내보이기 위해 '참사람 결사운동'을 펼쳤으며, 세수 90이 넘어서도 선방 수좌들의 공부를 1대 1로 점검해 주었다. 또한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와 소탈하고 격이 없는 성품으로 재가불자들의 방문도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준, '무위진인(無位眞人)' 그대로의 삶을 보여주고 갔다.

1912년 충남 논산에서 유학자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난 스님이 본격적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양정고등보통학교에 다닐 때였다. 7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양정고보에 입학하던 28년, 어머니와 할아버지마저 갑작스레 세상을 뜨자 삶에 대한 절망과 회의에 빠져 지내던 소년 이상순(李商純, 속명)은 간디의 자서전을 통해 불교를 알게 되면서 불교서적에 심취하게 됐다. 그렇게 접한 불법(佛法)은 의사가 되라는 주위의 권유를 뿌리치고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1932)에 입학하도록 이끌었고, 김대은 스님의 소개로 평생의 스승 만암 스님을 만나 백양사로 출가했다.

'서옹'이라는 이름을 지어 준 만암 스님과의 일생일대의 큰 만남 이후 스님은 37년 오대산으로 가 방한암 스님 밑에서 2년간 참선 수행에 정진했다. 여기서 나름의 견처(見處)를 얻은 스님은 39년 일본으로 건너가 교토(京都) 임제대학에서 선학 연구를 통해 실참(實參)을 겸비하게 된다. 졸업(1941)할 때 쓴 '진실자기(眞實自己)'란 논문은 나중에 일본 각 대학의 교재로 채택될 정도로 큰 화제가 됐다고 한다.

임제대 졸업후 일본 임제종 총본산 묘심사(妙心寺) 선원에서 3년간 수행한 스님은 44년 귀국, 20여 년간 전국 선방을 돌며 수행에 전념했다. 이후 동국대 대학선원장(1962),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 초대 조실(1964), 동화사 백양사 봉암사 대흥사 선원의 조실을 역임했으며, 74년 조계종 제5대 종정(~1979)에 추대되기에 이른다.

평소 "참선이야말로 가장 쉽고 올바른 수행법이며 본래 자비심이 있는 참모습을 깨닫는 길"이라고 강조한 스님은 96년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에 추대됐고, 98년 '참사람 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스님이 70년대 주창해온 '참사람'은 당나라 임제의현 선사가 말한 '무위진인(無位眞人)'이다. 참사람은 상하 귀천 성인과 범부 등을 초월해 어떤 막힘도 없이 본래 면목에 투철한 사람으로, 스님은 본래 지니고 있는 참사람의 성품을 발견해 생사와 욕망을 넘어설 때 사바세계의 갈등과 투쟁은 사라지고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이 서로 존중하는 평화로운 세상, 곧 불국정토(佛國淨土)가 된다고 늘 밝혀왔다.

98년과 2000년, 지위나 신분을 가리지 않고 승속(僧俗)이 한데 모여 법을 묻고 답하는 무차선회(無遮禪會)를 백양사에서 열었고, <임제록연의> <선과 현대문명> <절대 현재의 참 사람> 등의 저술을 통해 불자들이 불교에 대한 바른 믿음과 신심을 갖도록 했다.

스님은 수행의 일환으로 익힌 붓글씨(선필, 禪筆)로도 유명한데, "좋은 글을 써 주겠다"며 찾아온 호남지방의 한 유명한 서예가가 스님이 먼저 '수처작주(隨處作主)'를 써 보이자 더 이상 글씨를 쓸 엄두를 못 냈다는 일화가 전한다.

이준엽 기자

buddhanews.com에 입적기사 종합

큰스님 '원적모습'은 법문

보조국사 · 한암 · 만암 스님 좌탈 유명

잣나무 붙잡거나 관속에 들어가 열반도

"선사들의 열반 장면도 법문이다."

서옹 스님의 좌탈(坐脫)을 계기로 선사들의 마지막의 순간이 어떠했는가에 대해 불자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이 크다.

선사들은 죽음까지도 인간의 의지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중생들에게 보여준다. 자유자재한 열반모습을 통해 중생들에게 생사가 다르지 않음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인연을 정리할 때 보이는 시적(示寂, 적멸의 세상을 보임)의 모습이다.

고승들은 앉거나(좌탈, 坐脫) 서거나(입망, 立亡) 물구나무를 서거나(도립, 倒立) 공중에 떠서(능공, 凌空) 육신을 벗기도 한다.

국내외 고승들의 입적일화는 다양하다.

백양사 방장 서옹 스님 외에도 근세 고승인 한암 만암 스님이 좌탈했다. 보조국사는 제자들과의 백문백답을 마친 다음 법상에서 내려와 마루에 앉아 입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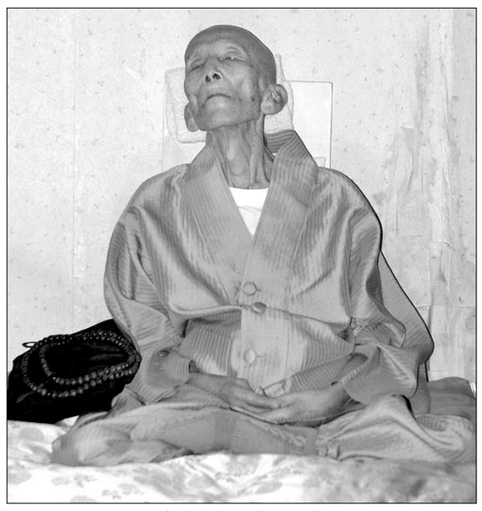
전등록(傳燈錄)을 보면 선사들의 입적 모습을 전하고 있다.

관계 선사는 몸을 태울 화장나무 그 위에 서서 열반에 들었으며, 승천선사는 뜰 앞의 잣나무를 붙잡고 서서 열반에 들었고, 보화선사는 관속에 들어가 열반했다.

등은봉 선사는 운동선수처럼 물구나무를 서서, 단하 천연 스님은 한쪽다리를 들고 입적에 들었다.

선사들의 죽음은 죽음을 초월하는 매우 극적인 법문이기에 죽음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 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좌탈에 든 서옹 스님.

"화두 타파 생사초탈하라" 늘 강조

서옹스님 수행 일화

상좌들이나 문도,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들은 서옹 스님의 수행일화는 말 그대로 서옹 스님의 삶 자체가 '수행'이었음을 보여준다. 온화한 성품이지만 수행에 있어서는 한 치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았던 서옹 스님의 수행 이야기를 정리한다.

○… '항상 화두 참구하라' 고 당부한 엄격한 스승

백양사문도 대표이며 상좌인 원로의원 지종 스님은 서옹 스님을 항상 엄격한 수행을 당부한 스승으로 기억한다. 마음을 비우고 자나 깨나 화두일념으로 살아갈 것을 늘 당부하면서 화두를 타파해 생사를 초탈하라던 가르침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 "출가수행자는 행동이 품도에서 벗어나선 안돼"

상좌인 지선 스님은 은사인 서옹 스님의 꼿꼿한 모습을 항상 존경했다.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을 견지한 스님의 모습을 보고 그 연유를 묻자 "출가수행자는 언제나 성체(聖體)가 품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면서 수행자의 올곧은 자세를 강조했다고 한다.

○… 일본 임제종 묘심사서 철저한 수행 유명

서옹 스님이 일본 임제종 묘심사에서 정진할 때의 이야기. 당시 임제종 선원 입방 과정은 3일 동안 대기하면서 온갖 방해를 극복해야 했다. 오가는 사람들이 발로 차고 시비를 하기도 해 대부분 수행자들은 그 화를 못 참고 돌아가기 일쑤였단다. 그러나 서옹 스님은 오가는 사람들이 발로 차고 시비를 해도 빙그레 웃으면서 편안한 모습을 보여 2일 만에 통과했다고 한다.

○… 원로의원 성수 스님과 치열한 구도행

조계종 원로의원인 성수 스님은 "스님과 나는 함께 지내며 치열한 구도행을 펼쳤다"고 회고했다. 성수 스님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봉암사와 서울 백운암에서도 몇 철을 같이 나며 수행을 했는데, 특히 서울 백운암에서는 몇 개월을 수행정진 하다가 공부를 더 하기 위해 백운암 위의 처소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수행에 전념하시는 철저함을 보이셨다"고 말했다.

○… 자신을 '등불' '부처'로 비유

서옹 스님이 입적하기 전 시자인 호산 스님이 "큰스님 92평생을 살아온 인생을 한마디의 선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스님은 "등불, 등불"이라고 답했다. 이유를 물은 즉 "등불은 잠시 밝았다가 꺼져버리잖아" 라며 자신을 비유했다고. 또 며칠 후에 같은 질문을 던지자 이번에는 "부처, 부처"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마음을 갖고 있고, 모든 이들이 부처되길 노력하니 나도 부처지"라고 대답을 했다고.

○… 부처님 예경 목숨처럼 여겨

90년대 말 참사람 결사운동 사무처장을 맡았던 손상좌 금강 스님이 백양사에 머물며 서옹 스님을 뵌 이야기다. 당시 서옹 스님은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 예경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한다. 스님은 혹여 저녁 예불 때 밤길이 어두워질 때면 항상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기를 한 후 예불을 모셨고, 이어 '능엄주'를 외웠다고.

○… 몸에 밴 근검 절약정신

서옹 스님은 원적에 들기 3일전까지 근검, 절약정신을 몸에 지녔다고 한다. 시자인 호산 스님은 "화장실에서도 휴지 3칸을 절단해 꼬깃꼬깃 접어 사용할 정도로 근검절약 정신이 뛰어난 분이셨다"며 "세수하실 때에도 물 한 바가지를 낭비하지 않으셨다"고 전했다. 이유를 물으면 대종사는 "물 한 방울, 휴지 한 장이라도 아껴야 수행자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圓 曹溪宗 第5代 宗正 西翁堂 尙純大宗師 宗團葬 寂

感謝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5대 종정 서옹당 상순대종사께서 지난 12월13일(음 11월20일) 오후 10시 백양사 설선당에서 열반하시어, 12월19일(음 11월26일) 영결식 및 다비식이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장(宗團葬)으로 여법하게 거행됐습니다. 서옹당 상순대종사 영결식 및 다비식에 관심을 가져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문도들은 스님의 유지(遺志)를 이어 앞으로 더욱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曹溪宗 第5代 宗正 西翁堂 尙純大宗師 宗團葬 葬儀委員會

■ 연락처 : 전남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고불총림 백양사 ☎ 061-392-7502

證明 : 법전
顧問 : 관응 도견 법룡 도원 종산 원명 도천 성수 활안 숭산 원담 녹원 보성 이두 정천 동춘
指導委員長 : 지유 고산 월주 능가 송담 월운 정무 정일 법정 도문 밀운 법흥 철웅 봉우 정원 송월 종하 설정 흥교 현호 오현 명성 광우
護喪 : 석주
葬儀委員長 : 법장
葬儀副委員長 : 지하 월서 도영
葬儀委員 : 전국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선원 · 강원 · 율원 대표, 비구니대표
執行委員長 : 두백 성관
執行副委員長 : 현고 도일 미산
都監 : 진우
秉法 : 세민 도성
秉儀 : 현공 청학 의연 토진 법일 일관 수인 법륜 법장 법신 자성 동참 법연
典賓 : 일수 현묵 무아 무공 본묵 석장 자연 석장 무학 대연 성진 광진 효진 광제
知客 : 백암 백인 보문 청련 기산 일제 정원 선석 능진 원교 진연 행원 진웅 본해
法務 : 일도 태연 심곡 심학 원철 원적 도공 성오 보철 덕인 도문 진명 정헌 백암 선원
財務 : 법룡 법주 법구 법운 법경 법전 법공 산동 혜원 정본 주경 대현 무상 법선 법천 법경 법산 법해
護法 : 종열 보연 진오 정산 혜원 정련 기산 일제 정원 선석 능진 원교 진연 행원 진웅 본해
弘報 : 금강 탁연 한북 법인 혜용 원종 혜오 총무원기획실 불교신문
接受 : 혜현 원광 원명 정중 광덕 원오 여공 성종 석원 선관 범초 법장 산동 현욱
曾孫上佐 : 미산 진우 진오 혜현 현묵 무상 무학 보인 혜원 혜등 혜안 혜장 덕룡 덕인 혜오 혜광 덕유 선종 무산 법광 법연 석전 법흥 법장 무선 청호 일화 관오 진효 선각 진원 진석 법신 정상 일루 지행 지공 법당 우담 법화 법진 오양 탈해 법창 법오 법경 법강 법무 설루 법정 법선 법양 덕우 설각 설로 종성 도갑 수관 수철 설종 법원 법조
孫上佐 : 천운 철웅 벽봉 혜정 지우 대우 보광 법우 심곡 홍조 혜권 광제 지운 원응 두백 지우 태일 소연 적연 허명 타파 현정 지범 벽우 선각 진공 백암 혜승 수인 창렬 창오 정허 도형 정타 보선 몽산 범여 설송 유계 월타 보각 진아 원진 응각 법일 법륜 법운 화봉 현명 법장 법영 명연 법송 일수 법신 현공 정연 도성 설제 진우 현공 무공 법각 월우 보성 법해 일공 일진 탄우 우송 성묵 세정 태성 보현 창운 일도 현각 무연 정헌 의연 원일 선공 자성 동참 자연 보연 석장 본묵 무아 법광 금강 호산 법연 청연 상연 도연 관연 혜각 경만 법우 심연 법현 향운 제영 종연 정명 법지 정제 도현 정견 학연 석연 한북 법령 성오 재연 정진 현암 선공 대연 여연 혜종 만당 법우 귀본 심연 시연 승연 성광 남연 무애 상암 법선 고호 삼현 고응 법천 청탄 법경 정원 우궁 법산 법해 도균 청마 법룡 소궁 법주 법구 지천 현조 지공 정공 정현 법운 법공 산동 원오 남혜 능혜 남천 현장 학연 정궁 인궁 석궁 도공 선관 현담 법성 수현 정랑 근성 무등 도명 시연 구암 정공 정현 법운 법공 산동 원오 남혜 능혜 남천 현장 법인 정안 법선 법륜 혜향 정평 보안 가산 도정 도공 도종 법종 범아 도안 도아 도근 법량 도관 도신 보성 현우 법성



제2회 청우 동국상 수상

한국청소년단체협회 회장 현성 스님이 청우 최재구선생추모사업 기념회가 12월 18일에 시상한 제 2회 청우 동국상을 수상했다.

일주문



스리랑카 대종사 품수

서울 금강사 주지 자우 스님은 12월 1일 스리랑카 라만야 종단으로부터 대종사(마하야카) 및 명예 종정에 추대 서품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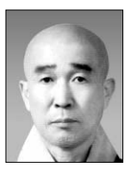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위원 위촉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현고 스님은 12월 15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3기 위원으로 위촉됐다.



여주교도소서 송년법회

경기 양평사암연합회장 화암 스님(사나사 주지)은 12월 19일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2003 송년 법회를 봉행했다.



'자아와 명상' 주제로 특강

서울 성북구 정릉 보경사 주지 원공 스님은 12월 15일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자아와 명상'을 주제로 겨울방학 특강을 했다.



신인문학상 수상 문단 데뷔

인천 중부경찰서 경승 정암 스님(안심선원 주지)은 최근 월간 문학세계에서 신인 문학상을 수상, 문단에 데뷔를 했다.



'나눔 한마당' 자선바자회

대구 보현암 주지 선진 스님은 보현다도회와 공동으로 12월 12~13일 대구 법성학원 강당에서 '나눔의 한마당' 자산바자회를 개최했다.



아이네임즈 대표이사에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제 이사장은 12월 17일 서울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한글도메인 등록업체 아이네임즈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21세기 한국연구소 개소식

21세기 한국연구소 김광식 소장은 12월 18일 서울시 마포구 황금바늘 빌딩 4층에서 21세기한국연구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공불련 신임 총무 장병원 씨

감사원 감사1국2과 장병원 부감사관은 12월 30일자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신임 총무로 선임됐다.



은평구청 불심회, 송년법회

서울 은평구청 불심회 김은혜 회장은 12월 17일 강원도 백담사와 만해마을, 낙산사 등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돌볼 사람 많아 아플 틈도 없어"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이경출 씨



"내 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12월 19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는 조계종 자원봉사단 소속 봉사자 이경출(57·사진) 씨.

모태신앙으로 불교와 깊은 인연이 있는 이씨는 1991년 불교방송 문화센터에서 혜창 스님 등의 강좌를 들으며 불교를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빠져들어 갈 즈음 지병인 신부전증으로 쓰러져 힘든 투병생활을 겪었다. 이씨는 회복후 지금의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란 생각에 봉사로 새 삶을 회향하기로 마음먹었다.

일주일 내내 이씨의 시간표는 봉사 일정으로 빡빡하다. 월요일은 밤섬에서 철새 안내, 화요일은 국립재활원에서 목욕봉사, 수요일은 월드컵 공원 안내, 목금요일에는 한일병원에서 중앙공급실 봉사를 하고 있다.

"봉사를 하면서 많이 건강해졌어요. 제겐 봉사가 곧 기도랍니다. 부처님이 언제 절에 와서 기도하라 하신 적이 있나요? 초하루날 전 봉사하러 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사가야죠."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번뇌벗고 포교사의 삶 살렵니다"

불가 귀의 안정환 선수 모친 안금향 보살



"그동안의 모든 번뇌를 지워버리고, 열심히 수행정진 하는 포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축구선수 안정환 씨의 모친 안금향 씨(46·사진)가 서울 구기동 자비정사에서 불법에 귀의하는 발원문을 낭독하며 본격적인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다.

본래 불교 신자인안 씨는 감옥에서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동안 불법에 귀의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안 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올 10월에 구속, 지난 12월 5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안 씨는 앞으로 자비정사 주지 묘심 스님의 지도아래 수행하게 되며, 내년 1월쯤 삭발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상희 기자

제1회 대원상 시상식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12월 17일 대법당에서 제1회 대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인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박광서 서강대 교수, 동산반야회 김재일 법사를 비롯해 2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임제선학원 서울포교당 개원



한국불교임제선학원(종무원장 마정)은 12월 15일 서울 중랑구 망우3동에 서울지역 포교도량인 용마 관음사를 개원했다. 이날 개원법회에는 대각회 흥교 스님, 임제선학원 종장 죽산 스님, 일붕사 조실 혜암 스님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02) 496-3952

본지 선정 올해의 인물

'환경' 화두 국민뇌리에 심어

새만금 삼보일배 주역 수경 스님

2002년 수경 스님(사진)의 화두는 '산'이었다면 2003년은 '갯벌'이었다. 2002년 북한산을 살리기 위해 철마선원에서 정진했던 스님은 2003년에는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삼보일배를 하며 정진했다.



65일간 4개 종교 성직자들이 함께 한 삼보일배는 종교가 그 어떤 정치적 맹세보다 한국사회의 상처를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한 상대에 대해서는 가장 비폭력적이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한,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것에서부터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가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시위문화'를 만들었다.

수경 스님은 삼보일배 도중 탈진해 쓰러지기도 했다. 평소 앓아왔던 무릎 관절염과 녹내장이 심해져 의사로부터 실명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들기도 했다. 격렬한 고행으로 근육세포가 죽어 빠져나가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들었다. 그러나 스님은 다시 아스팔트로 나섰다. 링거 주사를 맞으며 휠체어에 탄 채 서울에 입성했던 것이다.

스님의 이러한 고행은 새만금 뿐 아니라 '환경'이라는 화두를 국민들의 뇌리에 깊숙이 새겨 넣었다. 법원도 공사중단이라는 해결책을 내놓았다.

수경스님 등 삼보일배단은 환경단체인 환경과공해연구회로부터 '2003년 환경인'으로 선정됐으며, 환경운동연합 선정 2003 환경인상 '녹색시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삼보일배는 환경운동연합이 뽑은 '올해의 10대 환경뉴스' 뿐 아니라, 국내외 저명 환경운동가와 환경학자들이 선정한 '2003 지구촌 10대 환경뉴스'에 포함됐다.

수경 스님은 내년부터 남원 실상사 주지 도법 스님과 함께 '생명평화 탁발순례'를 떠난다. 평화의 기운을 전국토에 심기 위해 다시 길 위에서 정진할 계획이다.

스님은 "북한산이 곤경에 처해 있는 지금 '올해의 인물' 선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냐"며 수상 소감을 대신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천성산 수호열기 전국에…

두차례 단식으로 시선집중 지율 스님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느낍니다. 10만 소송인단이라는 귀중한 인연들을 만나 도롱뇽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모든 분들이 끝까지 저와 천성산을 떠나보내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문제로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45일간의 두 번째 단식을 끝내고 도롱뇽 소송을 진행중인 지율 스님(사진)의 2003년은 '거리'에서 보낸 한해였다. 3월 14일 38일간의 단식을 끝내고 잠시 천성산으로 돌아갔던 스님은 8월 초 다시 부산시청 앞으로 돌아왔다. 이때부터 44일 동안 매일 삼천배를 했고,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부산역에서 화엄벌까지 삼보일배로 올랐다. 그리고 45일 동안의 두 번째 단식과 도롱뇽 소송을 시작됐다.

일련의 과정들을 "천성산 하나만 바라보면서 걷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정리한 스님은 "운동의 과정을 통해 격렬해지고 극단적으로 흐르는 감정들을 정화하고 중도를 지켜내는 것이 곧 수행임을 알게 됐다"며 그간의 과정 속에서 겪었을 심적인 고통을 토로했다.

지금 스님은 도롱뇽의 마음이 되어 천성산의 얘기를 세상에 전하고 있다. "도롱뇽 소송은 10만 명의 사람들이 환경에 눈을 뜬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강조한 스님은 "자연환경을 잃게 되면서 인드라망에 연결된 구슬처럼 연쇄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우리의 일상, 미래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희망"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내년 한해를 '양날의 칼'로 비유했다. 공사가 강행될지도 모를 위기 속에 변화가 많을 것이라는 긴박함을 담고 있는 말이다. "공사가 시작되면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갈 것"이라고 밝힌 스님은 "그 이후는 산의 소리를 따라갈 뿐 어떻게 진행될 진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처럼 천성산을 지키는 일은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이라는 스님은 1월 5일부터 보름동안 도롱뇽 소송 전국투어를 갖고 천성산 운동 속에 담긴 사람들의 생명 사랑을 담은 책, '도롱뇽 출석했습니까(가제)'도 내년 1월 중순경 출판한다.

부산= 천미희 기자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해당되는 증상에 (O)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CUMIN ·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점점 추워지는 겨울!
챙기셨습니까?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월드컵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를 챙겨주세요.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햇오가피를 수확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겨울 수확하는 햇오가피로 만들어 더욱 새로워진 수신토종오가피!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매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수신천사토종오가피
오가피와 여러 씨앗으로 만든 성광수 생씨앗베개

문의전화는 02)447-0047


◇8일 새벽 파손된 용인 보광사 관세음보살입상.

사찰·성당 20여곳 불상·성물 훼손

피의자 2명 검거 검찰 송치

범행동기·사이비 종교 관련 여부 조사

12월 8~14일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돌며 용인 보광사, 안성 청원사 등 2개 사찰과 성당 20여 곳에서 훼불 및 성물을 훼손한 피의자인 최모 씨(42)와 예모 씨(48)씨가 22일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4일 새벽, 인천시, 안성시 일대 성당 9곳의 성모 마리아상과 아기 예수상을 훼손한 최모 씨와 예모 씨 두 명을 15일 검거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8일 용인 보광사에 들어와 사찰 입구의 관세음보살입상을 비롯해 삼성각의 불상 세구도 파손했다.

피의자들은 8일 새벽 1시경 용인 보광사 요사채 앞에서 주지스님을 깨운 뒤 "부처의 뜻을 알고 싶어 왔다"며 면담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좋은 일하러 다니는 데, 부처는 하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등 불교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운스님이 이들의 언행을 크게 경책하자 임시넘버를 단 체어맨 승용차에 오른 뒤 "예수님 할아버지가 시켜서 우리가 부처님을 쓰러뜨리고 깨트렸다. 절마다 돌아다니며, 불상을 모두 부수고 있다"고 말하며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경찰서 이형우 형사는 "현재 최모와 예모 씨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벌어진 불상과 성모상 훼손사건 용의자와 동일범인 것으로 보고, 범행동기와 정신병력, 사이비종교 가입여부 등을 면밀히 재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대통령, 공약 이행여부 밝혀야

'북한산 문제' 조계종 입장 현고스님 일문일답



▲종단의 태도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북한산 자체도 중요하지만 2천만 불자들을 상대로 한 두 번의 약속은 상대의 권위와 인격을 존중한 가운데 마무리돼야 한다.

▲정부의 부적절한 활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언론보도에서 나타났듯 불교계 때문에 결과적으로 5400억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건설교통부가 주장한 내용이고 국정홍보처가 재생산했다. 또 선거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현재도 이와 관련해 (정부측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

▲정부에 바라는 구체적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선거공약을 잘 이행하라는 것이다. 공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면 종단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공약 1차 약속 대상은 조계종이다. (정부측에서) 결정적으로 왜곡한 것은 조계종이 공론조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공론조사를 하기 위해선 비교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 비교노선에 대한 데이터가 사실상 없다. 건설교통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관통노선 우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자료일 뿐이다. 정부에서는 조사비용과 시간문제를 거론하며 공론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환경단체는 6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가 거부하는 것은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정부, 비용·시간문제 들어 공론조사 거부
상황에 따라 종단적인 저항도 배제 못해

▲범불교적 최후 결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종단적 방침과 목표가 정해지면 전 종도가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부안 핵폐기장 사건에서 보는 종단적 저항도 배제할 수 없다.

정리=남동우·사진=박재완 기자

정각 이루신 부처님 뜻 되새겨

30일 성도재일…사찰마다 다양한 정진

12월 30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성도재일(成道齋日,음력 12월 8일)을 맞아 전국 각 사찰들이 철야정진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조계사는 29일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금강경 독송, 참선·절 수행, 탑돌이, 유미죽 공양 등을 하며 철야정진을 봉행한다.

서울 화계사와 수국사, 가평 연화세계사 등도 29일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참선 및 철야정진을 하며, 서울 길상사는 철야정진과 함께 3000배 정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철야정진 외의 단기간 정근기도를 봉행하는 곳도 있다. 서울 봉은사와 도선사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정근기도에 들어간다. 서울 구룡사의 경우 24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다.

또한 오대산 월정사와 부천 석왕사, 대구 관음사, 예천 서악사 등도 29일에서 31일 사이에 1박 2일 혹은 2박 3일 일정으로 단기 정근기도에 들어간다.

이밖에 2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공주 영평사의 7일 단기출가와 순천 송광사의 자비수참 정근, 29일 개최되는 수원포교당의 '젊은 불자인들의 송년음악회', 서울 봉원사의 재등행렬 등 성도재일 맞이 행사들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김은경 기자

성도재일 행사

사찰·단체	행사내용	문의처
조계사	참선·절수행 및 철야정진	(02)732-2115
화계사	참선 및 3000배 정진	(02)902-2663
구룡사	철야정진 및 성도재기도	(02)575-7766
길상사	철야정진 및 3000배 정진	(02)9672-5945
수국사	철야정진	(02)356-2001
진관사	3일참선 및 철야정진	(02)359-8410
연화세계사	참선 및 철야정진	(031)585-5108
영평사	성도재일 맞이 7일 단기출가	(041)857-1857
봉원사	철야정진 및 제등행렬	(02)392-3007
봉은사	8일정근기도 및 철야정진	(02)511-6070
도선사	〃	(02)993-3161
수원포교당	송년음악회 및 철야정진	(031)255-2692
송광사	자비수참 정근 및 철야정진	(061)755-0107
월정사	단기 철야정진	(033)332-6661
석왕사	〃	(032)663-7771
관음사	〃	(053)474-8228
서악사	〃	(054)652-0716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성도재일 대법회	(062)376-3223
대구사원주지연합회	〃	(053)257-8002
대전비구니청림회	〃	(042)485-1792


◇재소자들이 목탁을 치며 찬불가를 부르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내국인과 똑같은 인권 누리길"

희생 외국인 노동자 추모 천도재 봉행

강제추방으로 희생된 외국인노동 을 했다.

자 추모 천도재가 12월 16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성공회대성당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요구하며 농성중인 외국인노동자 40여명은 일문(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직무대행)·종호(사무처장) 스님의 장엄염불 독경 아래, 먼저 이 생의 연을 다한 다라카(스리랑카), 부르흔다·카임(우즈베키스탄), 네빨비꾸·자카리아(방글라데시), 안드레아(러시아), 김원섭(중국) 영가를 추모했다.

천도재에서 일문 스님은 "3D 업종에 일하면서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노동자들이 내국인과 똑같은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바뀌길 바란다"고 추모법문을 했다.

부처님의 고향 네팔에서 왔다는 미누드 목탄(33) 씨는 "불교는 생명이 우선인데 왜 희망의 땅이 죽음의 땅으로 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자들이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여주교도소 불교합창제
라면·양말 등 후원품 전달

여주교도소 불교분과위원회(성무·용주사 총무)는 여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법송) 후원으로 12월 12일 여주교도소 대강당에서 '제2회 여주교도소 불교합창제'를 개최했다.

여주불교사암연합회는 합창제가 끝난 뒤 여주교도소에 라면 17박스와 겨울용 방한양말 400컬레, 떡 400인분을 선물로 전달했다. 한명우 기자

총지종 새스승 11명 탄생
개천사서 관정 수계식

총지종 새 스승 11명이 탄생했다.

총지종은 12월 16일 대구 개천사에서 신규 스승 관정수계식을 봉행하고 정사(남성 스승) 6명, 전수(여성 스승) 5명 등 모두 11명에게 관정수계 했다.

서울 통리원, 일선 사원 등지에서 7주간 종단 교리와 수행체계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날 계를 받은 11명의 스승들은 18일부터 일선사원에 배치됐다. 박봉영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 택시
1588-5532

스님 컴퓨터 무료교육 지속

불교정보화협의회 18일 정기총회

불교정보화협의회(회장 현성)는 12월 18일 낮 12시 제2차 정기총회를 열고 내년 사업안을 확정했다. 협의회는 총회에서 금년 사업을 결산하고 내년에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극복을 위한 불교적 대안' 주제의 세미나를 비롯한 각종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또 금년 전국 8개 지역에서 실시한 '스님들을 위한 무료 컴퓨터 교육'도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협의회 회장 현성 스님은 "불교계의 정보화 분야 발전을 위해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일해 나가며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각 종단과 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불교계 공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천태종, 진각종, 불교방송, 고려대장경연구소,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청소년교화연합회, 현대불교신문사 대표들이 참가했다. 임연태 기자

한 의 과 대 학

1 남경중의약대학(한의과대학)

2004년 본과생(학사) ■ 석사·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약과(중의약)	5년	◇자 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대학재학 및 졸업자(만40세이하)
일반학과 (사범대)	4년 (편입가능)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입학신청서 1통(소정양식) 건강진단서 1통(영문) 여권용사진 10매, 주민등록등본 1통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한의과대학 ▶ 한국한의사 시험 2005년 3월이후(국회법통과)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중국 중의사 시험 2002년부터 개방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 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식당 등 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6년)
▶ 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3년 12월 30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처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불교대

4 문의처

· 남경중의약대학 한국분교 : 삼화불교대
전화 : 02-511-2026~7, FAX : 02-511-2028
홈페이지 : www.samhwade.com
· 中國 南京市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화: 25-632-2539, FAX : 25-532-0825

2004년 삼화불교대 학생 모집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기간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개호복지사과	2년	■통신 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각 종단 승려 포교사 · 30세이상 이력서 전형 가능
불교학과 (교육학 학위가능)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통신 80명		
	4년	■통신 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학위수여 가능)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4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포교사과정	2년	■야간 30명		

1989. 7.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종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체결 - 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0.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남경중의대학 30명 합격
2002. 2. 제 11회 졸업생 배출, 남경중의대학 37명 합격
2003. 9. 남경 중의대학 41명 합격

· 전과 중국학위 가능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포교사 자격취득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 개호복지사과 2급 자격취득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한의대), 효장 사범대학 입학 및 편입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3년 12월 30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우편당일 소인 유효)

· 본교 교학과 : TEL 02)511-2026~7 FAX 02)511-2028
인터넷 홈페이지 : www.samhwade.com
E-mail : samhwadea@hanmail.net
· 일본동경분교 : TEL 047-376-1321, 13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조계종 삼 화 불 교 삼 화 불 교 대 학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연령 관계 없음

■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기간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남경한의대 입학가능, 남경사범대 입학가능

■ 문의처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1080
FAX : 02) 511-2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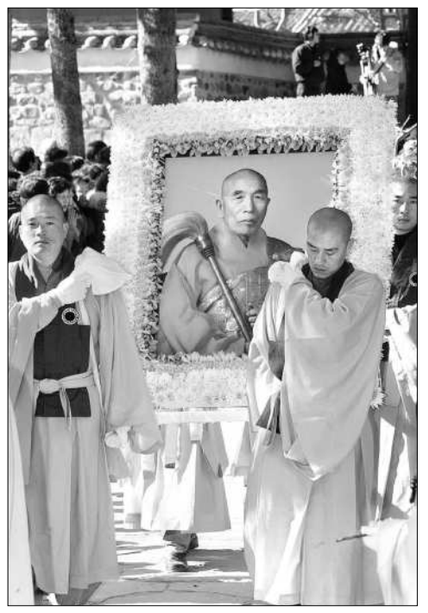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삼 화 불 교 성지고등불교학교



'북한산' 등 환경수호 올 최대 화두

본지선정 10대 뉴스

2003년 불교계는 '환경 수호'라는 화두를 풀기 위해 쉼 없이 정진해 왔다. 이로 인해 북한산, 천성산은 불자들과 함께 하는 도반과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 했다.신행현장의 열기도 뜨거웠다. 공무원불자연합회와 경찰불교회 등 불자회가 연이어 창립하는 성과를 냈다. 조계종은 제31대 총무원장에 법장 스님이 당선되고, 비구니 탁연 스님이 종단사상 최초로 부장을 맡는 등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우리 사회와 불교계를 이끌었던 큰스님들의 원적 소식은 불자들을 안타깝게 했다.



법장 스님, 총무원장 당선

법장 스님은 2월 2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실시된 제31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과반수를 넘는 179표(56.1%)를 얻어 31대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법장 스님의 당선은 한국불교의 변화와 도약을 바라는 사부대중의 염원이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낳았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금권선거 등의 시비 없이 비교적 깨끗이 치러져 불교계 선거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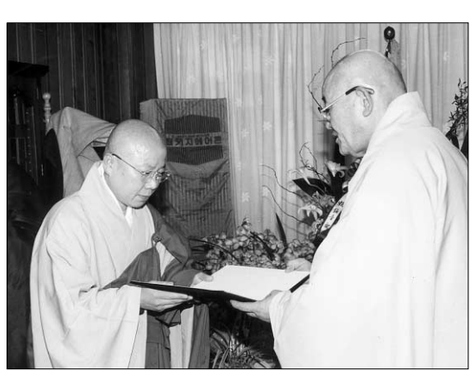


수경스님 새만금 삼보일배

수경 스님 등 4개 종교 성직자들이 두 달여간, 해창갯벌에서 서울까지 진행한 삼보일배는 가장 불교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의 감동을 낳았다. 자기 참회를 통해 상생의 세계를 펼치겠다는 4개 종교인들의 모습은 종교간 화합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환경'이라는 화두를 새롭게 심어줬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공사중단 판결을 이끌어 냈다.

큰스님 잇달아 열반

지난 3월 전 조계종 종정 서암 스님이 원적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월정사 조실 인허 스님, 파계사 조실 고송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청화 · 덕명 스님, 태고종 종정 덕암 스님, 본원종 종정 태허 스님, 통도사 방장 월하 스님, 백양사 방장 서옹 스님 등 큰스님들이 연이어 열반에 들었다. 죽음 앞에서도 생사를 초탈한 선지식들의 열반송과 거룩한 행장은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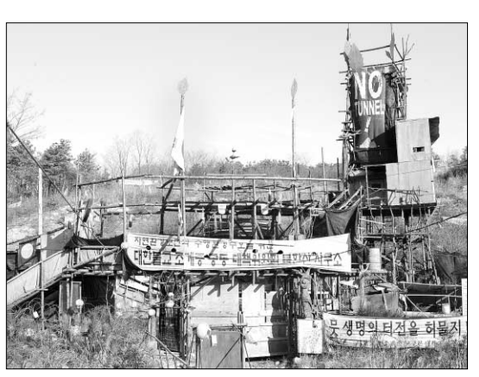
비구니 스님, 첫 총무원 입성

조계종 사상 처음으로 총무원 집행부에 비구니 스님이 임명됐다. 지난 3월 초 문화부장에 임명된 탁연 스님은 사회적으로도 관심의 초점이 됐다.

비구니 스님의 집행부 발탁은 종단 안팎으로부터 조계종 변화에 대한 기대를 확산시켰다. 이와 함께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종단 참여의 길을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불교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금석을 놓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풀리지 않는 화두, 북한산

해를 넘어온 북한산 문제는 올해도 불교계의 중요한 화두였다. 조계종과 정부가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관통반대 우세라는 결과물을 낳았지만 정부와 개발론자들에게 우이독경(牛耳讀經)일 뿐이었다. 조계종 교구본말사 주지 스님들과 종단협 소속 종단들의 릴레이 단식 정진도 대통령 공약 이행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조계종은 3단계 해결 절차를 내세웠지만 이조차도 실현이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연내 결론을 주장할 뿐이다.





공무원 불자회 창립 열기

출범 3년차를 맞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12월 광주광역시청에 불자회를 결성,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도 · 광역시청에 불자회 창립했다. 공무원 불자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공불련 깃발'을 세운 셈이다.

또 대한민국경찰불교회는 11월 구미시에 100호 불자회를 창립시켰다. 이는 그간 불자회 결성을 주저했던 공무원 불자들이 일터를 생활불교의 마당으로 넓히는 한편, 재가불자 신행 흐름에 변화의 거센 바람을 일으켰다.



지율 스님 천성산 지킴이

정부의 기존 노선 강행 발표는 지율 스님(내원사 산감)의 천성산 살리기 의지를 꺾기는커녕 의지를 더욱 불태웠다. 지율 스님은 38일간의 단식정진과 38일간의 삼천 배 정진, 45일간의 단식정진으로 도룡뇽 소송 원고 10만인 모집에 성공했다. 산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스님의 모습은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천태종 北영통사 기와 지원

지난 10월 27일, 개성 영통사 복원에 사용될 '통일기와' 10만장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한에 전달됐다. 천태종은 11월 10일과 12월 1일 각각 10만장, 6만장을 전달했으며, 내년 3월까지 총 46만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98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를 몰고 휴전선을 넘은 이후 육로를 통해 지원된 최대 규모다. 통일기와 북한 지원을 계기로 천태종은 통일부로부터 대북교류 협력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명상 · 수행서 인기몰이

올 한해 출판계의 키워드는 '마음'과 '명상', '수행'이었다. 틱낫한 스님의 저서만도 올 한해 20여 권이 출간됐고, 지난해 선보인 <화>는 올해 역시 베스트셀러(교보문고 집계) 5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독자들의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생활 속의 명상 수행법을 소개하는 책들도 줄지어 선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이라크 전쟁과 경기침체 등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INEB(참여불교) 서울대회

올 여름 한국에서 참여불교의 꽃이 폈다. 2003 INEB(참여불교국제네트워크) 서울대회가 열린 것이다. INEB 설립자 슐락 시바락사 등 전 세계 참여불교 지도자들이 모인 서울대회는 '불교의 올바른 사상'과 '불교의 사회참여' 두 주제로 나뉘어 열렸다. 참석자들은 주제별 워크숍과 전체토론, 공개 심포지엄 등을 통해 참여불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색했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성과는 한국의 참여불교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린 것.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4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4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최종석(동국대교수)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김호귀(동국대교수)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박 종 (동산불교대교수) · 권기종(동국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한문학과(50명) · 불교문예창작과(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3년 12월 20일~ 2004년 1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반)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미술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반)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문예창작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 학 일 시 **불교학과 : 2004년 2월 7일 (토) 오후5시 (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 · 다도학과 · 불교미술학과 · 불교문예창작과 : 2004년 3월 4, 9, 10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 (조계사앞) 02) 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051) 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제주 : 예전 수보리 쉼터 064) 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운명학의 최고봉 적천수(滴天髓)!
드디어 상·하권 완간!



역학도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 [적천수]가 비로소 완전정복 된다.

적천수 원문 완전 수록

운명학의 최고봉 적천수(滴天髓)!
명리(命理)의 진수(眞髓)를 파헤쳐 정확한 예단을 통해 운명을 개척한다!
적천수 원전(元典)을 토대로 실낱같은 함정과 오류를 드러내고 의롭게 밝혔다.
공유성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8페이지 / 정가 4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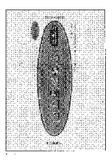


일현스님의 정설 사주공부

역술인의 완전정복 지침서
"기초부터 전문감정까지 한 권으로 끝낸다!"
불필요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이론은 정리하였다.
기초부터 전문이론까지 핵심을 꿰뚫었다.
고전이론을 현대에 맞게 적용시켜 풀이하였다.
10년 공부한 사람도 막히는 격국 용신을 원리적으로 해결하였다.

일현스님 지음
양장본
값 2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4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6,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12,000원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봉서 지음/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진호일 공저/정가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倖 譯杜圖解/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배광 지음/정가 8,000원
12 사주 임상록 신국판/양장본/이상욱 지음/정가25,000원
13 전통 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진상백 서/정가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金允中 지음/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필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정가 30,000원
16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신국판/정현우 지음/정가 17,000원
17 명가흉가의 가상학 비결 신국판/김용식 지음/정가 15,000원
19 구성학의 사주풀이 신국판/양장본/문길여 지음/정가 25,000원
20 육효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지음/정가 30,000원
21 한국 풍수 이론의 정립 신국판/양장본/박봉주 지음/정가 25,000원
22 적천수 형의(上)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23 대권과 풍수 地氣를 해부하다 신국판/우영재 지음/정가 18,000원
24 21C 천문만세력 4*6배판/정수홍 지음/정가 35,000원
25 실전 명리학 첫걸음 신국판/정수홍 지음/정가 15,000원
26 적천수 형의(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27 정설 사주공부 신국판/양장본/일현스님 지음/정가 20,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61-15 광성 B/D 3층 T. 921-8434 F. 929-3470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관음보살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서역미술 특별전 현장

千佛洞의 미소 펼쳐진 듯

중앙아시아 유물 176건 462점 전시
80년대 이후 첫 공개 서역미술 정수 한눈에
모두 일제때 오타니 탐험대가 수집 기증 한 것
불교미술의 흐름 증거 되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 돼


연화화생상
호탄에서 발견
6~7 세기.


편안하지만 슬퍼보이는 천부상의 미소


천부흉상
투르판 무르툭서 발견
6~7 세기.

4세기 실크로드. 광활한 중앙아시아 대륙을 달리던 이들이 있었다. 이들은 건조하고 뜨거운 사막의 모래폭풍을 피해 바위산에 석굴 사원을 만들고, 인도로부터 전해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었다. 석굴사원의 흙벽은 불화로 장식됐고, 구멍마다 부처님이 모셔졌다. 쿠차와 투르판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석굴사원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같은 장소에 군집해, 밍오이(ming-oi, 천개의 집) 혹은 천불동(千佛洞)이라 불렸다.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19세기 비단길. 인적은 없고 흔적만 남은 과거의 영화를 상징하는 유물들은 영국 · 러시아 · 독일 · 프랑스 · 일본 등 이국 탐험대의 톱질 소리와 함께 사막을 떠났다.

12월 16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열리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서역미술' 특별전. 천불도 · 관음보살도 · 보살입상번 등의 중앙아시아 종교문화유물과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용했던 신발 · 그릇 · 거울 · 도장 등 생활용품, 무덤에서 출토된 매장 유물 176건 462점이 전시됐다.

특별전 이틀째인 17일, 이른 시간이라 관람객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1980년대 옛 중앙청 청사에서의 전시 이후 처음 공개되는 서역 불교미술의 정수를 접할 수 있다는 기대에 찬 관람객들의 발길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중앙아시아 3차원 입체영상을 지나 입구를 들어서면 둥근 얼굴에 활모양의 눈썹, 아무런 장식 없이 흘러내린 머릿결의 온화한 인상을 한 천부상(天部像)과 마주친다. 관람객 이효은(24) 씨는 "사찰을 장엄했던 천부상의 시선이 서역 땅을 바라보는 듯해 왠지 슬퍼 보이기도 하지만, 편안함도 느껴진다"며 "우리와 멀리 떨어진 곳의 유물이지만, 얼굴 생김이나 느낌이 낯설지 않다"고 말한다.

천부상의 오른쪽으로는 5점의 벽화 천불도가 위용을 드러낸다. 투르판의 야르호 석굴사원 제4굴 천정에 묘사돼 있던 여래좌상인 천불도 조각을 이어붙인 자리마다 석굴의 흙과 지푸라기 흔적이 남아 있다.

3m 높이의 보살입상번 3점 앞. "여기 전시된 보살입상번도 원래는 매우 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은 보살입상 2체만 남아있습니다." 박물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이영순 씨의 설명에 관람객들은 "영국과 달리 식민통치를 받았던 한국이 어떻게 중앙아시아 유물을 소장하게 됐을까?"라는 의문을 갖는다. 이 많은 유물들은 누가 가져다 놓았을까?

19~20세기 서구열강들은 중앙아시아의 유물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당시 런던에 체류하고 있던 일본 교토 정토진종 본원사파(本願寺派) 서본원사의 제22대 문주였던 오타니 코오즈이(大谷光瑞, 1876~1948)는 불교 전래 경로를 따라 독자적으로 서역지역을 답사하게 된다. 1902년부터 13년 동안 오타니 탐험대는 신강지방 뿐만 아니라, 티베트 · 네팔 · 인도 · 동남아 각 지와 운남 · 사천을 포함한 중국 등 아시아 전역에 걸친 3차례의 탐험을 펼쳤다.

오타니 탐험대가 수집한 수천 점의 유물 가운데 일부가 1914년 당시 경성의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기증됐고, 이후 우리나라가 독립되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이 1천 7백여 점의 서역 유물을 소장하게 됐다. 이들 유물은 흔히 '오타니 컬렉션'이라고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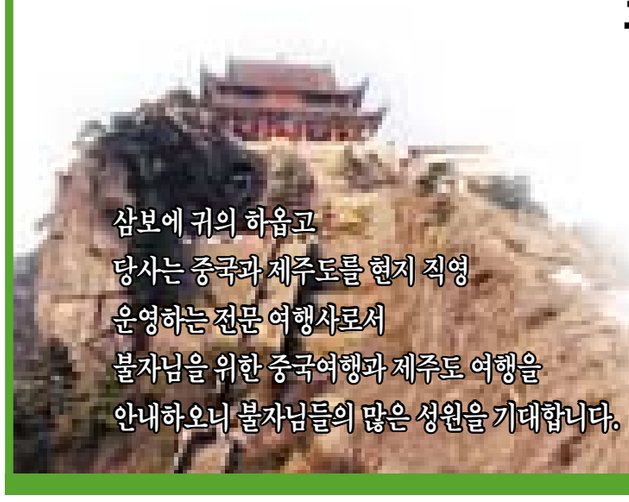
오타니 컬렉션은 벽화의 주요 부분을 위주로 수집한, 석굴사원의 벽화를 연구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로 평가된다.

서역미술을 전공한 국립중앙박물관 민병훈 학예연구관은 "서역유물에서 보이는 연주문과 대칭문, 색조문 등은 통일신라 기와, 안압지 출토 유물에도 나타나 실크로드를 통해 당시 동서교류가 이루어진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며 불교 미술의 흐름의 증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타니 탐험대에는 학자가 포함되지 않아 학술 보고서, 발견지 · 출토지에 대한 기록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는 치명적인 결점을 갖고 있다. 또 전문 탐험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뜯어낸 벽화 주위를 심하게 훼손해 같은 장소를 다시 방문했던 영국 탐험가 스타인이 개탄했다는 후문이다.

오타니 탐험대 덕분에 서역의 불교미술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고향을 떠나온 이들 유물이 왠지 제자리를 잃은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가 아닐까.

글=오유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02)720-8489

〈중국 4대 불산 성지순례〉
1. 관음보살 도량 - 보타산 / 낙가산 5일 75만원
2. 지장보살 도량 - 구화산 / 황산 5일 79만원
3. 보현보살 도량 - 아미산 / 낙산대불 5일 79만원
4. 문수보살 도량 - 북경 / 오대산 / 운강석굴 69만원
5. 관음도량 과 지장도량 순례 8일 125만원
-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 상해 -

설날 특별전세 항공편으로 떠나는
중국 역사고찰 성지순례 5일 449,000원
▷ 소림사 · 용문석굴 · 백마사
▷ 출발일 : 2004년 1월 22일(木) 오후 21:00 인천공항

〈국내 - 제주도 사찰순례〉
1. 산사체험과 역사유적 답사 3일 21만원
2. 마라도와 한라산 등반 3일 25만원
3. 마라도와 우도팔경 3일 27만원
- 제주도 일정은 제주 4대 사찰순례가 포함 되었습니다.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다.' 묘한 말이지만 조계종의 올 한 해 평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있다.

일부에서는 "종단이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어려운 속에서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에서는 "총무원장 입만 쳐다보며 1년을 보냈다"며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했다고 말한다.

앞서 언급한 '묘한 평가'도 바로 이런 양극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하지만 면밀히 따져보면 성과와 과제는 분명히 선이 그어진다.

조계종을 제외한 다른 종단들도 여러 가지 성과를 남겼지만 종단 난립에 따른 문제점과 일부 종단의 종권 분쟁으로 어수선한 한 해를 보냈다.

해넘기는 과제들 ③

각 종단의 주요종책 (下)

글 싣는 순서
① 동국대 100년 대계는 있는가
② 환경, 이대로 안된다
③ 각 종단의 주요종책

'행정체계' 잡고 '민감사안' 유보

조계종

행자 교육원·주지 임명권 여전히 '난제'
멸빈자 사면·비구니부 신설 미뤄져

●성과

올 한 해, 조계종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를 겪었다. 새 총무원장이 선출되고, 종단 사상 처음으로 비구니 스님이 총무원 집행부에 임명됐다. 종단 조직에 대한 전문적 진단이 진행되고 있고, 전통불교문화센터와 교구본사별 승려노후복지시설 건립이 추진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멸빈자를 제외한 징계자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 전통사찰보존법 등 불교관련 제도 개선 추진, 대정부 종책자문위원회 구성, 종립학교 육성책 마련,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의 세계문화 축제화 등도 가시적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이 성과의 대부분은 과거 어느 총무원장도 시도하지 않았던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불교계와 조계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다고 해도 지나친 평가는 아니다.

또 하나는 법장 스님이 총무원장에 취임하면서 과거 정치 위주에서 행정 위주로 조계종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일 하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장 스님의 이런 기조는 정치적 의미로 볼 때 종단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성과이자 풀어야 할 숙제인 셈이다.

●해 넘기는 과제

—멸빈자 사면

올 한 해 조계종의 최대 현안이었던 98년 멸빈자 사면 논란은 연내에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결국 내년 3월 열리는 임시 중앙종회에서 결론을 내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과정에서 찬성쪽과 반대쪽의 소모전이 이어졌고, 사면 방식에 있어서도 다른 시각이 존재해 혼란을 반복했다.

당초 종헌 개정을 통해 멸빈자 사면을 추진했던 법장스님은 종헌 개정이 무산되자 법규위원회의 '98멸빈자에 대한 심사 개시' 판결을 근거로 멸빈자들의 멸빈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승적 정정'이라는 행정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일부 종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다시 '종헌 개정을 통한 해결'로 방향을 선회했다.

문제는 종도들의 합의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종단 내의 시각차가 분명해 내년 3월에도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법장스님의 임기 2년째는 물론, 조계종 화합에도 적지 않은 상처를 줄 가능성이 크다.



◇조계종 중앙종회 모습. 중앙종회는 총무원 집행부와 함께 조계종 운영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지만 종단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구니부 신설 및 비구니 수행도량 지정 제도화

법장스님은 31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뒤에도 총무원에 '비구니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었다. 그리고 종단 사상 처음으로 총무원 집행부에 비구니 스님을 발탁하는 등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더 이상 진전된 것은 없다. 당초 계획은 올해 안으로 비구니부 신설과 비구니 수행도량 지정을 위한 종법령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비구니부나 수행도량은 비구니에 대한 배려가 아닌 비구니 인적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승가 구성원의 반 수 이상이 비구니이지만 종단 차원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종단에서 공식 기구를 만들어 조직체계를 세우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록 해는 넘기지만 내년에 설치될 수 있을지에 대해 종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상설행자교육원 건립 및 승가교육 재정비

상설행자교육원 건립은 오래전부터 거론돼 온 종단의 숙원사업이다. 내실있는 교육과 시대가 요구하는 승가상 구현을 위해 상설행자교육원 건립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친 후 하반기에 건립계획이 확정돼야 한다.

그러나 올 한 해 동안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전무했다. 따라서 건립계획은 최소한 1년 이상 늦춰지게 됐다. 이렇게 된 이유는 상설행자교육원 건립이 승가교육 재정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승가교육 재정비는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누누이 강조한 사안이며, 현재 교육원에서 실무검토에 들어갔다. 결국 어떤 체계로 승가교육제도가 재정비될 것인가에 따라 상설행자교육원 문제도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종단

10여 종단 종권분쟁…각종 소송 빈발
유사종교·종단 우후죽순… 큰 부작용

●종단 난립, 종권 분쟁 심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종단의 난립은 불교계의 풀리지 않는 골치 덩어리로 떠올랐다. 이 중에는 10여개 사찰과 승려로 구성된 종단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든 소속 승려가 종단 임원을 겸임하면서 큰스님 행세를 하는 등 적지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심지어는 불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불교라 할 수 없는 유사종교도 있어 불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종단 등록을 의무화한 불교재산법이 전통사찰보존법으로 대체된 이후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종단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전통사찰보존법으로는 유사종교와 군소종단 난립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교계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규제할 수 있는 근거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 종단 내부에서 발생하는 종권 분쟁도 불교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일붕선교종, 대한불교법화종, 원효종, 대승종, 삼론종 등 10여 종단이 종권 분쟁으로 총무원이 두 곳이거나 둘로 쪼개져 종단 난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법적 소송, 민·형사상 고발로 번져 삼보정재 낭비로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뜻있는 불자들은 더이상 불교 스스로의 힘을 약화시키는 종권 분쟁이 계속돼서는 안된다고 우려한다. 또한 불자들은 종권과 재산에만 관심을 둔 '명분 없는 싸움'을 그만두고 승가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화합정신의 회복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문하고 있다.

—말사주지 임명권 본사주지 이양 및 직할교구 활성화

법장 스님은 임기 초반 공약대로 말사주지 임명권을 본사주지에게 이양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지켜졌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말사주지 임명권 이양은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인사 시스템을 통해 종단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갖게 했으나 올해 시도하지는 못했다.

직할교구 활성화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수도권 사찰들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주지인사제도나 사찰재정운용 등에 있어 올바른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은 서둘러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한명우·박봉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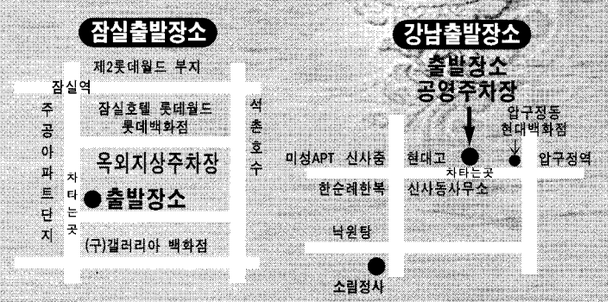
새해아침 신년기원 해오름기도 철야용맹정진 대법회(제16회)

불국정토성취 나라번영 세계평화기원

신라 천년의 역사가 서린 한국제일 동해 경주 감포 대왕암 방생장에서 장엄한 일출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여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갑신년 새해 불자님 가정에 불보살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첫 해 뜨는 시간에 불자님의 정성과 새해의 소원이 담긴 등을 달고 신년 기원 대법회를 전국에서 인연동참하신 여러스님
불자님이 대거 동참하시는 가운데 장엄하고 성대하게 봉행올리며 부처님의 공덕이 충만한 나날이 되기를 축원 합니다.
1989년부터 해마다 전국적 규모의 연례대법회로 봉행되어 금년 제16회에 이르는 뜻깊은 법회입니다.
아울러 발원불자님의 인연영가와 유주무주 고혼의 이고득락을 기원하는 천도법화도 함께 봉행합니다.
전국인연불자님께서는 수희 동참하시어 소원성취인연 지으시기 바랍니다.
南無 관세음보살 마하살

●출 발 일 시 : 2003년 12월 31일 오후 2시
●잠실출발장소 : 잠실호텔롯데월드 옥외주차장
(잠실역에서 롯데월드 방면으로 나오셔서 롯데쇼핑센타 끝나는 지점까지 곧바로 걸어 오시면 됩니다.약200m)
●강남출발장소 : 압구정 현대백화점 옆 공영주차장
●해오름기도일시 : 2004년 1월 1일 새해 아침 해뜨는 시간
●장 소 : 동해바다 경주 감포 대왕암 신년대법회장(한국제일 방생도량)
● 신년기도 동참금 : 5만 원(1인) (불자님의 신심증장을 위하여 참배비용의 상당부분을 본사에서 감당합니다.)
● 접 수 마 감 : 2003년 12월 28일 오후 6시까지 오셔서 담당자에게 접수하시고 동참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 울 도 착 : 1월 1일 오후 6시 예정
※ 공양준비 : 12월 31일 저녁공양과 2004년 1월 1일 아침·점심공양은 본사에서 마련합니다.
※ 준비물 :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 세면도구, 손전등
※ 불자님 가족의 건강과 성취를 기원하는 '옴'자를 새긴 순은제 관음상 호신목걸이와 불교경전, 법문테이프 등을 보시하여 드립니다.
● 해오름 기도후 인근의 신라시대 명찰 참배 예정입니다.
● 해오름기도는 학업정진중인 자녀와 온가족이 함께 동참하시는 예가 많습니다.



서울 소림정사 불교아카데미 총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 FAX:511-6216
TEL:3446-2158,2185/3443-9871~7/511-6210~5

일터불심 금년활동 '흑자'

직장불자회, 한해 살림살이 들여다 보니…

'살도 찌고 키도 컸다.' 2003년 직장불교는 안살림과 바깥살림 모두 '흑자' 수지를 맞췄다. '문화' 개념의 법회가 늘었고, 인터넷 클릭으로 일터불심이 달궈졌다. 단체 특성을 백분 살린 신행활동도 눈에 띈다. 톡톡 튀는 포교아이템 개발에 지혜가 모아졌고, 잘나가는 불자회의 벤치마킹이 유행처럼 번졌다. 그렇다면, 올 한 해 동안 직장·직능불자회가 얼마큼 늘었고 신행패턴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풀어야 할 과제는 없는지 살펴 봤다.

▼불자회 창립, '줄줄이' = 전국의 직장불자회 결성을 주도한 곳은 출범 3년차 동갑내기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와 대한민국경찰불교회(이하 경불회). 이들 연합회는 그간 개별적으로 신행활동을 해온 공무원 불자 모임을 한 데 묶어냈다. 공불련은 12월 20일 창립한 광주광역시청을 마지막으로 제주도청을 뺀 전국 도·광역시청에 불자회 결성을 끝냈다. 또 경불회는 11월 19일 경북 구미시에 100호 불자회를 출범시켰다. 공불련은 올해 동안 울산, 금천구·구로구, 안양, 청주, 강원도청 등 10여 곳에 '공불련 깃발'을 세웠고, 경불회는 인천공항, 인천서부, 양평, 부여, 영천, 달서, 논산, 평창 등 15여 곳에 경찰불교 바람을 일으켰다.

전문직 직능불자회도 결성됐다. 올 4월 감정평가사 불자회가 첫 닻을 올렸고, 11월에 불교계 처음으로 민항기 조종사 불자회 창립준비위원회가 꾸려졌다. 이밖에 운전기사불자연합회는 홍성, 영주, 마산, 창원, 진해 등에서 시동을 걸었고, 전국교사불자연합회는 군산, 창원지역에 불자회를 창립시켰다.

▼신행패턴, 어떻게 변했나?= 변화의 양상은 다양했다. 기존 '경전읽기' 위주의 직장불자회 신행은 한결 강화되고, 자원봉사 활동은 정례화 됐다. 건교부, 철도청 구로승무소, 한국은행 등은 <반야심경>, <아함경>, <42장경>, <초발심자경문> 등 대·소승 경전을 망라해 불교공부의 깊이를 더했고, 주5일 근무제가 처음 시행된 금융단불자연합회는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했다. 특히 공불련은 올 11월 2일을 '공불련 사회봉사의 날'로 제정, 그간 산발적으로 진행돼온 전국 250여 단위 기관불자회의 봉사활동을 한 기간에 집중, 대사회적 역량을 극대화했다.

'문화' 개념의 법회도 늘었다. 대전 대덕연구단지 불자연합회와 경북 청도군청 불자회는 대덕 태전사, 청도 대흥사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또 직장불자의 눈길을 끄는 '이벤트'성 법회가 증가했다. 경찰청 불교회는 찬불가, 정근, 레크리에이션 등의 신행프로그램을 꾸준히 열어 불교공부에 재미를 더했다.

또 회사에 앉아 불교공부를 하는 직장불자가 늘었다. 자체적으로 개설한 홈페이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직장불자들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불교계 소식과 동영상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불심을 달궜다.

이와 함께 일터신행 코드가 부분적인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가족·소모임' 단위의 신행활동으로 바뀌었다. 이는 정기법회 봉행 주기를 주 단위로 단축시키는 것은 물론, 성지순례지의 선택 폭도 넓히는 효과를 낳았다.

▼일터불심, '信바람' 이렇게 일으켰다= 그 바람의 진원지는 직장불자회의 톡톡 튀는 포교아이템 개발에 있다. 틀에 박힌 형식을 깨는 법회를 선보이는가 하면 마케팅 기법을 응용해 직장인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한국전력본사 반야회는 올 4월, 사내 전산망 홈페이지에 가입한 네티즌 600여명 잡기에 묘책을 마련했다. 네티즌 중 30%이상이 잠재적인 불자인 점을 감안해 가입 축하 메일 보내기, 600명 돌파 기념 선물 제공 등 포교 마케팅 기법을 선보였다. 선재마을의료회는 올 초 사이버 상에 '특별한 의사'를 투입해 OFF-LINE에서 가입한 신입회원들의 애로점에 대해 즉각적인 답 글을 올려주고, 또 다른 자원봉사 활동처도 소개해 줬다.

잘나가는 불자회의 성공사례를 닮는 벤치마킹 바람도 불었다. 대개 2년 미만의 직장불자회들이 단기간에 조직을 완비하기 위해 포교아이템·운영노하우를 배웠다. 지난 2001년 창립한 전북 장수군청 불자회는 세무사불자회, 운전기사불자연합회 등 20여 곳의 직장불자회들이 커뮤티니, 홈페이지를 제작해 사이버 공간에 포교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에 착안해 올 5월부터 사이버 공간에 '장수공무원불교모임(cafe.daum.net/jangbul)'을 개설했다.

▼풀어야 할 과제는 없나?= 가장 큰 문제점은 직장불자회의 '노령화' 현상이다. 이는 40~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직장불자회가 그간 조직 활성화의 핵심동력을 젊은 직장불자들에게 찾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또 재정 자립, 지도법사의 부재 등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다.

직장·직능불자회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젊은층 눈높이에 맞는 신행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젊은층의 문화 코드에 맞는 '파티' 개념의 법회 마련 △취미·여가 활동 등의 소모임 결성 △사이버 법당 개원 등의 입체적인 신행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 동일지역 연합법회, 직종간 합동법회, 지역사암연합회와 연계한 사찰순례법회 등의 기존 직장불자회 활동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포교의 거점인 전국의 불교회관을 직장불자회의 신행터전으로 활용하고, 지역별 직장불자회간 네트워크 구축, 범종단 차원의 지도법사단 구성 등이 요구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불자회 창립 줄줄이

공불련 10곳 경불회 15곳 새로 출범
감정평가사·조종사 불자회 결실

■ 신행패턴 다양화

경전읽기 더욱 강화·봉사 정례화
산사음악회 등 이벤트법회 늘어



그림/김영민

■ '信바람' 이렇게…

마케팅기법 관심 끌어들여
"잘 나가는 불자회 닮자" 벤치마킹

■ 풀어야 할 과제들

회원들 노령화·지도법사의 부재
지역별 불자회간 네트워크 필요

우리불자회는요

INI스틸 포항불자회

밝고 향기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 오늘을 사는 불자들의 서원입니다.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이타행을 실천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람 끝에 우리들은 뭉쳤습니다. 지난 1997년 4월 포항상공회의소 강당에서 죽림사 주지 향공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창립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먼저 우리 회사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철강산업 50년 역사를 가진 인천제철과 강원산업이 합병하면서 현재 INI STEEL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회 식구는 80여 명으로, 노동조합지회장과 인력운영팀, 현장직원,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들의 불교공부 열정은 대단합니다. 불자회 임원 모두가 포항불교대학을 졸업하는 등 불교기초교리에 밝고, 초대회장은 역임한 강현규 회원은 경북 포교사단 부단장을 맡아 왕성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명희 현 회장은 2000년도에 국가산업훈장을 수상해 회사업무와 불자회 활동에 모범을 보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회는 그간 많은 신행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포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과 5년 전에 자매결연을 맺고 결식노약자 돕기 무료급식, 매월 정기적인 성금을 전달하고, 지체 장애자 마을 치자원, 경북 예천 연꽃마을, 노인복지시설 청하 정애원 등을 방문해 사랑의 쌀을 나눠드렸습니다.

정기법회도 빠짐없이 봉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차례 포항시내 대성사에서 가족법회를 열고 있으며, 가을이면 전국의 유명 사찰을 찾아 성지순례를 떠나고 있습니다. 또 철야정진 기도법회, 불교신행연구원이 발행하는 <법공양>을 회사 동료들에게 법보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불자회의 힘은 연말 모금 운동에서 확인됩니다. '연말 불우 이웃돕기 사랑의 열매 모금'과 '작은 정성 큰 보람'을 구호로 한 셀프 구두 닦기 모금 활동 등은 우리 불자회의 자랑거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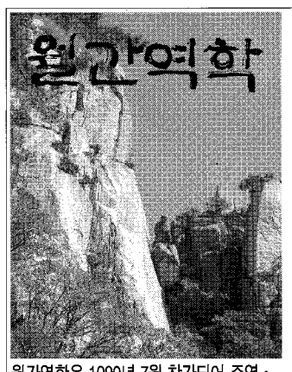
◇INI 스틸 포항불자회원들이 올 봄에 경북 예천 장애인 복지시설인 '연꽃마을'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밝은 직장·향기로운 사회'가 신행목표

법요집 발행·합장인사운동 등 펼 계획

내년부터 우리 불자회는 (구)강원산업 법요집을 'INI STEEL 법요집'으로 개정·발행할 계획입니다. 회원 누구나 불교 법요의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경전의 이해도를 높여 회원들의 법회 참석률을 높여나가려고 합니다. 또 '밝은 직장, 향기로운 사회'란 우리 불자회 기본 신행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합장 인사하기' 운동을 벌여나갈 생각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대자대비 하신 부처님의 정법을 받들어 회원 모두가 열심히 활동할 것을 다짐합니다.

■허남욱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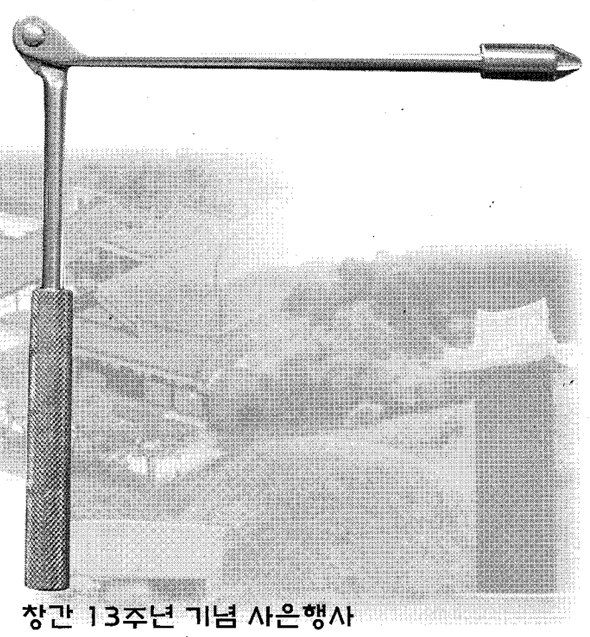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되어 주역·풍수지리·사주명리·관상학과 유·불·선의 심오한 사상을 알기 쉽게 실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배포하는 국내 유일의 동양학 전문지로 99년 11월 1일 문화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훌륭한 잡지입니다.

월간역학에서는 역학전문학원인 월간역학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학원을 졸업한 분에게는 수료증과 자격증을 수여하며 개업시 월간역학을 통해 적극 홍보해 드립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의(www.kbs.cc)를 듣는 분에게도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확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7만원)

강의실 수강생 모집
사주(초·중·실전), 관상(마의상법)
풍수(금낭경), 수상, 육효
12월 5일(금) 개강
과목당 월10만원(3개월단위접수)
월간역학교육원

명당탐지기 관룡자

사람마다 학설이 다르니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풍수지리…
이젠 관룡자로 당신이
직접 명당을 찾으세요.



창간 13주년 기념 사은행사
월간역학

관룡자란?
심룡척이라고도 불리우며, 이미 수천년전부터 중국의 황실에서 궁궐터를 잡거나 황제의 묘터를 잡을 때, 기존의 터를 감정할 때 사용되던 기구로, 1990년 7월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진산실업(주)에서만 생산 공급합니다. 조계사, 해인사, 수덕사, 상원사, 월정사 등 오랜동안 번성해오는 사찰과 서울 명동성당,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천도교당 등 번성하는 종교단체의 건물, 세종대왕 릉, 남연군 묘, 이미 명당으로 알려진 여러 문중의 묘, 일본 동경의 황거(皇居)와 오사카 성, 북경의 자금성을 비롯한 황제들의 릉, 대만의 중정기념당(장개석 동상) 등 이미 명당으로 알려진 세계적인 유적과 시설물에서는 틀림없이 관룡자가 작동됩니다. 또한 아직 찾아내지 못한 명당자리도 국내에는 많습니다. 충남 예산에서 교육장을 역임하신 김모선생께서 관룡자가 작동되는 지점에 은행나무 묘목을 이식하였는데, 수령 2년생인 나무 모두에서 호두알 굵기의 은행 열매가 50-70여개씩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김선생께서는 이것을 보고 명당의 지기를 실감했다고 말씀합니다.

저희는 관룡자가 불티나게 팔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관룡자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분들 가운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친구나 친지에게도 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이 기구를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충청도의 남모교수는, 자신은 관룡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에게 "기구로 명당을 찾을 수 있다면 왜 나한테 배우러와?"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나 가장 아끼는 제자는 자신이 직접 데리고 와서 관룡자를 구입케 했습니다. 경상도의 김모교수, 서모회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관룡자를 은밀히 사용해 오지만, 어쩌다가 주위 사람들 눈에 띠면 "이것은 수십년전에 중국의 한 도사가 전해 준 것으로 국내에 있는 건 모두 가짜다"라고 합니다. 전라도 김모선생의 경우 "함께 풍수공부하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관룡자를 구입하겠다고 했더니 '그건 모두 가짜라고 하니 제발 사지말라' 고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말렸던 사람들은 모두 이미 오래전부터 은밀하게 관룡자를 사용해오는 분들임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그 분들의 심성이 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훌륭한 것은 자신만 소유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터(명당)에 대한 욕심에는 형제도 없다'는 속설이 증명되는 것이지요.

누가 어떻게 사용하나?
주택이나 아파트, 빌딩, 사찰, 교회 등 건물 신축이나 기존 건물의 터를 감정할 때, 산소나 납골당, 공원묘지의 터를 잡거나 기존의 자리를 감정할 때 관룡자를 사용하면, 명당에서만 발산되는 특별한 지기(地氣)에 반응하여 지기가 흐르는 명당혈(穴)의 방향을 가리키므로 터를 잡는 것은 물론, 건물이나 산소의 좌향(방향) 까지 잡을 수 있으므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미 국내의 교수, 사업가, 전문 경영인, 법률가, 풍수지리사 등 500여명이 활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원래 관룡자는 88만원 입니다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는 특별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관룡자(88만원)+월간역학 1년분 (105,600)=985,600원을 80만원으로 할인해드립니다.
▣ 구입방법 : 수협 227-01-002756 예금주: 진산실업(주)로 80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자세한 사용설명서와 함께 즉시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리며, 앞으로 1년간 월간역학을 우송해드립니다(관룡자 휴대용 주머니(1만원상당))무료증정.
• 신용카드 소지하신 분 12개월 분할가능. 기업체에서 구입시 세금 계산서 발행. 구입 후 반품을 원하시면 1개월 이내 언제든지 즉시 환불해드립니다.
• 월간역학 1년분 구독료는 105,600원 이지만 지금 신청하시면 9만원으로 할인+ 수맥탐지봉 1세트 무료 증정
• 수제품 황금 18k 헤드 관룡자 주문제작·육효용 수제품 서죽과 산목셋트 판매

(02)2264-0258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호 청옥빌라트 101호

www. kbs. cc

한국종교박물관

역할과 과제 심포지엄

종교간 교류 유도하는 현장

성보박물관 예산부족·시설 관리 미비 문제점

기독박물관 전문인력난·자료 유물 보충 시급



◇'한국종교박물관 현황과 과제'에서 발표중인 심원 스님과 토론을 맡은 정우택(동국대) 교수.

종교를 테마로 한 박물관 대다수가 예산·전문인력·시설의 전문성 부분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 강당에서는 한국박물관협회가 주최한 제1회 학술심포지엄 '한국종교박물관의 현황과 과제'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종교 박물관의 현황을 살펴보며, 박물관을 통한 종교 교류의 방안을 모색하는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윤이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불교, 가톨릭, 원불교의 여성 성직자로 이뤄진 삼소회(三笑會)의 예를 들며 박물관도 종교간 교류를 유도하는 현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종교인이 서로 대등하고 개방된 태도로 교리의 차이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된 '삼소회'처럼 종교박물관도 한국인 누구나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 성보박물관과 기독교 박물관의 현황 발표에서는 예산·전문인력·시설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불교 성보박물관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 심원 스님(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은 성보박물관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박물관 설립의 불명확한 목적의식, 운영예산 부족, 설비시설·관리기능 미비를 지적했다. 또 '기독교 박물관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 김흥수(목원대) 교수도 전문인력·새로운 자료·유물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심포지엄에서는 성보박물관 건축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종교박물관의 건축과 과제'를 발표한 조인숙 건축사(동국대 건축학과 겸임교수)는 박물관은 건축기술만큼이나 종교적 신앙심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불교 건축을 연구 대가들은 대부분 기독교계 장로이거나 신앙이 돈독한 이들이 많아 성보박물관 역시 기독교인이 설계한 예가 많다"고 언급한 조 건축사는 "일부에서는 이런 모습에서 역시 불교계가 대자대비하다고 말한다"고 꼬집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花嚴經論' 역사·사상적 의미 고찰

27일 영인본 간행기념 동국대서 학술발표회

<화엄경>의 가장 오래된 주석서인 북위(北魏) 영변(靈辯, 477~522) 스님의 <화엄경론(花嚴經論, 중국 요나라 때에는 화엄경에 花를 사용)> 영인본이 12월 27일 발간된다. 또 책의 발간을 기념한 보조사상연구원의 제53차 학술발표회 '영변 <화엄경론> 연구'가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영변 스님의 <화엄경론>은 법장(法藏 647~714 중국) 스님이 <화엄경전기(華嚴經傳記)>와 <탐현기(探玄記)에서, 징관(澄觀 738~839 중국) 스님이 <화엄경소(華嚴經疏)>에서 참고할 정도로 <화엄경>을 면밀히 분석한 책으로, 초기 화엄학 연구와 이후 동아시아 불교사상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출간되는 <화엄경론> 영인본은 2001년 서울대 규장각에서 발견된 권51~56으로 <화엄경> 가운데 십지품(十地品)의 제2지에서 제4지의 내용에 대한 주석 부분이다. 윤선태(한신대 학술원) 교수가 <신라 촌락문서>의 전래과정을 알아보던 과정에서 발견한 이 <화엄경론>은 송광사 소장본을 일제 시대에 누군가가 필사한 것. 이 6권이 발견되기 전에는 모두 100권의 <화엄경론> 가운데 6권(권3, 10, 14, 16, 17, 18) 만이 일본에서 확인됐었다.

화엄학 연구·東亞불교사상 변천 파악 도움

이 책의 원본이 되는 송광사 소장본은 고려시대 의천 스님이 편찬한 <화엄경론 속장본(續藏本)>의 중수본(重修本)을 조선 초기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것이다. 송광사 소장본은 일본 학자 사또 타이준(佐藤泰舜)의 1950년 대 논문을 통해 내용의 일부가 알려졌으나, 원본이 소실돼 전체 내용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간되는 책은 권51~56 전체의 영인본을 본문으로 일본에 있는 <화엄경론> 일부와, 27일 발표되는 논문 2편이 부록으로 실려, 현존하는 <화엄경론>을 이해하는 자료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열리는 학술발표회는 영변 스님의 <화엄경론>이 갖는 역사적·사상적 의의를 고찰하는 자리. 최연식(금강대 국제불교문화연구소) 교수의 '영변 찬(撰) <화엄경론>의 전래와 사상적 특징'과 윤선태 교수의 '규장각 소장 영변 찬(撰) <화엄경론>에 대하여'가 발표된다.

이날 발표를 맡은 최연식 교수는 "영변 스님의 <화엄경론>은 법장 스님이 인용했던 당대 최고의 <화엄경> 해설서이지만, 지금은 중국에도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며 "귀중한 자료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책이 발간되는데 몇 년의 공백이 있을 만큼 불교계의 관심이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오유진 기자



◇보물 제1204호 '의겸등필 수월관음도'. 부드러우면서도 치밀한 선과 밝고 선명한 색채에서 조선시대의 미감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한국불교미술관 새단장

전시실 확장… '중생의 염원' 특별전

한국불교미술박물관(관장 권대성)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개관 10주년을 맞아 기존 전시실을 3실로 확장하고, 이를 기념한 '중생의 염원' 특별전을 12월 15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조선시대 가장 오래된 불화인 '심적암 아미타극락 구품회도', '의겸등필 수월관음도' 등 조선불화 15점과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목조지장삼존불감'을 비롯한 불상·공예·석조물 등 50여점의 유물을 선보인다.

특히 보물 제1204호 '의겸등필 수월관음도'는 1730년 의겸 스님이 그린 불화.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는 많이 그려졌으나 조선시대에는 찾아보기 힘들어, 회화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는 작품이다. 오유진 기자

정병모 교수가 쓰는 불교 미술의 美

연재를 마치며…

인간적 불교미술을 찾아서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구성, 비례, 색채 등 피상적인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리와 역사와 인간의 삼각구도 속에서 조명된 총체적인 조형세계여야 한다. 불교미술은 불경에 근거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역사적인 사실로서 그 위상을 해석하며, 그 속에서 인간적인 면모를 파헤쳐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산 구기리 마애석가 여래좌상.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얼굴에 단정한 미소가 흐르는 고려초기 대표적인 불상이다.

불교미술은 교리·역사·개인 삶의 산물

사찰·불상·탑의 인간적 면모 부각 노력

그러나 지금까지 불교미술의 연구는 교리와 역사적 해석에 치우쳐 왔고, 인간적인 측면은 거의 도외시되어 왔다. 종교미술이라 하여 지나치게 거창한 면만을 주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 역시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가 이 칼럼을 연재하면서 늘 부각시키고 싶었던 부분이 불교미술의 인간적인 측면이었다. 예를 들어 황룡사 9층목탑을 설명하면서 아비지가 조국인 백제와 신라의 관계 속에서 고뇌하는 흔적을 살피고, 7세기 불상에서 여러 가지 인간상을 드러내며, 화엄사의 역사를 보면서 불교적인 교리보다는 효와 충으로 해석한 것들이 그러한 고민의 흔적이다.

불교미술은 왜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은 분명히 경전에 근거하고 있지만, 어느 불상도 똑같은 것이 없고 어느 불화도 일치되는 것이 없다. 그것은 교리와 더불어 역사와 개인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교리는 불상이나 불화에서 똑같이 표현되는 도상에 대한 설명에 유용하다. 역사는 그 시대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식에 대한 해석에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다양하게 펼쳐지는 양상은 결국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설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엄한 교리와 도도한 역사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그 속에 담긴 인간적인 면모를 파헤쳐 보는 것이 이 칼럼의 목적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불교미술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심성을 그대로 닮았다. 어렸을 적에 절에 가면 편안한 마음은 아니었다. 우선 여러 상들이 무서웠고 단청조차 부담스러웠다.

그런데 1985년 호암 미술관에서 중국, 티베트의 불교미술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불교미술을 함께 비교하는 전시회인 만다라대전을 간적이 있다. 여기서 필자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무섭게만 생각되어 왔던 불상이 중국이나 티베트의 불상과 비교하여 보니 그렇게 푸근하고 따뜻하게 보일 수 없었다. 중국이나 일본인에 비하여 부드럽고 인간적인 우리의 심성이 불상에도 그대로 녹아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점차 확신으로 변해갔다. 예전에 정치학자이며 한국회화사를 연구한 이동주 선생이 우리나라 회화는 중국이나 일본 회화에 비하여 '싱겁다'라는 표현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과 취향을 떠올려 보면, 우리나라 불교미술의 특징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필자가 우리나라 '불교미술의 美'를 연재하면서 늘 인간의 삶에 시선이 머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우·리·절·은·불·자·여·러·분·을·사·랑·합·니·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우리절 정기기도·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곤지암 우리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Ⅲ-1030] 기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 입재 : 2003년 11월 2일 ◎ 회향 : 2006년 8월 27일

원단법회
◎ 일시 : 2004년 1월 4일(일) 오전 10시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총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49재, 천도재, 생전 예수재, 바리춤, 나비춤 등 각종 행사에 임시로 스님 필요하신 곳은 연락주십시오
011-9209-5691
051-265-5692
범음범패, 제의식, 염불, 바라춤, 나비춤 배우실 스님 연락주십시오

※구 인※
사무장 1명
전통 사찰
011-613-0122

천도재, 점안식, 예수재
각종 행사에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387-0361
016-428-666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기 하남시
031-791-7732

전통의식, 각종행사, 천도재, 점안식, 기타불공 스님 필요하신 곳
016-9340-1725
055-521-3673
법음범패, 제의식, 염불
배우실 학인스님모집
※ 행자모집 0名
효자사 혜성 합장

수행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20~40세)
▷ 도심속의 포교원(부산)
018-801-2584

천일기도하면 가족처럼 지내실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032-873-1059
016-443-9933

토굴에 있는 스님입니다 토굴불사를 위해 승용차가 필요합니다. 포크레인도 필요합니다. 불자님의 후원을 바랍니다(중고)
밀양 합장
011-804-6986
016-525-5830

참선하고 싶으신 분
참선에대해 궁금하신 분
불경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께서는 선각사에서 만나보십시오
선 각 사
054-931-1552
011-829-5040

비구 부전 스님을 모십니다
▷ 30대 후~40대 초
053-961-0224
019-514-2412

법랍 10년된 비구승입니다 부전스님 소임 원합니다
032-511-4974

주임겸직교사모심
개인사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임.
취침이 가능한 미혼녀로써 경력을 갖추신 참신한 교사를 원함
최고 우대함.
경기도 양평지역임
031-774-3497

스님이 없는 가난한 암자나 포교원 주지를 원합니다
무보시 무료로 운영해 드립니다 (주역을 통달)
55세 비구 일봉
011-421-0936

60대초반 나이로 술과 담배를 절대로 하지 않는 독신남자로 사찰에서 차량운전과 사찰에서 처사로 할수있는 일을 저렴한 보시로 일할곳을 찾습니다
운전자격은 1종 대형면허이며 지방사찰도 좋습니다
031-826-1152
011-9753-4152

부전스님 모십니다
▷ 분당 불국사
031-719-0408

신비한 기 치유법
1. 만성적인 두통
2. 관절염, 요통
3. 병명이 없는 육체의 병
4. 정신질환, 영적인 병
대 암 사
063-537-2448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함
www.kbs.cc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배우자 구함 - 정 덕 용(48세)
대전에서 인테리어(건재)사업을 하고 있으며, 동학사 학림사를 다니며 불자로서 신심을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연있는 보살님을 만나길 기원하며 학벌 상관 없고, 심성 맑으신 분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에 효도하며 부부의 연을 맺어 평생 함께 하실 분이면 좋습니다.
전화로 자세한 내용 말씀하시고 인연이 되면 만나 뵙고자 합니다.
017-401-2023 정덕용 합장

조상천도, 구병시식
지장기도, 참회도량
부설 : 스포츠 마사지
목,어깨,허리,디스크,신경통,
전문 교정기 사용(특허품)
천도 및 교정후 변화없을시 환불
스포츠마사지사 원장 김관우 합장
02-998-0940.011-663-2754

변비는 만병의 원인
변비 · 숙변
(다이어트)
▷변화없을시 환불 보장
2달분 90,000원, 1달분 50,000원
구입문의 080-558-6633
대 리 점 모 집

천도재 구병시식
수자령 영가천도
● 수시 접수 中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탈 종 공 고
· 승려번호 : 10005 · 법명 : 영인 스님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1683-5
위 승려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귀 종단의 종지종풍을 더이상 선양할수 없게 되어 탈종합니다
불기 2547년 12월 12일
대한불교 대성종 총무원장 예하

불교대학 가맹점설치 및 자격취득 안내
어린이 포교원, 불교 문화원, 불음국악 연구회(포교단)설치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상학 인가된 가맹점 캠퍼스 설치
▶봉직자 과정 – 원사, 원주, 교무, 종무 자격
▶포교사과정 – 상담포교사, 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 불음법회포교사, 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 국악포교사, 장묘관리사
▶법사과정 – 상담법사, 신앙상담사, 상담지도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 염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 국악법사
011)412-8040

사주 개인 지도
특수비법 : 쉽고 정확하게 3시간 완성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지도 : 대주 스님
☎ 02)962-0867. 011-741-0867

易學 지도
신비한 구성학, 사주없이 래방객의 처해진 상황과 목적, 점사등을 바로 알수 있는 신비한 구성비법을 개인지도 합니다
☎ 019)446-4755

성 수 철 학 원 (학인모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 수강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단체는 출장 강의 가능)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임
▶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 (2층)
053)255-4784, 256-4784.
018-531-2237

수인작법 (수강생 모집)
자연의 운행속에 감춰진 생노병사의 열쇠인
자연수리로 수치의 비밀을 밝히어 각자에 대한 운명과 타인 내지 자녀들의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운을 바로 보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혜안의 비밀을 푼다
수치로 사주 보는버 내지 모든 생활사에 수치 응용 비결법 전수
내손을 가지고 조화를 이용하여 구궁 팔문 태음 태양 사시 12달의 수를 놓아 화생할수 있는 수인작법 터득과 손으로 뽑는 각종 수인사주 운수법 총망라 단시일 내 터득
(수인작법 육임 단시점 12신살 당사주 기문둔갑 그외 등등..)
불운의 각종 예방법 내지 다방면으로 부딪히는 인생사 풀어내는 비방법 방편법 전수
031) 633-1517. 016-231-5451

운세(20초내) 바로 맞추면 보세요
02-826-5067(명리학 전문)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감정실습반(보고 듣고 질문으로 시작)
교재 사주첩경(이석영 저) 실력테스트 해보세요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생활불자정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우리집도 100%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다
부부문제(금전 · 애정 · 갈등)
자녀문제(학습태도,친구관계,직장문제,부모+형제에 대한 존경과 애정)
정기강의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수시친견 : 월~일요일 오전 11시 이후
장 소 : 성북구 돈암1동 83-2 (해인사 내)
문의전화 : 02)925-3747

달마선원 불교교양대학
1기생 수강생 모집(3개월 과정)
기초 교리 및 의식
★ 강의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수강료 : 무료
★ 장소 : 상계역(4호선) 중앙시장내 농협 앞
02)952-8131

『현대불교』 신문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합시다. "복도 짓고 포교도 하고... 지금 동참해 주십시오"

■ 구독신청 및 법보시 동참안내
· 구독신청 ☎ 02)737-0090(直) 02)737-8881(代) · 구독료 : 월 5,000원
· 법보시 동참 : 매월 1천원이상 원하시는 금액으로 동참

전세계 1억명이 수련하는 법륜공법
氣功 치료비법
하루 30분이면 온몸이 상쾌해 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내몸은 내스스로 고치는 기공법!!
신경통, 만성두통, 오십견, 요통, 불면증, 피로회복
불가에서 내려온 비법공개!!
1. 불전전수법 - 우주에너지를 다량흡수 막힌곳을 열어준다 공법의 핵심은 소통시키고 막힌곳은 열어 백맥이 열리게 한다.
2. 법륜장법 - 전신이 관통되어 에너지가 충전되는 정장법 4개의 포륜동작으로 이루어졌다.
3. 관통양극법 - 우주에너지, 체내에너지를 혼합 관통하는 방법 짧은시간내 신체를 정화시키는 공법
4. 법륜주천법 - 인체의 에너지를 대면적으로 유통시켜 인체를 순환시킨다.
5. 신통가지법 - 신통과 공력을 가지는 여러가지를 함께 수련하는 공법 최고의 정공수련법
佛家비법중 최고의 비법! 비디오로 직접보십시요
중국정부는 1994년 수련을 중단시켰으나 계속 수련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 가격 : 10,000원(Tape 1set)
● 국민은행 : 454102-01-324517 예금주 : 김보경(입금 후 전화를 주십시요)

문의 상담 02)455-6944

제16차 2004년 겨울 어린이 · 청소년 단기출가 수련학교 수련생 모집 안내
수련은 몸을 연마하고 마음을 닦아서 '맑은 마음'으로 '좋은 벗'을 생각하고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일상적인 사회 생활 속에서 육바라밀행을 만들어 가는 실천적 프로그램입니다.
① 언 제 : 2004년 1월 2일(金) ~ 2004년 1월 6일(火)
② 어디서 : 속리산 대성암 까치마을 수련원(오후 2시까지 수련원 도착)
③ 인 원 : 30명 ④ 대 상 : 어린이 · 청소년
⑤ 참가비 : 80,000원(교통비별도)
⑥ 내 용 : 명상수련, 심성개발, 예절교육, 즐거운 전통체험놀이, 별빛산행, 속리산 수정봉 등반, 모닥불놀이 등.
⑦ 준비물 : 쌀1되, 필기구, 세면도구(비누, 치약, 칫솔), 수건3장, 운동화, 슬리퍼, 갈아입을 여분의 옷(속옷포함 상 · 하), 양말 4켤레, 손전등, 개인구급약 등. (모든 물건에 이름을 꼭 써 주세요.)
⑧ 마 감 : 2003년 12월 25일 오후 5시까지(입금을 하셔야 신청이 됩니다.)
⑨ 접수처 : 대성암(수련원) ☎(043)542-5882~3 지장사 ☎(02)856-1558(代)
▶홈페이지 : www.jijangsa.com 단기출가 수련학교 신청서에 신청
2004년 겨울 어린이 청소년 한문서당 모집요강
어린이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미풍양속 생활예절, 정신수양으로 협동심 고취을 위해 한문, 참선, 서예, 다도교육을 실시하며 스님들이 직접 모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교육기간 : 일시 - 2004월 1월 7일(水) ~ 1월 15일(水) 8박 9일
◎ 대 상 : 초등학생 2학년 ~ 청소년/30명 ◎ 참 가 비 : 16만원(교재비포함)
◎ 교육내용 : 한문(명심보감. 수심보경), 서예, 생활예절, 발우공양, 참선, 다도. 전통문화체험(죽염 만들기, 천연염색물들이기, 도자기만들기, 연만들기, 성불도놀이, 법주사 성지순례, 속리산 문장대 산행, 자연탐사 등).
◎ 교육담당 : 수련원장스님, 지도법사스님, 선생님
◎ 접수기간 : 12월 1일 ~ 2004년 1월 2일
◎ 접수마감 : 2004년 1월 2일(소정의 심사를 합니다)
◎ 합격자 발표 : 2004년 1월 2일(홈페이지 게시 및 이메일로 개별통지)
◎ 접수문의 : (043)542-5882~3
◎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서약서, 참가학생의 글, 부모의 자녀소개서)를 홈페이지(단기출가수련학교)에서 작성 후 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
▶주소 : 우편 376-863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133번지. 수련원 한문서당
▶홈페이지 : www.jijangsa.com 단기출가 수련학교 신청서에 신청
▶메일 : jijangsa@jijangsa.com
■ 주관 :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사 속리산 대성암
■ 주최 : 불교사회복지 까치마을 수련원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光彩'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반야심경 8폭 병풍 후면 달마그림 특별 할인 보급

100% 경면주서로 쓴 반야심경
달 마 도
2000년 대풍명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 품 명 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불자·용자)
홍대미술대학원 졸업 서울미술문화상 수상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 (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특별보시!
전통반야심경 · 전통사경 전수 무료 직접지도(매주 금요일)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766-0058
www.ungangsa.co.kr E-mail:unjang21@kornet21.net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백운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험기도도량
● 주문신청방법 우체국 201509-01-002545 운장사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영험기도도량 백운산 운장사
韓國佛教藝術文化院

효사육임 도서 안내
■ 활용서 ■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전 12권, 부록,활용법 설명비디오 포함) 2,500,000
● 육임래정비법 350,000
● 육임래정비법 휴대용 310,000
● 각일각시운명예언비법(태아 · 길일 · 길시 선정법) 74,000
● 육임신수비결(설명비디오 포함) 300,000
● 육임指斗생활비법 10,000
● 길흉상담지침록 20,000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日語版 ￥272,000 (전 12권, 부록,활용법 설명비디오 포함)
■ 학습서 ■
● 효사 육임강의록 上(학습용) · 下(활용서)권 410,000
● 육임강의 비디오 · CD 900,000
● 육임형이상법 150,000
● 육임운명판단법 130,000
효사 전국육임 直講 안내
● 서울 매주 금요일 「효사숙」 02-993-8680
● 서울 강남 매주 토요일 「강남숙」 02-525-3039 (비구니스님 전문학당 청룡사)
● 전주 매주 일요일 「전주숙」 063-284-7714
● 광주 매주 월요일 「광주숙」 062-224-8680
● 진주 매주 화요일 「진주숙」 055-755-1644
● 부산 매주 수요일 「부산숙」 051-756-0141
● 대구 매주 목요일 「대구숙」 053-624-8680
● 오행기초 · 기본을 모르는 분들은 위 각 본 강의 2시간 전에 나오셔서 사전 교습을 받게 됩니다.
※ 수강료는 일백오십만원이고 교재 효사육임강의록 上 · 下권을 드립니다.
●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는 육임학당「효사숙」에서「본회회원실기지도 강의」와 육임서 설명회가 본 강의전에 있습니다.
www.taotemple.net
문의 02-993-8680 / 02-998-8683
입금계좌 도서주문 : 우리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강의신청 : 우리 813-102730-01-001 한국육임학회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법당 : 20평 ●요사 : 140평 ●부지 : 900평 ●가액 : 10억
- ●위치 : 경기 ●법당 : 10평 ●요사 : 50평 ●부지 : 1200평 ●가액 : 4억5천
- ●위치 : 전북 ●법당 : 13평 ●요사 : 20평 ●부지 : 600평 ●가액 : 4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포교원 안내

- 위치 : 도봉구 쌍문2동사무소 옆
- 2층 건물중 2층 20평
- 법당1, 방1, 부엌1
- 삼존불, 탱화 모셔져 있음
- 보증금 1500만원, 월38만원
- 시설비 : 800만원

02)998-0940
011)663-2754

국내제2지장보궁 사원정보안내

- 고려고찰 조계종 소속 산하 국내지장3대 보궁중 제2지장보궁입니다 소백산 깊은곳에 국난에 복원된 청정하여 알려지지 아니한 너무나 빈약한 이곳으로 모든 불심있는 기도 불자님과 불자 관광기사님 이은혜 잊지 않을것이오니 이 보궁으로 운행 안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내제2지장보궁 소백산 내원암
054)653-118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창동에 위치
- 5층건물에 2층, 약 35평
- 삼존불(석가모니불, 지장보살, 관음보살)
- 신중탱화,칠성탱화,영가단, A급불단
- 방2개,공단 연등 약 400개 있음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 1천만원

011)9911-0428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시 대흥동 보문산길
- 3층 건물중 2층 33평
- 삼존불, 후불 탱화, 지장불 108불, 신중단
- 옥탑방, 지하 사용가능
- 몸만 와서 운영가능
- 전세 2천, 시설비 1800만원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지하철 당고개역 앞
- 평수 : 약 2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400만원

02)935-4294

사 찰 안 내

- 위 치 : 서울 사찰
- 부 지 : 130평. 요지
- 법 당 : 50평 포집
- 요 사 : 100평
- 가 액 : 12억
- 위 치 : 인천포교당
- 부 지 : 32평
- 전 세 : 4700만원
- 시설비, 월세 없슴
- 요지. 급매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 건물 : 2층건물 2층 85평
- 방5개, 친견실, 욕실 2개
- 보증금 4천만원,월 100만원
- 버스정류장앞 지하철3분거리 (주차장 완비)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11)859-225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중구 번화가
- 건물 : 5층중 4층 50평
- 엘레베이터 유
- 보증금 3천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2000만원
- 합 5천만원(방 총 6개)

051)803-4945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시내에서 5분
- 산세가 좋고 앞에 냇가 물이 흐름
- 삼존불, 산신, 용화
- 대지 약 2만평(과일나무심어져있음)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물 : 상담후 결정
- 법당20평,스님방2, 공양간20평, 집2채

011)9273-2477

토굴 안내

- 위치 : 대구시 현풍읍
- 집세 없음. 삼존불, 산신각
- 법회 준비 완료
- 가액 : 1천500만원 (절충가능)

053)616-3479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 대지 : 271평
- 법당 10평,후원 5평 1개
- 요사채 15평 1동
- 특징 : 좌청룡 우백호 지장기도 도량
- 비구니스님, 법사님, 보살님 환영

011)526-1824

사 찰 안 내

- ●위치 : 용인 시내
- ●대지 : 450평
- ●법당 : 35평(목재)
- ●요사 : 100평(3동)
- ●양도가 : 10억
- ※ 산세 좋음

〈토굴〉
- ●위치 : 경남 밀양시
- ●대지 : 370평
- ●법당 겸 요사 : 30평
- ●양도가 : 1억 5천
- ※ 산세가 좋으면 수행 정진 토굴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갓바위 부근
- 신축법당. 소나무 숲속
- 방4개, 넓은 거실, 수세식 화장실, 창고
- 주차장 넓음. 넓은 텃밭
- 보증금 4천만원, 월 10만원
- 시설비 : 1천만원

017)533-1356

사찰 안내

- 고상한 절과 요사
- 큰 냇가와 수백년 먹은 나무와 어울어짐
- 전 500평, 대지 200평 그부근 국유지 많음
- 가액 : 1억 5500만원

011)9302-0343
054)262-6673

포교원 안내

- 위치 : 하남시 중앙동 대도로변
- 4층 건물중 5층. 38평
- 법당, 친견실, 스님방
- 몸만 오시면 됨. 명리에 능한신분, 역학가능하신 분 유리함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 일신상 (급)안내

011)9093-0108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장흥
- 대지,임야 포함 11400평
- 법당, 목조 40평
- 요사채 110평 1동
- 창고겸 숙식가능요사 45평 1동
- 위치 터 좋아 모든 포교, 사회 복지 활동 최적지
- 가액 : 3억 7천만원

011)9457-7060

포교당 안내

- 주변 환경 전망 좋음 포교당 매매
- 6m도로옆, 주차장 완비
- 2002년 신축건물 5층 23평형
- 전철, 버스 도보로 10분
- 전철역에서 마을버스 운행
- 역학 장소도 적합함
- 가액 : 4,500만원
- 개인등기확실, 사업용자리100%

02)353-6871

사 찰 안 내

- ●위 치 : 주왕산 ●대 지 : 300평 ●법 당 : 25평 ●요 사 : 30평 ●가 액 : 3억5천 ※유명한 관광사찰 홈페이지 사진 참조
- ●위 치 : 부산 ●대 지 : 100평 ●법 당 : 20평 ●요 사 : 25평 ●가 액 : 2억5천 ※주택지 도심 사찰 주차장 있음
- ●위 치 : 부산 ●대 지 : 40평 ●법 당 : 15평 ●요 사 : 25평 ●가 액 : 1억2천 ※주택지 도심 사찰 2층 인법당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81-9575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음성
- 부지 : 764평
- 건물 : 법당 15평(전통목조), 종각3평(전통목조), 요사채
- 불사할수 있도록 조경완비 했음
- 가액 : 3억

011)462-0392

사찰 안내

- 위치 : 보령시 외곽
- 면적 172평중 대지 86평
- 정남향. 건평 36.75평
- 병풍처럼 야산이 둘러져있고 앞면은 툭터져 있으며 큰도로에서 약 80m도보
- 임법당, 큰방1(가로25자,세로12자 이상), 작은방2, 주방, 욕실
- 잘지은 조립식 건물. 1년됨
- 타지역 이사관계로 매매

041)934-8516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달성군
- 계곡좋고 산세 수려
- 산속에 위치
- 건물 2동. 1층 요사채
- 등기평수 : 120평
- 가액 : 1억 7천만원

011)9394-1215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 대지 : 130평
- 요사채 건평 : 55평
- 임야 3천평
- 산신각, 법당
- 가액 : 3억 5천만원

033)563-3050
033)563-3051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이천시 (서이천IC 근처)
- 대지 970평, 법당 29평, 요사채 22평(방, 부엌, 화장실), 통나무 건물
- 가액 : 5억(절충 가능)
- ※ 연면적 620평이 복지시설물 건축 허가 나와 있음 (선원, 선방,복지시설 활용 용이함)

011)325-5199
031)632-5664

신축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부지 : 사용평수 2백평 중 100평 등기.
- 법당 목조 22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2동, 방3개, 주방1개, 5층석탑
- 바위불상, 다수 민속품으로 경내조성
- 환산의 지기가 집중된 명당터로 270여호마을소재. 옥천 톨게이트 및 대전 국도접 2~3분
- 가액 : 1억 3천만원

043)733-8186 / 011)9405-8186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내당동
- 구)황제예식장, 황제맨션앞
- 평수 : 45평
- 방4개, 공양간1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016)9633-0302

신축사찰수련원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팔공산 파계사옆 마을 상단
- 2차선 포장도 주차장완비 정남향
- 대지 207평, 텃밭 110평
- 2층건물, 건평70평 2002.11월준공
- 1층 : 객실 방3칸, 큰 거실, 사무실, 내실 주방, 욕실, 보일러실(심야 전기, 기름 겸)
- 건물2층 : 계단실,법당, 주지실, 응접실
- 특징 : 요산 요수, 수려한 자연경관 앞 냇물 뒷산은 竹林병풍 한폭의 동양화(가격 절충)

053)983-9933
053)984-9640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예천
- 대지 68평, 전 120평
- 건평 : 37평(황토방)
- 임법당, 삼존불, 4차선 도로 100m
- 가액 : 6천만원(가격 절충)

018)652-4725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토성동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자갈치와 토성전철역에서 5분 거리
- 가액 : 1억

011)733-8655

토굴대명당지

- 위치 : 여주 점동면
- 대지 603평
- 정남향. 조경완비. 민가없습
- 최고 풍치. 도로, 개울 접
- 수행 불자 환영
- 가액 : 평당 29만원

018)315-9080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 김천, 상주에서 20분 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천3백만원 (집기 일체 포함)

011)462-5275

사찰 안내

- 위치 : 대전 15분 거리 옥천
- 대지 100평, 건평 70~75평
- 2층법당25평, 방5개, 화장실 실내 3개, 주방1, 거실1
- 앞마당 주차
- 가액 : 1억 5000만원

043)733-8108
02)587-0108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 성남시 분당
- 3층 건물중 3층
- 위치 A급
- 방2개, 전체 평수 약 33평
- 보증금 4천만원, 월 90만원
- 시설비 : 1000만원(절충 가능)

018)242-7070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 대지 : 약 100평
- 법당15평, 요사, 후원
- 요사 주지실 따로
- 가액 : 9천만원

011)859-2252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북구 산격 주공4거리
- 법당 3층(26평)
- 삼존불, 본존 후불
- 후불 탱화, 신중, 지장
- 보증금 3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 1700만원

053)382-0604
011)9381-2242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 평수 : 30평
- 삼존불
- 보증금 500만원,월 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53)565-8212

포교원 안내

- 위치 : 일산 신도시, 주엽 전철역 150m. 앞,뒤로 아파트 단지
- 평수 : 25평, 방1개, 시설 A급. 3층 건물에 3층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바닥은 전기 온돌 판넬. 철학관으로도 적합
- 2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2천 2백만원

019)687-0306. 031)919-0306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북구 수유동 부근
- 55평. 임대. 법당(삼존불,산신각, 108지장보살님)
- 방3개, 주방, 화장실
- 가액 : 7천만원 (상담후 절충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 시설완비, 즉시 법회 가능

016)243-1643
02)907-164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 신북면 가채리 819-4
- 요사채 56평, 법당 25평
- 석가모니부처님,관음,지장모셔져있음
- 가액 : 전세 6천만원
- 월세 : 보증금 2천, 월 40만원

031)535-5063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 근교
- 대지 : 1300평
- 법당 15평(목조 50년)
- 요사 50평, 용왕각 3평
- 가액 : 1억9천만원

011)875-073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건물 : 법당18평, 요사채12평, 스님방3개, 목욕탕(조립식 가건물)
- 삼존불, 산신각
- 특징 : 국도변으로 교통 편리, 마당까지 차진입가능, 심야 보일러 설치
- 대지 : 108평
- 가액 : 5천 5백만원

011)595-7360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망우4거리
- 4층건물 중 3층
- 법당 30평, 방2개, 부엌1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3천만원

019)571-1732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황매산 서편
- 부지 : 약 2천평. 밤산 군유지 2만평
- 건물 : 단청한 법당 30평. 요사채 2동 , 그외
- 특징 : 지리산 천왕봉 안대. 동양화같은 최고 명당 비구니선원 적합
- 가액 : 2억7천만원

011)531-1334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소재
- 40평, 방 1칸
- 1년사용료 1500만원 선불
- 법당 시설비 400만원 투자함
- 포교에 원력이 있는 비구니 스님 환영

02)948-7006

부지 안내

- 위치 : 경남 산청
- 다용도 가능함. 준 농림지
- 1,070평중 일부 전용 컨테이너 1동
- 전기 시설. 차량 진입. 조용하고 아늑한 곳
- 예상가액 : 평당 5만원

011)570-131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도남동
- 특징 : 도심속의 산사 바닷가
- 건물3동, 법당 10평, 요사 2동
- 시설비 1천만원, 월 20만원 (보증금 없음)

055)646-2766
019)656-2766

암자 안내

- 위치 : 충남
- 대지 : 271평
- 특징 : 좌청룡우백호 지장 기도도량
- 비구니스님, 법사님, 보살님 환영
- 전화 문의. 현지 상담
- 가액은 추후 결정

011)526-1824

사찰부지(급)안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항금리
- 부지 : 1500평(1000평종교부지허가)
- 산세수려, 수목 울창
- 양쪽에 계곡을 끼고 있음
- 교통편리, 도로 인접
- 서울 근교 중 최고의 명당터
- 가액 : 3억5천만원

017)438-3377

암자포교당 최적지

- 전주시내 시장버스정류장 5거리 건널목
- 사람이 꾸준히 움직이는 단독상가밀집지역 한옥고가집 나무상태 80% 주차양호 대지 80평 법당모실수 있는 방 평수 20평 큰방 5개, 전체수리 즉시 입주 은행융자됨 도로간판 설치됨
- 가액 : 7800만원이면 등기 완료 노후대책 전망있음 새로 창건을 원하시는 비구니스님 법사님 보살님 제자님께서는 전화바람 가능성 없는 전화 사절 주인직거래

063)246-8482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 성남시 주택밀집지역
- 평수 : 45평
- 법당, 거실, 방2, 창고방1, 주방, 화장실
- 보증금 15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011)678-0807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 대지 : 58평, 건평 60평(현대식)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건물 깨끗하고 내부시설 아주 깨끗함
- 대단지 아파트옆(위치 아주 좋음)
- 사정상(공부하러 감) 매매
- 가액 : 2억원

011)858-9450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동호동
- 건물 실평수(50평)
- 임법당, 방2개
- 특징 : 신도시 개발지역 도심속의 포교지로 최적지임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보증금 답사후 절충)

016)502-7307
053)963-9945

토굴 암자 안내

- 경북 포항시 시내 20분거리
- 풍수적 요지
- 대지 : 100평
- 건물 23평. 임법당
- 가액 : 가격 절충

054)262-7765
017)803-7890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 대지 : 57평
- 법당 : 20평(2층)
- 요사채 : 32평(1층)
- 지하 방 4개(세) 마당 ; 주차함
- 가액 ; 평당가격(전세도 가능함)

011)9637-2632

사찰 안내

- 위치 : 정동진 (바다 바로앞 위치) 전망 최고
- 사용가능 부지 83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2동
- 1동은 건물 등기 돼있음
- 가액 : 1억 2천 5백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33)563-3050
033)563-3051

목어

눈먼 불심



성태용
건국대 교수
본지 논설위원

불기 ○○○○년 부처님이 대한민국 땅에 현신하셨다. 그리곤 좀 슬프고 화나신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한국 불자들아! 어찌 이리도 나를 곤혹스럽게 만드는가? 내가 중생이 바로 부처라고 한 것은 그대들 속에 있는 부처를 드러내라 한 것인데, 그대들은 부처를 중생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어. 불사(佛事)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을 보면 정말 그게 내 이름 걸고 한다는 것이 창피스러워서. 종종 만나는 예수나 공자에게 정말 낯을 들 수가 없다구. 내가 여기 이 땅에 있다면 정말 서둘러 하고 싶은 일들은 지천으로 깔렸는데, 왜 그런 일은 않는지 모르겠어. 꼭 내 모습을 조성하거나 절 짓는 등등의 일들을 해야 내가 기뻐하고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를 깔봐도 보통 깔보는 것이 아니잖아? 물론 그런 일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더 급하고도 절실한 일은 제쳐 두고 그런 일에 매달린다면 결코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지? 내가 복을 내려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에게 복을 비는 것까지는 그냥 내가 참도록 하지. 어차피 선업을 쌓으면 선과를 얻을 게고, 또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될 테니까. 그렇지만 나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을 비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지 않아? 뭐? 그런 일을 해야 불심이 모인다고? 그건 무슨 불심인지 모르겠네. 그건 눈먼 불심이야. 눈 감고 귀 막고 하는 일을 불심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내가 곤혹스럽다 못해 이렇게 직접 나서는 일은 정말 없도록 해 주게! 내 이름 걸고 하는 일에 걸맞는 그런 불사들이 불일듯 일어나는 걸 보고 싶네!"

부처님 저도 이런 불경스런 상상을 하는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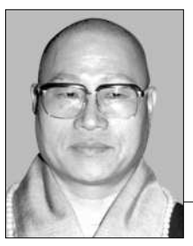
삼보일배 세계 10대 환경뉴스 선정

새만금 갯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삼보일배가 국내외 저명 환경운동가와 환경학자 등이 선정한 '2003 지구촌 10대 환경뉴스'에 포함됐다. 레스터 브라운 월드워치연구소 창립자, 리카르도 나바로 지구의벗 국제본부의장,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 최재천 서울대 교수 등이 선정위원으로 참여했다. 지구촌 환경뉴스는 환경재단과 시민환경연구소 주관으로 11월말부터 12월 16일까지 선정작업을 벌여 정해졌다.

장군죽비

용화사의 조변석개

전통사찰인 통영 용화사(주지 선곡)가 조계종 총무원의 협의 없이 케이블카 설치 청원서를 통영시의회에 접수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5년여간 수행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케이블카 설치 반대를 주장해 온 용화사는 청원서에서 "미륵산 불교문화재 환경정비와 관광물설치로 관광객을 유치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혀 관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특별기고

법혜 스님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큰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올해는 유난히 많은 스승들이 세상 인연을 마감하셨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거의 매주 큰스님들의 원적 소식을 접했다. 산 같은 슬픔이 밀려드는 소식들이 이어 지는 가운데 시나브로 해는 바뀌고 겨울바람은 차기만 하다.

세상에 의지할 스승이 있다는 것은 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다. 반대로 스승들이 한 분 두 분씩 우리 곁을 떠나가는 것은 황량한 들판에 버려지는 듯 허전하고 서글픈 일이다.

금년에는 10여 분의 큰스님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 그래서 어느 해 보다 우리들 주변이 공허하다. 세상은 점점 각박해 지고 경제 불안과 테러, 질병의 공포는 그침이 없는데 우리들에게 위안과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들마저 세상을 떠나가니 온 세상이 적막강산 그 자체다.

그런데 큰스님들의 떠남은 떠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불교는 죽음을 '끝'이라고 보지 않는다. 다만 육신이라는 가아(假我)를 벗고 본래의 청정한 마음자리로 회귀하는 하나의 경과조치 쯤으로 본다. 본래청정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불교에서는 죽음을 열반이라 한다. 열반, 즉 니르바나는 번뇌와 망상의 불을 '훅' 불어 끈 그 순간의 절대적인 고요와 아무런 분별의 여지가 없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선사들은 죽음을 아무렇지 않은 일, 밥 먹고 숨쉬는 일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죽음을 초월하는 가르침.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특별한 가르침이다. 육신의 무상함을 극복하고 또 다른 완성으로 접어드는 길의 정점이 죽음인 것이다. 그 자리에서 실로 초연할 수 있어야 공부를 제대로 한 스님이라고 하는 것도 생과 사를 둘로 보지 않는 까닭이다. 큰스님들의 죽음을 입적(入寂 적멸의 세상으로 들어 감) 원적(圓寂 원만히 적멸에 들어 감) 시적(示寂 적멸을 보임) 등으로 표현 하는 것도 니르바나의 경지를 드러내 보이는 하나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육신의 허망함을 말로만 떠드는 것은 그 자체가 깊은 병이다. 허망한 육신에 집착하지 않고 진리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 삶이어야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도 꿋꿋할 수 있는 것이다. 살아서 극락을 좋아 하지 않고 죽어서도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장부의 살림살이인 것이다.

큰스님들이 원적에 이르러 남기는 '열반게'란 바로 이 세상에서 이룬 공부의 가장 마지막 결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일종의 수행보고서인 셈이다. 많은 선사들의 열반게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 기상과 분별하지 않는 자유로움이 담겨 있다. 주머니 속에 감춘 송곳처럼 삐죽삐죽 드러나는 그 기운이야말로 한 선사의 일생에 걸친 수행의 깊이요 넓이다. 그래서 큰 스님들이 원적에 이르러 한 마디 토하시는 가르침을 우리는 얼른 챙겨야 한다. 그 활달한 가르침, 비록 문자를 빌어 표현되긴 했지만 문자 이전의 원음을 들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가르침을 받게 된다.

12월 13일 백양사에서 원적에 든 서옹 스님은 "운문에 해는 긴데 이르는 사람 없고/ 백운산정에 눈이 분분하네/ 한번 백학이 날으니 천년동안 고요하고/ 솔솔 부는 솔바람 붉은 노을을 보낸다"고 최후 일성을 토했다. 그러고도 모자라 좌탈(坐脫)의 기연으로 가르침을 한 번 더 강조했다. 온 몸을 동원해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고 이 세상에서의 호흡을 멈춘 순간(어디 호흡만 멈춘 것이겠는가? 이 중생계의 모든 번뇌와 분별을 다 멈추어 버렸으리라) 이미 큰스님은 저 적정열반의 세상에서 천진한 웃음을 짓고 계셨을 것이다.

큰스님들의 원적은 슬픔이기보다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형상의 이별에 대한 슬픔에 침잠되어 온 몸으로 남기신 가르침을 잃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슬픔이다. 큰스님들의 원적 그 자체가 지고한 가르침의 마지막 표현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육신이라는 형상에 집착해 그 형상을 볼 수 없음을 슬퍼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자신의 형상도 머지않아 허물어 질 것 아닌가.

스스로의 형상이 허물어질 때 자신은 과연 어떤 모습을 취하고 그 순간을 맞아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중생들이 진정 슬퍼해야 할 일은 스승의 모습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순간까지도 온몸으로 가르침을 베푸시는 스승들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스승들이 떠난 자리에 슬픔의 꽃을 바치는 것으로 예의를 다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그 자리에 채워야 할 것은 스승들의 가르침을 올곧게 이어받아 중생계의 어둠을 물리치고 극락의 꽃을 피우려는 부단한 노력의 땀방울이다.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물구나무를 서서 죽는 그 장면에 감동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러한 연출의 깊은 뜻이 무엇일까를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일이 급한 것이다. 이걸 안다면 사리가 몇과 나왔느냐, 좌탈이냐, 입망이냐 하는 외형에 지나치게 끄달리지도 않을 것이다.



불자 세상보기

이우정
원광대 정치행정언론학부 교수

대통령의 언행

말로써 말이 많다는 말이 실감나는 세상이다. 내가 뽑은 대통령의 말이 가십거리가 되는 현실에 목이 메인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대의제 아래서의 민주정치는 말로 시작하여 말로 끝나는 정치라고 할 만큼 말은 정치행위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동시에 정책결정의 자원이고 결단의 상징이다. 따라서 말이란 그 자체로서 정치적 생명력을 갖는다. 다만 정치과정에 투입되는 모든 말은 국민의 말과 동일시되고 국민을 위한 것으로 구현될 때 일정한 생명력, 즉 정당성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마당에서는 안 될 말이 될 말을 구축하는 현상이 지배적이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치인 가운데는 우리의 정부제도를 의원내각제로 착각하고 있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 구조와 문화의 틀 안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못해먹겠다"는 말이 나올 만큼 힘들다는데 공감한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인식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제도는 단임의 대통령중심제라는 점이다. 대통령에게는 실험기간이 없으며 시행착오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원래 말에 대한 책임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일정비율로 나누어 지는 것이 옳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말을 놓고 듣는 이의 책임으로 돌려야 하는 데는 의문이 간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책임의 중심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은 권력 동기에 사로잡힌 의회정치와 개혁동기에 미숙한 대통령 정치 간의 충돌현상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혼란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본의에 관계없이 많은 국민을 당혹케 할 때가 많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첫째, 대통령의 말에는 부정적이고 도발적 표현이 적지 않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불안케 하는 언사는 삼가야 마땅하다. 지도자의 말에는 비전이 살아있고, 호소력이 있어 감동을 주어야 한다. 대통령은 제도이지 개인이 아니다. 국민의 합의를 무시하고 스스로 물러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통령의 언행은 국가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있다. 일단 발설된 말은 사회내의 각 부분들이 분석하고 대응하기 마련이므로 결정적인 사회 정책적 환경요인을 구성하게 된다.

둘째, 대통령의 말은 온라인상에서의 치밀한 정제과정을 거쳐서 나와야하며 오프라인에서 급히 챙긴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도 안 될 일이라 생각된다.

셋째, 국정의 홍보는 사안별, 분야별로 직제와 직급에 맞추어 적절히 대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답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통령의 말이 다다익선일 수만은 없을 것이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절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해명성 발언의 동기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대통령의 말은 해명되기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 말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떠나서 우선 국민들에 의하여 납득되고 공감될 수 있는 공간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믿는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말이 갖춰야 할 조건 가운데 신뢰성이 우선이다.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안정제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가능성이며 희망이어야 한다. 그 다음 권위성이 답보되어야 한다. 중심이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을 때 설득력이 생기지 않겠는가. 또한 책임성을 갖추어야 한다. 행위인과의 일관성이 지켜질 때 비로소 말의 책임은 인정되는 것이다. 신뢰와 권위는 결국 책임으로 평가되는 것이므로 정치지도자는 무릇 말하기를 무서워하고 듣기를 즐겨해야하는 공리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은 역사를 만드는 권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분이다. 지금 대다수 국민은 대통령이 하루 속히 정치력을 발휘하여 이 위기를 개혁의 기회로 돌리어 부패와 낭비가 만연된 이 모순된 정치 사회구조를 혁파해주기를 염원하고 있음을 확실히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 검찰과 특검수사를 앞두고 이른바 '대선자금 1/10설'로 차별화를 주장하는 말은 대통령의 덕목에 부합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본인이 직접 "지금처럼 흔들리는 대통령이 오래가서는 안 된다."고 말할 때 듣는 이에 따라서는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 오래 못 간다."로 곡해할 사람도 생길 수 있다.

어느 때보다도 정통성이 확보된 대통령으로서 휘둘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대통령으로 평가 받게 되기를 기원한다. 민족적 지도자의 어록이 후대를 위한 고귀한 교본이 된 예가 많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파동명상제령 :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원격명상제령 :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교재 :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수련일시 : 12月 넷째주, 다섯째주 (월 ~ 금)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 可, 전화문의 바람)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5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 상담 후 결정

◆ 알려드립니다 ◆

2004년 1月5日(월요일)
동방파동명상연구소 서울사무소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도롱뇽의 친구들과 한국고속철도 공단 관계자들이 12월 15일 천성산을 찾아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이 천성산 생태계에 미칠 영향과 환경영향평가 부실 여부 등에 대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도롱뇽 소송 뜨거운 '산상법정'

울산지법 천성산 화엄늪 등 현장검증 … 공방치열

천성산 화엄벌 능선에서 역사적인 법정이 열렸다.

도롱뇽 소송 현장 검증이 열렸던 12월 15일, '도롱뇽의 친구들'과 한국고속철도 공단 관계자 등 30여명은 천성산 화엄늪, 밀밭늪, 무제치늪을 돌며 현장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울산지법 민사 10부(재판장 윤인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천성산에서 가진 3차례 심문을 통해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가 천성산에 미치게 될 영향과 도롱뇽의 서식 여부, 환경영향평가 부실 여부 등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취합했다.

고속철도가 지나갈 20㎞ 산악지대를 돌며 진행된 현장답사에서 피고측 참고인인 장인수 박사(생태학자연환경보건연구원 원장)는 "천성산 화엄늪에서 멸종 위기 종으로 보호받고 있는 꼬리치레 도롱뇽은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동준 도롱뇽 소송 담당 변호사는 "꼬리치레 도롱뇽에 대한 영상 자료를 갖고 있다. 장박사의 조사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활성단층 많아 생태계 파괴 · 붕괴 위험
선진터널공법 도입 … 아무런 문제 없다

또한 세 번째 참고인이자 1993년 환경영향평가 지휘를 맡았던 김수생 동아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문헌조사와 실질 조사, 외국 사례 조사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영향평가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동준 변호사는 "그 당시의 보고서에는 늪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보호동식물 30여종이 누락된 된 이유는 무엇이냐"며 영향평가서의 부실 문제를 조목조목 꼬집었다.

또한 양측은 터널공사로 인한 지하수 누출, 안전성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으며 '선진 기술 공법 도입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피고측의 주장과 '활성단층인 구간이 많아 지하수누출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붕괴 등의 위험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원고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산상법정은 도롱뇽의 원고 자격 판단여부에 앞서, 실제 고속철도 관통 구간 공사가 도롱뇽 등 자연 파괴에 미칠 영향 등을 확인해 보기 위해 이뤄졌다.

2차 심리는 오는 26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천미희 기자

"절망 속 사람들에 희망주고 싶어 엎드려 절하고 또 절 했습니다"

지월 스님 3년간 300만배…회향후 계속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또 어두운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엎드려 절하고 또 절했습니다."

12월 19일 울산 울주군 우봉마을 금어사에서는 '300만배 기도 회향법회'라는 보기 드문 법회가 열렸다. 3년 동안 하루 평균 2천 7백배를 해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을 성취한 지월스님은 이날 신도들이 직접 만든 '300만배 기도 성취도량' 현판식을 갖고 그간의 기도 중에 느낀 체험담을 들려주며 그 공덕을 널리 회향했다.

스님이 맨 처음 절을 시작한 것은 2001년 1월 1일. 결핵을 앓다 '몸을 건강하게 해 주시면 부처님을 위해 몸을 받치겠다'는 기도를 하면서 부터다. 기도를 통해 병을 완치한 스님은 불은(佛恩)을 갚을 방편으로 100만배 기도를 시작한 것이다.

80만배에서 고비가 왔다. 무릎이 아파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고통이 왔지만 스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절을 하면서 찾아온 고통을 이겨내면서 철거 위기에 놓여 희망을 잃어버린 어촌 마을의 고통도 알게 됐다. 생업에 바쁜 마을 사람들을 위해 아이들의 공부를 돌보기 시작했고, 매주 일요일 아이들과 함께 해변 청소를 하며 어민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금어사도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처지에 놓였다.

지월 스님은 "기도와 정진을 이어갈 좋은 도량이 되어 부처님법을 바로 펼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3년 동안 하루 평균 2천7백배를 올리며 정진하는 동안 '상불경보살(常不輕菩薩)'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새로운 발원을 하게됐다. 300만배 회향을 얼마 앞둔 10월 28일, 상불경보살의 가르침이 전율처럼 와 닿았고 이후, 남녀노소 누구를 만나도 삼배로 예를 갖춘다. 절에서 한문, 영어 등을 가르치고 있는 10명의 아이들에게도 삼배를 하고 경어를 사용하고 있다.

"모든 존재가 부처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신 부처님께 감사 드리며 많이 울었다"는 스님은 "육신을 벗는 그 날까지 매일 천배 기도를 이어가겠다"며 300만배 회향 후에도 절은 계속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16일 광주 원각사에서 열린 도법 스님 초청 열린강연회 모습.

"평화 가꾸는 일이 보현행원"

도법 스님, 광주서 생명평화 강연

지난달 평화와 화해를 위한 "1천일기도"를 마치고 산문을 나선 실상사 도법 스님이 5년만에 광주를 찾아 '생명평화'를 역설했다.

평화실천 광주전남불교연대,광주불교교육원,원각사청년회,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맑고향기롭게 광주모임 등 광주지역 5개 불교시민단체는 12월 16일 광주 금남로 원각사 주지(도제)에서 '도법스님 초청 열린강연회'를 공동주최했다.

불자 및 일반시민등 2백여명이 동참한 이날 강연회에서 도법 스님은 '내 안의 평화, 세상의 평화'란 주제 강연을 통해 "불교는 평화의 종교"라고 전제하고 "부처님은 평화운동가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화를 가꾸는 일이 수행이며 경전에서는 보현행원으로 표현된다"며 "존재의 실상에 대해 눈뜨는 것이 생명평화의 출발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생명평화는 문제의식을 느끼는 이가 앞장서야 한다"며 "현대사에 가장 큰 아픔을 안고 있는 광주가 생명의 진실을 깨닫는 밑걸음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준엽 기자

건축 · 간병사업단 공동체 출범

기초 수급자 자활근로사업 등 지원

상주자활후견기관(관장 성웅, 남장사 주지)은 12월 19일 상주시청 무양청사 3층 회의실에서 건축 및 간병사업단 공동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2001년부터 상주자활후견기관에서 직업교육을 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들의 모임인 건축 간병사업단 공동체는 이날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근로사업에 나섰다.

현재 상주자활후견기관에는 건축 간병 청소 도배 영농 봉제 등 7개 자활후견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상주자활후견기관 관장 성웅 스님은 "기초 수급자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말했다. (054) 536-6580 김원우 기자

안동중계소 방송송출식
대구 BBS, 음악회 열어

대구불교방송은 12월 12일 포항중계소(FM 105.5MHZ)에 이어 18일 안동중계소(FM 97.7MHZ)를 개국했다.

포항중계소는 12일 조계종 중앙종회 수석 부의장 법조 스님,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 정장식 포항시장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그너스호텔 2층에서 개국축하 리셉션(사진)과 축하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어 안동중계소는 18일 신라뷔페 웨딩홀에서 고운사 주지 혜승 스님을 비롯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방송 송출식 축하법회 및 음악회를 개최했다.

대구불교방송 사장 성타 스님은 "그동안 법음에 목말랐던 경북 북부 · 동부지역 불자들의 좀더 나은 신행생활을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홍선 스님 주지직무대행
범어사, 성오 스님 이임식

범어사는 12월 20일 성오 스님 주지 이임식을 갖고 최근 부주지로 임명된 홍선 스님의 주지 직무대행 체제를 시작했다.

범어사는 성오 스님의 법적 임기가 끝나는 것과 맞춰 부주지인 홍선 스님이 직무대행을 맡아 활동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홍선 스님은 범어사 산중총회에서 차기 주지 후보로 추대됐으나 미국 국적문제로 임명을 받지 못했었다. 천미희 기자

전국 불교만화 공모
내년 1월 31일까지 접수

조계종이 주최하고 영남불교대학 불교만화연구소가 주관하는 '제3회 전국불교만화공모전'이 열린다.

제3회 전국불교만화공모전에서는 불교적 소재가 담긴 애니메이션 인쇄만화 등 다양한 장르의 만화를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문의는 전화 (02)3392-0334, 인터넷 홈페이지(www.okbuddha.com)

김원우 기자

불국토 · 청소년도량 이사장
혜총 스님 · 범산 스님 취임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와 재단법인 불국토 청소년도량이 각각 새로운 이사장 시대를 맞이했다.

12월 17일 부산진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 · 취임 법회에서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이사장에는 혜총 스님(용호복지관 관장)이 재단법인 불국토 청소년도량 이사장에는 범산 스님(양정청소년회관 관장)이 각각 취임했다.

사회복지법인 상임이사로 활동하며 용호복지관을 통해 불교복지 활동의 영역을 넓혀왔던 혜총 스님과 양정청소년회관을 운영하며 불교문화를 통한 청소년포교를 주도해오던 범산 스님의 취임으로 불국토의 활동은 더욱 전문화되고, 활성화 될 전망이다.

1994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는 사회복지 시설 및 사회복지관의 운영과 지원, 어린이집, 무료의료원,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관의 운영과 지원 등을 통해 사회복지의 모델을 제공해왔다.

이날 혜총 스님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불국토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삼매체험 선 수련회 안내

- 불교를 바로 알고 참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한 -

문답식 법문으로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발심을 촉발시킨다. 진취적인 수행관으로 직관수행의 길로 인도하며 동중선으로 바로 들어가는 수행 (중도 공해탈 열반 깨달음 연기 등을 해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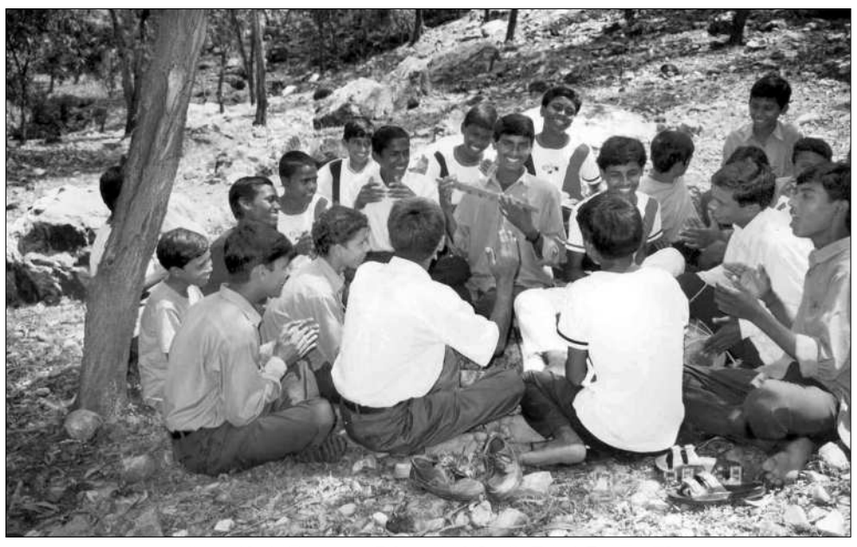
▼ 특징 - 5일동안 수행으로

1)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심오한 조사선 수행을 접할 수 있다.
2)모든 업장과 습기를 뛰어넘어 곧 바로 당처를 관조하여 단박에 수렁에서 뛰어넘는 직관수행의 길에 바로 나아가는 체험
3)모든 사람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무지와 미혹의 맹목적인 삶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된다.
4)불교를 바르게 알고 깨달음과 해탈의 삶에 다가간다.
5)기복과 타력신앙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6)그릇된 종교생활을 벗어나 올바른 불교관을 찾을 수 있다
7)생활에서 수행을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동중선에 든다.

홈페이지 www.wmsonwon.net(wm선원닷넷)
대상및인원 · 성인 남녀 70명
수련일정(4박5일) · 1차 : 12월 24일 ~ 28일 · 2차 : 12월 31일 ~ 1월 4일
접 수 · 2003년 12월 20일 까지 선착순 마감.
회 비 · 10만원(후원회비) 생계가 어려운 자는 무료 수련이 가능함.
· 온라인입금 : 농협 953-17-000706(예금주-원명선원)
접 수 처 · ☎ 064-755-3322 전송 : 064-755-0880
제주시 화북1동 4684번지 조계종 한라산 원명선원

자성불 열린도량 원명선원

수자타아카데미 10주년, 과거와 현재·미래 대화마당



◇설립 10주년을 맞는 수자타아카데미 야외수업 모습. 사진제공=JTS

나누는 마음 갖길 발원합니다

부모님도 JTS라면 믿어요
행복이란 마음 쓰기에 달렸죠

2004년 1월이 되면 JTS(이사장 법륜)에서 운영중인 수자타아카데미(교장 쁘리양카)가 10돌을 맞는다. 10주년을 앞두고 12월 13일 수자타아카데미에서는 7명의 교사들이 모여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색하는 열린대화마당을 열었다.

산제이–저는 어릴 때 관광객이 오면 구걸을 하러 전정각산에 가곤 했는데 학교가 생기고 공부를 시작한 후부터는 구걸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유아반 공부부터 출발해 상급생이 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JTS로부터 대학공부 후원을 받고 있으며, 후배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란짓–저는 여기에서 조금 떨어진 도시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가정형편상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외할머니 댁에 들렀다가 이곳을 알게 됐습니다. 8학년부터 공부를 시작한 뒤 10학년 졸업 후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동안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JTS 도움으로 대학 교육을 받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준–10년 동안 기억 남는 일 중 하나는 학교 건물 짓는 중 떼강도가 들었던 것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작년 1월 무장 강도로 인해 설거사님이 돌아가신 일입니다.

쁘리양카–학교 설립 초기에 학생들을 위해 수학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학부형들이 저희 집에 몰려와서 외국인이 우리 아이들을 버스에 태워 유괴하는 것 아니냐며 인도선생님이 꼭 같이 가야한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지금은 JTS나 학교에서 무얼 하더라도 모두 믿고 허락해주시죠.

산제이–저는 육체적이던 정신적이던 여기서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활동가가 되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누며 사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늘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쁘리양카–교장으로 욕심에 욕심을 더 만드는 교육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만 받으면 된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다. 함께 나누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행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장직에서 물러나면 학교 부엌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지어주는 일을 지금 학생들의 자녀들에게까지 할 겁니다.

정리=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우리 절 우리 신도

사찰 봉사가 약이고 기쁨

서울 달마사 실상화 보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심을 다해 베푸는 보시행. 하지만 '무상보시'를 실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서울 흑석동 달마사의 실상화 보살(69·남쌍임)은 사찰에서의 봉사를 통해 이를 실천한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일주일에 두 세 번은 꼭 달마사를 찾아 사찰 안뜰이며 화장실 등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텃밭도 가꾼다.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손이 많이 가는 탓에 젊은 보살들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일에도 실상화 보살은 묵묵히 앞장선다.



◇달마사 실상화 보살이 불기를 닦고 있다.

칠순 나이에도 절집 살림 거뜬
사경 등 자기 공부에 열중
죽는 날까지 무상보시 펼칠 터

"갓 시집온 20대에 시어머니 따라 달마사에 처음 왔어요. 그 때부터 틈나는 대로 사찰살림, 허드렛일을 도와왔지요. 이제는 아파도 병원대신 절에 갈만큼 사찰봉사가 내겐 약이고, 기쁨이에요."

40년 동안 꾸준히 달마사에서 정진해온 실상화 보살은 '달마 보살'로 통한다. 또 달마사를 비롯해 내원사, 천불사, 지장사, 만덕사 등 서울 시내 곳곳의 절을 다니며 무보수로 불기 닦는 일도 30년이 넘게 해오고 있다.

"나이든 사람이 불기를 닦으러 다닌다니까 밥이나 얻어먹으러 온 줄 알더라고요. 아니면 돈 받고 해주는 줄 알거나….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하기 쉽지요. 하지만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면 못 해요. 기꺼운 마음이 '뼈속부터' 우러나와야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오랜 세월 사찰봉사를 통해 다져진 실상화 보살의 봉사 노하우는 시흥복지회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연례행사를 돕는 등 사회 복지 분야에서도 발휘되고 있다.

이처럼 봉사활동만으로도 일주일이 빠듯한 실상화 보살이지만 지난 2002년부터는 금강경 사경 등 경전공부도 시작했다. 앞으로는 자기공부에 열중하며 젊은 불자들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 사찰봉사의 요령 등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서다.

"나이 든 사람이 봉사랍시고 앞에 나서면 보기가 안 좋아요. 이제는 더 눈에 안 띄는 일, 티 안나는 일을 찾아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격려해야지요. 요즘 사람들 법당에서 기도만 할 줄 알았지, 도량을 깨끗이 하는 수행은 모르는 거 같아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도 자신의 영향을 받아 사찰의 허드렛일을 주저 없이 거드는 보살들이 늘어갈 때 보람을 느낀다는 실상화 보살. "앞으로 거동이 불편해지는 날이 오더라도 계속해서 봉사하겠다"는 발원을 잊지 않았다.

한상희 기자



추천의 말

미명스님 달마사 주지

저는 평소에 불자들에게 '청산이 되라'고 합니다. 스님들은 구름과 같으니 불자들은 청산이 되어 한 사찰에서 꾸준히 정진하라는 뜻 입니다. 실상화 보살은

불법 실천의 귀감

요즘보기 드문 청산 같은 불자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사찰의 궂은일을 마다않고 봉사로 정진하는 '달마사 지킴이' 입니다. 바쁜 봉사활동 틈틈이 경전공부에도 매진해, 다른 불자들에게 불법 실천의 모범이 되는 보살입니다.

광주 한마음선원, 김장 나눔행사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은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펼쳤다.

광주지원 김장나누기 행사는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연인원 2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마련한 250여동의 김치 양동이는 우산복지관, 호산마을 등의 시설과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가족에게 전달됐다.(사진)

한편 조계종 자원봉사단 부산 경남 지부(지부장 이기표)도 12월 17일 4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동참한 가운데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1만 2천포기의 김장을 했다. 이중 8천 포기는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복지관과 급식시설에, 4천포기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이준엽·천미희 기자

선각종 국제불교대학 1회 졸업식

(사)대한불교 선각종립 국제불교대학 졸업식이 12월 18일 총무원 대강당에서 열렸다.(사진)

종단 관계자 스님과 졸업학인, 가족 등 2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졸업식에서 종정 영담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자라면 이웃에 베풀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행을 해야한다"며 "불교대학에서 배운 불법을 실천하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앞서 총무원장 정암스님은 인사말에서 "불교지도자를 양성하기위해 설립된 선각종 종립 불교대학에서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다"며"앞으로 재가불자들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선각종 종단소속 사찰 주지와 스님 62명이 2년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했다.

이준엽 기자

현장스님, 생명나눔 지역본부장 취임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 제3대 본부장 현장 스님 취임식 및 생명나눔 후원의 밤이 12월 13일 광주 자비신행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취임식에서 현장스님은 "모든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과 조직을 통해 생명나눔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취임식에 이어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003년 후원단체인 제710전투경찰부대, 송광사 사보편집실, 광주불교방송, 광주교차로, 문빈정사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전투경찰부대(부대장 강기현 경감)는 부대원들이 기증한 헌혈증서 32매를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전달했다.

이준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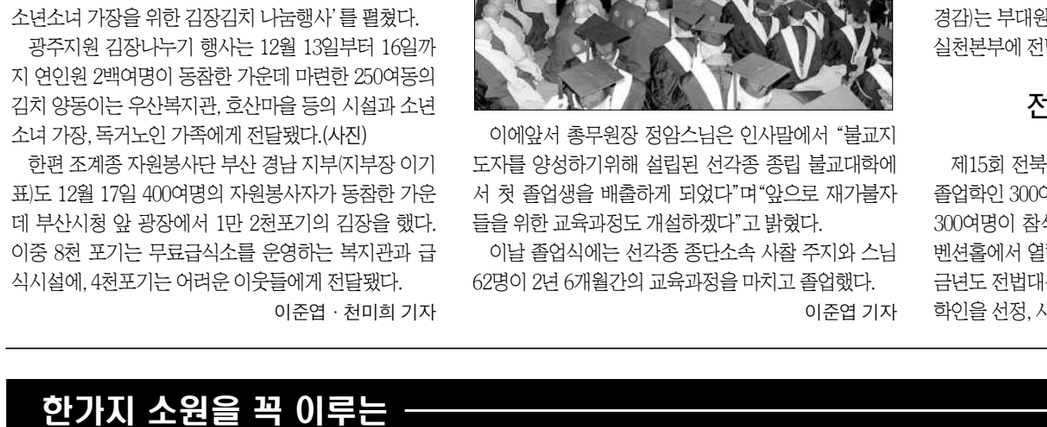
전북불교대학인의 밤

제15회 전북불교대학인의 밤이 12월 13일 재학생과 졸업학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학생과 졸업학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갤러리아 웨딩타운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날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은 금년도 전법대상으로 김기만(불교학과 14회, 청년회장) 학인을 선정, 시상했다.

이준엽 기자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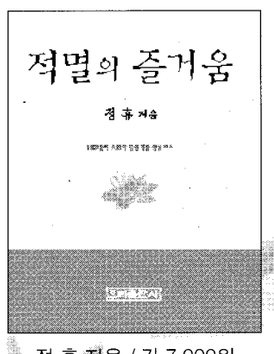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圓 寂

올 겨울 많은 선지식들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슬픔이 태산 같습니다.
그러나 형상의 스승들이 떠나신 자리에 진리의 가르침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적멸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정 휴 지음 / 값 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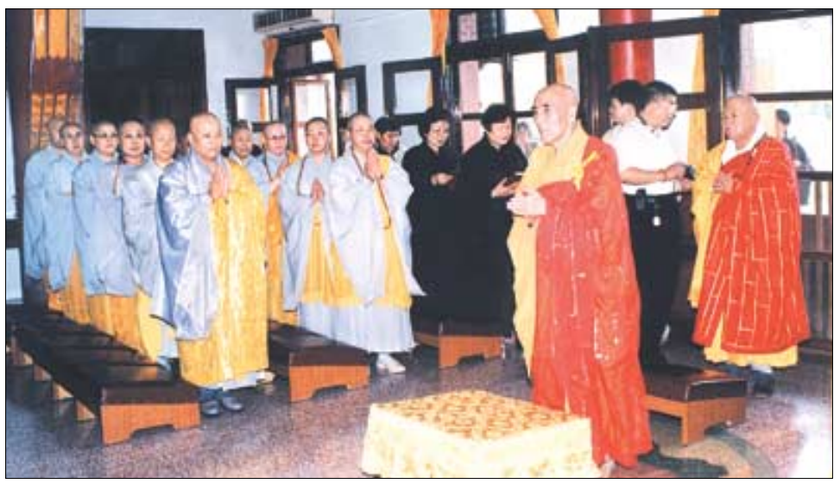
선사들의 입적과 임종게

육신이 불에 타 흙으로 돌아가 근원이 된다.
흙으로 돌아가 나는 다시 돌이 되어 태어나고
혼을 키우는 그릇 속에서 천년을 산다.
죽는 것이 어찌 즐거움이 되겠는가. 삶도 죽음도 적멸이
되어야 즐거움이 되는 것을.
부도는 안으로 적멸을 키우면서 천년을 살고 있다.
-본문 중에서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 전화:(02)313-5047 · 5056 / 팩스 (02)393-9696

“국민과 함께 세계로 가는 종단”



◇2002년 7월 대만 복혜사에서 열린 혜삼조사 법맥전수식.

한국불교-종단순례

대한불교 원융종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종단이 16개, ‘법회종’ 5개, ‘관음종’ 3개 등 유사명칭 사용 종단이 대폭 늘어나면서 불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기성 종단들이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2002년 4월 15일 정기총회에서 종단난립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2002년 7월 11일자로 종교법인 인·허가 관련 협조를 정부, 광역시, 도청 등 자치 단체에 요청하여 전통불교의 위상에 걸맞는 종단설립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종단불교의 특성을 지닌 한국불교 종단 가운데 한국불교의 공식 대표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주요 종단 25개를 대상으로 종지, 종풍, 교세 등을 살펴, 종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높여 정법 포교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열독을 바랍니다.

■후원=(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한불교원융종 종지종풍

- 종조 : 태고 보우국사
- 창종 : 1980년 3월 26일
- 소의경전 : 금강경
- 종지: 석가세존의 원융무애(圓融無碍) 사상을 체(體)로 삼고 대승보살행을 용(用)으로 하여 태고(太古) 종조(宗祖)의 종풍을 선양하여 상구보리 하화중생 한다.
- 종통 : 태고 보우국사의 제종포섭(諸宗包攝)에 의한 불법중흥의 원융종풍을 종통으로 삼아 그 법맥(法脈)은 청허(淸虛)와 부휴(浮休)를 거쳐 이후 면면히 계계승승한다.

대한불교원융종 조직

종정 : 영산일공	부종정 : 유념법신
원로원장 : 송산	원로위원 : 선명·효계·벽봉
총무원장 : 법륜	중앙종회 의장 : 성관
중앙비구니회 회장 : 대월	총무원 부원장 : 선진
포교원장 : 체관	문화원장 : 정관
중앙종회 부의장 : 천호·인관	중앙비구니회 부회장 : 선덕
재무부장 : 대월	규정부장 : 석경
사회부장 : 풍원	사업부장 : 체도
인천종무원장 : 법원	충남종무원장 : 체의
전남종무원장 : 진운	부산종무원장 : 대천
경남종무원장 : 은혜	경북종무원장 : 불선
대구종무원장 : 송월	

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704-23
전화 (02)853-0531
팩스 (02)853-0533



◇2000년 3월 27일 서울에서 열린 창종 제 20주년기념 및 나라안정과 국민 화합을 위한 기원대법회 모습.

태고 보우국사 원융무애사상 계승

전신 대한불교원융원…80년 창종

산하 400여 사암, 조직 활성화·복지활동 확대

대한불교원융종(大韓佛敎圓融宗)은 80년 3월 창종 됐다. ‘한국불교에 새로운 종풍을 세우겠다’는 각오와 신념으로 69년 대한불교원융원을 설립한지 11년만의 일이었다. 82년에는 당시 문화공보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원융종의 종조인 태고 보우국사는 중국 임제종 석옥(石屋) 청공(淸珙) 선사의 법맥을 이은 28대손으로, 한국 선불교의 초조(初祖)로 알려져 있다. 특히 태고 스님은 제종포섭(諸宗包攝)과 원융무애(圓融無碍) 사상을 바탕으로 9개로 나뉘어 있던 선문구산(禪門九山)을 일문(一門)으로 통합하고자 노력했다. 원융종은 이러한 태고 스님의 사상을 오늘날의 한국불교에 뿌리내리고자 맺어진 결사라 할 수 있다.

원융종에는 400여 소속 사암을 7개 종무원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서울 구로2동 원융사는 종단의 총본산이면서 종정 일공 스님이 주석하는 사찰이다. 또 총무원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도 이 곳에 두어 종무행정을 관장하고 있다.

그동안 원융종은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 불교와의 교류를 통해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앞장서 왔을 뿐만 아니라 매년 ‘나라안정과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법회’를 열어 국민과 함께 하는 종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또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대한불교종단진흥회, 대한불교종정협의회 등의 협의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것은 물론, 국가적인 행사 때마다 성공적인 개최를 발원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에는 위기 극복을 기원하는 호국불교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다.

원융종은 이같은 전통을 계승하면서 향후 내적으로는 종도들을 결속하고 외적으로는 사회적 역할을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종단의 교육체계를 바로 세워 소속 사암과 종도들의 소속감·애종심을 심어주는 한편, 지방종무원, 중앙비구니회 등 산하 조직의 활성화와 소속 사암별 사회복지활동의 참여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한 종정 일공 스님과 총무원장 법륜 스님을 중심으로 종단의 기강을 바로 잡고 승풍을 진작함으로써 21세기 선진종단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회 혼란 치유하는 종교돼야

융화정신이 행복한 삶의 열쇠

종정 영산 일공 대종사



원융종 창종과 더불어 총무원장을 지내고 제3세 종정에 오른 영산 일공(靈山 一空) 대종사. 스님은 태고 보우국사의 원융회통 사상을 오늘날 사회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한다.

“요즈음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종교 갈등, 정치적 혼란, 경제 위기 등은 중심을 잡아주는 구심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 불교가 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태고 스님의 원융무애 사상은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공 스님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종단이 부지기수로 늘어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불교에서도 원융사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불교로부터 질서를 회복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 사회가 바로 선다는 것이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종단들이 많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종단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을 근간으로 하는 종단이라면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소의경전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다지만, 궁극에 있어서는 부처님법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찾아오는 모든 불자들에게 불교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을 당부한다. 신앙이 생활 속에 구현될 때라야 진정한 불자가 된다는 가르침이다. 또 스님은 불자들도 포교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믿음이 자신 한사람에 한정되면 이미 종교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나와 남이 잘 살자고 하는게 종교거든요. 자신의 믿음을 가족에게 나아가 이웃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와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1931년 태어난 일공 스님은 예산 수덕사에서 만공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이래 합천 해인사, 서울 대성암, 동두천 광덕사 등지에서 수행에 매진했다. 원융종 창종 당시부터 97년까지 총무원장을 역임한 데 이어 97년 제3세 종정에 추대됐다.

종도가 자부심 갖도록 종단변화 유도

내년부터 사찰 재등록·승려 분한신고

총무원장 법륜 스님



“종단의 발전은 종도들의 애종심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따라서 종도들이 종단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종단을 변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원융종 제7대 총무원장 법륜(法輪) 스님은 이같은 새해 종단 운영 계획을 밝히고, “교육체계를 바로 세우고 종도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총본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량을 건립해 교육, 수행, 종무행정 등을 총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법륜 스님은 기존의 교육시스템의 전면적인 수정을 비롯해 교육 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법륜 스님은 “힘 있는 종단,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종단이 되기 위해서는 종단과 지역사찰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종무, 교육, 사회복지 등 각 분야에 걸쳐 7개 지방종무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중앙비구니회 등 산하조직의 활성화를 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작지만 강한 종단’으로 변모시켜 한국불교와 사회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스님은 “주지총회에도 한번 참석하지 않고 분담금도 납부하지 않는 사찰은 이제 더 이상 종단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2004년부터 종단 소속 사찰의 재등록 및 승려 분한신고 등을 통해 종단발전과 종무행정에 참여할 뜻이 있는 사찰과 종도만 엄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종단 불자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모든 소속 사찰이 한가지씩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에서 적극 장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개통,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 종무행정의 정보화를 통해 ‘작지만 강한 종단’ 만들기에 진력할 예정이다.

법륜 스님은 원융종 총무부장, 총무원 부원장을 거쳐 98년 제6대 총무원장을 역임했으며, 2002년 제7대 총무원장에 재선돼 종단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원융종 총본산인 원융사 창건 낙성법회.



찬불동요 뮤지션
이종만·정유탁

들어서 즐겁고 불러서 신나는 풍경소리





찬불동요 황무지속
어린이 포교위해 출발
재정 악화때
스님들 도움으로 재기
천여 홈피 회원,
3백여 후원회원
든든한 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찬불가 보급위해 노력

데뷔 8년차, 그동안 발매한 앨범만도 17장, 수록곡 300여곡…. 어린이를 위한 찬불동요에 전력을 쏟아온 '좋은 벗 풍경소리', 이종만(45) 씨와 정유탁(31)씨. 웬만한 기성가수에도 뒤지지 않는 뮤지션들이다.

1980년대 초, 조계사 어린이 법회에서 지도교사와 초등학생 불자로 만났던 두 사람의 인연은 '불교'와 '음악'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꾸준히 이어졌다. 그리고 이 인연으로 1994년, 어린이 찬불동요를 정립, 발전시키겠다는 발원을 담은 풍경소리가 탄생됐다. 당시 어린이 포교에 대한 중요성은 부각됐지만, 찬불동요 분야는 말 그대로 황무지나 다름없었다. 풍경소리의 출발과 함께 어렵게 발심해 어린이 포교에 뛰어든 두 사람의 고행도 시작됐다.

"건물 임대료는 고사하고 사무실 운영비, 앨범 작업비가 정말 한 푼도 없었어요. 하지만 앨범은 빚에 쫓기면서도 매년 빠짐없이 발매되더라고요."(정유탁)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니까 음반작업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 떠난 이들도 많아요. 끝까지 버티고 있는 유탁 씨나 제가 미련한거죠(웃음)."(이종만)

제대로 된 후원 없이 근근이 버텨오던 풍경소리의 살림은 10집을 만들던 지난 2000년,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두 사람이 '이제 그만두자'고 허탈한 결심을 한 찰나, 운문사에서 연락이 왔다. 풍경소리의 딱한 처지를 전해들은 당시 학인 스님들끼리 푼푼이 거둬 500만원의 후원금을 내놓은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현 풍경소리 총재), 덕신 스님(풍경소리 2대 회장) 등 뜻있는 스님들이 '풍경소리를 살려보자'고 뛰어들었다. 풍경소리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정말 감사해야 할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과의 인연은 어린이 포교를 위한 음악활동을 계속하라는 부처님의 가피로 느껴집니다."(이종만)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의 1천여 회원과 후원회원 3백여 명은 풍경소리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고 있다. 지난 12월 12일에는 2001년 1권에 이어 11집에서 16집까지의 노래를 모은 <악보모음집 2>의 출판기념회 겸 후원의 밤도 가졌다.

"1집, 2집 때 노래했던 코흘리개 꼬마 풍경들이 벌써 대학생들이 된 모습을 보면 정말 감회가 새롭죠. 어린이 불교학교에서 아이들이 재잘재잘 풍경소리의 노래를 합창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힘이 됩니다."(정유탁)

그동안 수차례 어려운 고비를 넘겨왔지만 풍경소리가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오늘은 좋은 날', '길 떠나자' 처럼 듣기 편하고 따라 부르기 쉬운 대중적인 찬불가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즐길 수 있는 찬불가를 만들어야지요. 이웃종교처럼 젊은이들이 일반 음반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세련된 앨범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풍경소리가 반드시 자생력을 갖춰야 하고요."(이종만)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찬불가와 어린이 불자를 위한 신심 하나만으로 달려온 풍경소리. 이들은 앞으로도 변치 않는 음성공양으로 자신들을 기다려준 불자들에게 화답할 것이다. 이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아닐까.

후원계좌 (농협, 예금주: 풍경소리) 053-02-111616, 문의전화 (02)723-9836

글=한상희 기자 · 사진 고영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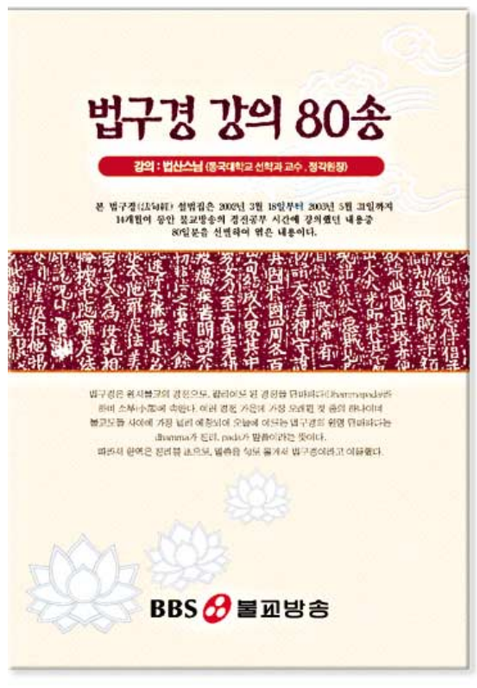


법구경 강의 80송

불교방송에서는 동국대 교수, 법산스님의 설법집《법구경 강의 80송》을 테이프로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현실 속 현대인들의 마음에 한구절의 시처럼 쉽게 다가오는 법구경을,
법산스님은 알기쉬운 생활방편을 곁들여 불교를 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잔잔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어라.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어라.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 길거니
그는 바른 법을 모르기 때문일세.
- 법구경 우암품



구입문의 불교방송 포교자료팀
전 화 (02)706-3502~5
가 격 70,000원(C70×20EA)

BBS 불교방송
서울FM101.9MHz · 부산FM89.9MHz · 광주FM89.7MHz · 대구FM94.5MHz · 청주FM96.7MHz · 춘천FM100.1MHz

릴레이 수행일기 〈上〉



강경숙

경북과학고 교사

밝은 햇살이 반가운 아침이다. 계절은 어김없어 거리에는 어느새 잎새를 떨군 앙상한 가로수가 을씨년스럽지만 아이들은 언제나처럼 귀여운 엉덩이를 씰룩거리며 학교로 향한다. 모두 제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하면서도 이렇게 아늑한 평온함을 찾기까지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돌아왔던가.

우곡선원에서 지난 몇 개월

스승없이 6년간 공부…한계 느껴

우곡선원서 참선 배우며 조금씩 눈 떠

동안 무엇을 배웠는가 묻는다면 나는 '단순함 속에 깃든 자유'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사실 이 말은 너무나 간단하지만 단순함의 의미를 절실히 알기까지, 지난 세월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내 자신을 속박하며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은 손수건을 적셨는지 모른다.

한 때 나는 6년 동안 새벽 2시 반에 일어나 아침 6시 반까지 마음공부를 하였다. 명절은 물론이고 세계 20여 개국을 여행하는 소중한 기회에도 이국의 정경을 보기보다 고개 숙여 경전을 읽으며 나의 신심을 과시(?)했었다. 잠을 쫓아가며 새벽 공부를 하고 복은 지혜가 바탕이라는 말을 따라 육신을 돌보지 않고 부처님을 향해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였다.

신(身), 구(口), 의(意) 삼업을 가다듬고 선행(善行)을 하려 애쓰며, 가르침을 따라 좋다는 것은 다하겠다는 서원으로 열정을 다 쏟았지만 진즉 마음자리는 갈수록 쭈그러들기만 하였다. 마음은 한없이 조급한데 아무런 진전도 없이 이대로 이생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조바심이 가슴을 억누르고 있었다.

어쩌면 악착스러울 만큼 마음공부에 혼신을 다 기울였는데도 그때는 부처님 법이 빌고 구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 조차도 몰랐으며, 성주괴공하는 자연의 섭리를 깨치는 것이 바로 모든 집착을 놓는 지름길인 것 쯤은 꿈에도 몰랐다. 그저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바쁘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하면서 세월만 흘려보내었다. 이렇게 안타까운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넘쳐나고 부족한 부분을 조정해주고 경계에 달라붙는 마음을 풀어 줄 수 있는 스승인연의 부재였다고 말하고 싶다. 선지식 인연이 없다면 그 끈끈한 습기를 어떻게 혼자 힘으로 떨쳐낼 수 있을까? 고개가 가로로 저어진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이고, 결정을 하고 나서도 잘했는지 못했는지 의심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비록 빈틈없이 잘 하려는 의도였으나 그것은 결국 시간의 낭비였고, 그 틈새에 온전한 내가 있을 수 없었다. 금강경을 6년 동안 읽으며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을 내 안에 끌어다 쓰지 못하고 그저 많이 읽으면 좋다는 식의 구불타령만 하고 있었으니, 그런 내가 말법시대의 표본이 아니었던가 싶다.

아직까지 배운 것을 서툴게 내 삶에 비추어 쓰지만 우곡선원에서 참선공부를 하며 나는 새롭게 태어난 기분이다. 당면한 일을 두고 버릇처럼 하던 앞생각 뒷생각이 줄고, 필요하다면 그냥 함을 원칙으로 삼는 단순함이 주는 편리함을 맘껏 누린다. (계속)



◇91년부터 관음대참회 수련회를 열어 참회수행법을 보급해온 정연스님과 수련생들의 정진 모습.

참회없는 수행은 없다



정연스님의 참회수행

"업식 녹여야 깨달음의 길 열리죠"

참회 · 지혜 · 자비 주제법회 상설

"불공합니다."

12월 16일 조계사 극락전. 조계사청년회의 수행법대강좌 결제 중 '참회(懺悔) 수행법'에 대해 법문하기 위해 등단한 나주 불회사(www.bulhoesa.or) 주지 정연 스님은 '불공합니다'라는 낯선 인사말로 말문을 열었다. '첫 만남의 인연, 모든 중생을 부처님으로 공경합니다'란 뜻을 가진 정연 스님의 인사말에 참회 수행법의 요지가 들어 있는 듯 했다.

"참회 없는 수행이나 참된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연 스님은 지난 91년 관음대참회 수련원을 개원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법문을 시작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거나 발심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참회 수련원을 열었지요. 수행은 참회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참회를 통해 근본 무명 즉 업식(業識)이 녹아야만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정연 스님이 참회수련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된 것은 94년부터 3년간 근본불교를 접하면서부터다. 인도와 동남아 불교국가의 수행법을 체험하면서 참회를 강조하는 우리 불교가 어느 곳보다 좋은 이념체계와 수행환경 속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 97년부터 다시 수련원을 연 정연 스님은 '성찰,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일구는 법회'란 기조아래 세 가지 법회를 상설화 했다.

매월 음력 초하루부터 초삼일까지 참회기도하는 '참회발원 법회', 매월 음력15일 경전과 교리를 배우는 '지혜밝힘 법회', 매월 음력 24일(관음재일) 어려운 이웃에게 보시행하는 '자비실천 법회' 등이다. 특히 관음재일에 나주 영산포에 있는 중증장애자 시설인 계산원에 가서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간식을 함께 나누는 자비실천 법회는 참회발원의 사회적 회향의 모델이 될만하다.

정연 스님은 "며칠간의 참회수련회나 정기 법회를 통해 신(信) 해(解) 행(行) 증(證)을 체험한 불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회와 발원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며 일상속의 참회수행을 권했다. 정연 스님의 참회 수행법을 통해 참회하고 발원하는 송구영신을 맞는 것은 어떨까.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사참과 이참

▶'참(懺)'이 자기 행위를 반성하는 것이라면, '회(悔)'는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다짐, 곧 발원(發願)이다. 그리고 이 발원을 실천하는 것이 곧 수행이다. 천태지자 대사는 참회를 크게 이참(理懺)과 사참(事懺)으로 나누었다. 사참은 예배, 송경 등 신구의(身口意)의 행위로 나타내는 참회로 수사분별(隨事分別) 참회라 하고, 이참은 실상의 이치를 보고 죄를 멸하는 참회로 관찰실상(觀察實相) 참회라고 말한다.

대자대비 구현하는 관음대참회

▶참회수행이란 자기 행위에 대한 성찰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특히 관음대참회(觀音大懺悔)란 관음의 위신력에 가피를 빌어 수행에 퇴굴심을 극복하고 나아가 관음보살이 표방하는 대자대비의 절대사랑을 구현하려는 수행이다. 이 참회는 조석으로 부처님 전에서 십악참회문(十惡懺悔文)을 중심으로 한 <관음대참회의(儀)>를 읽고 참회하는 것이다. 여기서 10악은 살생(殺生) 투도(偸盜, 도둑질) 사행(邪行, 삿된 행) 망어(妄語, 거짓말) 양구(兩口, 이간질하는 말) 악구(惡口, 나쁜 말) 기어(綺語, 꾸미는 말) 탐애(貪愛) 진에(瞋恚,성냄) 치암(癡暗, 어리석음) 등이다. 참회 기도전에 먼저 스스로의 마음을 굳게 다지고 외부의 인연도 쉬어야 하며, 도량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일념이 돼야 한다.

무상참회가 이참(理懺)

▶"죄는 본래 성품이 없어 마음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멸할 때 죄 또한 사라진다. 죄도 사라지고 마음도 사라져 둘다 공하면 이것을 참다운 참회라고 한다."(참회게)

이참은 이와 같이 죄의 실체가 없음을 바로 알아 우리의 자성을 밝히는 것으로 참선 등과 같은 여러 수행법이 여기에 속한다. 정연 스님은 이참의 한 방법으로 무상(無常)참회를 권한다.

지식(止息)→지각(知覺)→관심(觀心) 참회

▶먼저 편안하게 자리를 잡는다. 좌선의 자세로 앉았다면 생각을 아랫배에 둔다. 그리고 오르고 내리는 배를 집중하며 오를 때에는 '무상(無常)'이라는 단어를 배에 붙여 함께 하고, 배가 내려갈 때는 '타~'라는 단어와 함께 한다. 여기서 '무상타~'와 함께 배의 오르고 내림을 끊임없이 알아차리는 것이 곧 지식(止息)참회다. 이어서 지식참회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느낌(감각)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이 지각(知覺)참회이다. 이렇게 지식참회와 지각참회를 오래하다보면 다리와 허리가 아프고 불편한 데가 생기면 마음이 전점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이 불편한 마음을 살피는 것이 곧 관심(觀心)참회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이 무상참회(無常懺悔)이다.

끊임없는 정진과 평심(平心)이 중요

▶무상참회의 요체는 끊임없는 정진과 평심(平心)을 유지하는 것이다. 즉 수행과정에서 나쁜 마음이든 좋은 마음이든 감정의 변화에 끌려가지 않아야 한다. 늘 여일(如一)한 마음으로 다만 알아차리는 것이 곧 평심인 것이다.

서울 보림회 동계 철야정진 개최

재가 선수행단체인 보림회(회장 장백기, www.borim.co.kr)는 서울 및 부산 보림선원에서 제60회 동계 철야정진법회를 개최한다.

서울 보림선원에서는 12월 27일(토) 오후 8시부터 2004년 1월2일까지(1주일간), 산청 보림선원에서는 12월 31일(수) 오후 6시부터 2004 년 1월 4일(일) 정오(5일동안)까지 각각 진행된다. 교재는 금강경 및 유마경이며, 1박2일 참여도 가능하다. (02)914-6187, (055)972-9555

제주 원명선원 삼매체험 수련회

제주 원명선원(선원장 대효스님, www.wmsonwon.net)은 12월 24~28일, 12월 31일~내년 1월 4일, 삼매체험 선수련회를 연다.

5일간 진행되는 삼매체험 선수련회는 문답식 법문으로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발심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한다. 진취적인 수행관으로 직관수행의 길로 인도하며 동중선(動中禪)으로 바로 들어가는 생활선을 지도한다. 중도와 공해탈, 열반, 깨달음, 연기 등을 스스로 해득하도록 돕는다. (064)755-3322

서울 보리수선원 위빠사나 집중 수행

서울 보리수선원(www.borisu.or.kr)은 연말연시에 초보자 및 경험자를 위한 위빠사나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매일 오전 11시~오후 3시, 저녁 7시30분~9시30분에 각각 진행되는 초보자 수행은 12월 29일~내년 1월 2일, 1월 5~9일, 1월 12~16일, 1월 19~23일, 1월 26~30일 각각 열린다. 경험자를 위한 집중수행은 내년 1월 10~17일, 1월 17~24일, 1월 24~31일 각각 진행된다. (02)517-2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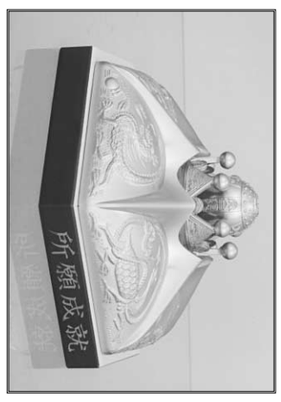
무심선원 반야심경 특강

부산 무심선원(www.mindfree.net) 김태완 원장은 1~2월 두달간 매주 월 · 화요일 오전 11시~12시, 저녁 7시30분~8시30분에 '선(禪)에서 본 반야심경' 겨울 특강을 실시한다. (051) 515-7226

대학생 위빠사나 마음수련회

'근본불교 상그하(www.bodh.net)'는 2004년 1월 9~18일 김해시 다보선원에서 대학생 위빠사나 수련회를 연다. (011)9557-8730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신비의 생氣 부적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결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당어리 복당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항금궁으로 변합니다.

기도처 자연속에 보금자리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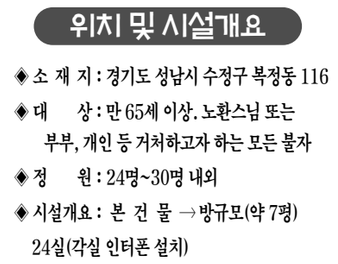


위치 및 시설개요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정 원 : 24명~30명 내외
◆시설개요 : 본 건 물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 · 미용실, 식당, 오락실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 · 식 · 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불교의식(범음 범패) 수련생 모집

본 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 범패)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합니다.

● 수련과정 : 특별속성반 3개월 과정 (제16기)
● 교육방법 : ① 출강 … 매주 화요일 · 목요일 오후 6시~8시(2시간)
②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송
● 교육내용
① 송주편(도량석 · 조석종성 등)
② 예경편(상단예불·조석예불·각단예불·향수해례·사성례·신중단 등)
③ 헌공편(삼보통청 · 중단퇴공 · 불공시식 · 관음 · 지장 · 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천도재 · 49재 · 시다림 · 기제사 · 명절제사 · 방생의식 등)
⑤ 시식편(관음시식 · 화엄시식 · 구병시식 등)
● 접수방법 : 전화 접수 후 서류제출 (현재 접수중)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초본 1통
● 개강일시 : 1월 8일 (목) 오후 6시, 본대학 강의실(목탁, 필기구 지참)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지도와 편의 제공
• 실제로 법회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한국불교법사대학 부설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http://pubsa.buddhism.org

봉사는 나의 수행

"뭐든지 한다 어디든 간다"

바라밀현장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봉사단



◇ 불기닦기 삼매에 빠진 관음사 봉사단원들.

"어느 영역, 무슨 일이든지 한 가지 봉사에는 반드시 참여한다"

'1인 1봉사' 운동을 제창하며 2003년 불교계 자원봉사를 거침없이 이끌어 온 봉사단이 있다. 대구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봉사단이 바로 그 단체. 하루 자원봉사 활동 인원이 무려 1500명에 이르는 이 봉사단은 20여개에 이르는 봉사모임을 구성, 대구는 물론 경북 · 경남지역 곳곳을 누비며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고 있다. 특히 봉사단은 정성을 녹인 봉사를 실질적인 포교로 연결시켜 많은 불자들의 발심을 돕기도 했다.

"올해의 염불봉사를 결산해보니 봉사활동 횟수가 200회를 넘어서더군요.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응한다는 생각으로 오로지 염불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상과 봉사가 둘이 아닌 걸 알겠더라구요."

김희길 단장 말대로 연화봉사단은 올해 지하철 방화사건을 계기로 '봉사활동'의 대명사가 됐다. 상주가 원하면 언제 어디든지 찾아가 고인의 극락왕생을 염불로써 빌어주는 사람들. 이들은 지하철 참사 때에도 일상을 접고 시민회관과 지하철역을 오가며 기도와 봉사에 마음을 실었다. 7년이 넘는 봉사를 이어가면서도 매주 장의봉사 교육을 거르지 않는 열정이 녹아 더욱더 빛이 나는 자비행이었다.

대구시의 내로라하는 큰 병원들에 포진돼 있는 병원봉사단의 활약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영남대병원, 대구의료원, 곽병원 등 13개 병원에서 호스피스, 목욕봉사, 병실기도 봉사를 담당하고 있다. 50~60명이 그 많은 활동을 소화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들은 환자의 쾌유를 비는 일념기도와 함께 매년 3,000권에 이르는 불서 보시까지 하고 있다. 또, 150시간에 이르는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문 간병인 못지않은 전문성을 보인 불교간병인회 회원들 역시 지체부자유자 목욕봉사 등의 꾸준한 활동을 꾸리는 중이다.

1500명 회원 '1인 1봉사' 운동
지하철 참사 때 염불 기도 빛나
장의·목욕봉사 등 전문성 겸비

봉사활동은 산문 안에서도 이어졌다. 탄탄한 교리공부로 기본을 익힌 이들은 생활 속 작은 실천의 귀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불기닦기 봉사단은 크고 작은 사찰 10여 곳을 순례하며 불기닦기 봉사를 벌였다. 관음사를 비롯한 은해사, 해인사, 홍제암의 촛대와 향로 등은 모두 이들의 손길과 정성이 녹아든 불구(佛具)들이다. 이들은 마음의 번뇌를 털어내듯 수년째 한 마음 보시를 실천한다.

색다른 봉사도 있다. 불교대학의 '인드라망' 동호회에서는 기자단을 주축으로 불교뉴스를 생산한다. 신도 기자단이 직접 취재 · 기사화하는 뉴스는 관음사 소식뿐만 아니라 지역불교의 현황 등을 현장감 있게 다뤄, 불자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재미를 선사한다는 평을 듣는다.

이 밖에도 교도소 봉사단은 이미 십 수년 째 화원교도소를 찾아 교리 및 찬불가 지도를 맡고 있으며, 군부대 봉사단은 수시로 50사단을 찾아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와 상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대구보건대와 협력해 대규모 무료 진료를 펼치는 '사랑의 혜민서' 사업 역시 매달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지난해에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좋은 인연'을 통해 불우이웃을 위한 밑반찬 제공과 무료급식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들은 음식공양과 함께 음성공양 혹은 선무(禪舞)공연 등을 선보여 불교문화 보급에도 일익을 담당한다.

실천의 상징 '보현보살'을 닮은 영남불교대학 봉사단. 몸을 아끼지 않고 하루하루 바라밀 실천에 발을 내딛는 이들이 있었기에, 불자들의 2003년 한 해도 부처님 법 안에서 회향할 수 있지 않을까.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눈높이 법회'가 통했네요

요양원 어르신 20명 수계
이색 찬불가로 종교 화합



◇시립요양원 수계법회에서 지련 스님이 어르신에게 수계증과 염주를 건네주고 있다.

"아기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만큼 어르신들께 부처님 마음 역시 전하고 싶었습니다"

12월 13일 서울시립요양원에서는 종교가 다른 20여 명의 요양원 어르신들이 수계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매주 토요일마다 요양원을 찾아 법회를 이끌어 오던 관음사 지련스님과 4명의 법회도우미 자원봉사자들이 마련한 자리다. 종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1년간 법회에 참석해 불법을 함께 나눈 어르신들을 위해 이들은 수계 법회를 계획했다.

"1년 전 법회를 처음 열었을 때 요양원의 불자는 단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눈높이도 고려하는 동시에 타종교인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법회를 생각해야 했지요. 간단하지 않은 법회였지만 오늘 20명의 수계자를 낳게 돼서 기쁩니다."

1명을 20명으로 늘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법회 봉사자들은 '즐거운 법회'를 위해 묘안들을 짜냈다. 그 가운데 가장 흡입력 있었던 것은 바로 '이색 찬불가' 포교. 이들은 아리랑 가락에 찬불가 가사를 입혀 놀이하듯 음성공양에 몰입했다. 그러던 와중에 교회에 다니던 어르신, 세례를 받은 어르신 할 것 없이 부처님 말씀에 쉽게 가까워질 수 있었다.

요양원의 한 수계자는 "한 해를 마감하는 법회에서 다양한 종교인의 화합을 보는 것 같아 기쁘다"며 "힘들게 시작한 법회를 다양하고 내실있게 이끌어준 봉사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강신재 기자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자용(慈容) 스님 (上)

세간과 함께 하는 '인간불교' 실천

대만 타이페이의 국부기념관(國父紀念館)에서는 매년 수많은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불광산 성운 대사의 불학강좌가 열린다. 1965년도부터 시작된 이 불학강좌는 1967년부터 중국의 국부인 손문 선생을 기념해서 세운 국부기념관에서 매년 대규모로 개최되었다.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 황색과 흑색의 가사를 수한 스님들이 무대의 양쪽을 채운 가운데, 장대한 의식에 따라 향과 꽃이 불전에 바쳐지고 나면 성운 대사가 등장해 대중을 향한 법문을 시작한다.

이 불학강좌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강연장의 분위기에 압도되면서 성운 대사의 강연에 감동된다. 이 불학강좌는 불광산의 역량을 한눈에 평가할 수 있는 법회로서,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 거대한 행사를 누가 기획하고 진행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기 마련이다.



◇ 대만의 불교 케이블 TV인 '인간위성TV' 사장 자용 스님.

능숙한 행사 기획력, 자비로움 겸비
불광도량 건립과 복지 사업에 앞장

이 불학강좌를 비롯해 막후에서 보이지 않게 불광산의 위용을 드러내는 주인공이 바로 자용 스님이다. 1936년 대만 이란(宜蘭)에서 태어난 자용 스님은 현재 국제불광회 세계총회비서장과 불광산 신도대학 학장이며 <인간 위성TV>의 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자용 스님을 만나는 이들은 대형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능숙함에 놀라기도 하지만, 환갑을 넘긴 세수에도 깨끗하고 수려한 용모를 지닌 채 친절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 데 감복하게 된다.

자용 스님은 성운 대사의 유명한 제자들인 자장(慈莊), 자혜(慈慧), 자가(慈嘉), 심평(心平) 스님 등과 같은 고향 출신으로서 속성은 오(吳) 씨이다. 어려서부터 개성이 강하고 주관이 뚜렷했으며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뛰어났다. 또한 초등학교 시절부터 온갖 행사를 주도했으며 학교를 대표해 무용, 체육, 웅변 등의 전국대회 등에 참가하기도 했다. 부모가 18세 때 이란의 뇌음사(雷音寺)에 데려간 것이 인연이 되어 불교청년회의 합창단과 독서회 등에 가입하게 되었고, 다음 해에 성운 대사를 따라 대장경 영인(大藏經影印) 홍보를 위해 전국일주를 했다.

원래는 동문 사형인 자장, 자혜, 자가 스님들 보다 먼저 출가하려 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늦어졌다. 특히 자장 스님과는 같은 날 출가하기로 약속까지 했으나 가족을 설득하느라 5년이 지난 뒤에야 출가하게 되었다. 주관이 뚜렷하고 영민했던 자용 스님은 그 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난 어려서부터 운명에 순응하는 여자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인생을 살고 싶었죠. 고등교육을 받고 이상을 크게 품은 여자라도 일단 결혼하게 되면 교육도 소용없고 꿈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바에는 출가하여 걸림 없이 살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굳힌 자용 스님은 내색을 하지 않고 불교를 공부하면서 한편으로는 뇌음사 유치원에서 일을 하며 서서히 가족들의 양해를 구했다. 그러다가 인연이 무르익어 1969년, 드디어 불광산에서 득도함으로써 오랫동안의 소원을 이루었다.

불광사가 창건된 지 몇 년 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성운 대사는 자용 스님을 일본의 교토불교대학에 유학시켜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했으며 주로 청소년문제에 대해 연구하도록 했다.

'불법은 세간을 떠나지 않는다'는 인간불교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준비과정이었다.(계속)

김재경 기자

불교성지순례
15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곳!! 인도
실크로드와 함께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성지순례 10일(불교8대성지) 1,890,000원
▶일 정 : 델리-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 고향)-룸비니(탄생지)-쿠시나가르(열반지)-바이샬리(유마경설법지)-나란다대학-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죽림정사)-보드가야(성도지)-바라나시(갠지스강,초전법륜지 녹야원)-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아그라(타지마할,아그라성)-델리
▶출발일 : 2월 10일

인도, 네팔성지순례 15일(불교8대성지와 아잔타석굴) 2,570,000원
▶일 정 : 룸바이-엘로라석굴-아잔타석굴(세계불교미술의 보고)-산치대탑(아쇼카대왕의 걸작)-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바라나시(갠지스강, 초전법륜지 녹야원)-보드가야(성도지)-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 영축산, 죽림정사)-나란다대학-바이샬리(유마경설법지)-쿠시나가르(열반지)-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고향)-네팔국경통과-룸비니(탄생지)-포카라(안나푸르나등 히말라야설산)-카투만두
▶출발일 : 2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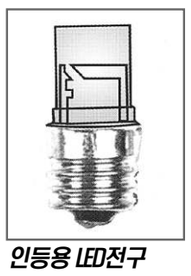
인도문화탐방 10일 (인도의 문화유적을 찾아서) 1,990,000원
▶일 정 : 델리-자이푸르(라자스탄사막지방 핑크빛 고도)-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카쥬라호(힌두조각 예술의 극치)-알라하바드-바라나시(갠지스강, 녹야원)-델리(국립박물관)
▶출발일 : 2월 12일

미얀마 성지순례 6일 1,590,000원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양곤 ※ 2월 10일 출발

중국불교 4대 명산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항주 5일 850,000원
▶관음도량 보타산, 항주, 상해 5일 790,000원
▶구화산, 보타산, 황산, 영파, 상해 8일 1,150,000원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성도 5일 850,000원
※ 10명이상 매일 출발 가능

인등 연등 전구의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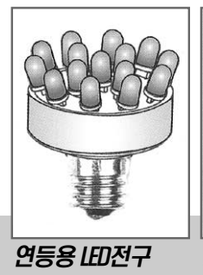
귀의삼보하옵고 불자기업 기보전자산업에서는 기존의 인등전구와 연등전구의 단점(짧은수명, 고유지비, 화재위험, 낮은견고성)을 보완하여 사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교체로 유지보수가 필요없는 반영구적인 인등 연등용 LED전구로 바꾸어보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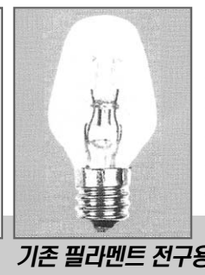

인등용 LED전구


기존 필라멘트 전구용 인등

특징
● 기존 설비에 전구만 교체 사용 가능하를 비용이 절감 됩니다.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수명이 반영구적 입니다.
● 발광 효율이 높고 소비전력이 낮아 유지 관리비가 감소 합니다.
● 반도체로 되어 있어 가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 전구 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습니다.


실용신안등록증


연등용 LED전구


기존 필라멘트 전구용 연등

특징
● 일반 소켓 220용에 다용도로 사용할수있습니다.
● 별도 전선 교체없이 전구 교체 가능합니다.
● 기존의 전구 소켓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 안정된 전원을 공급 할 수 있습니다.
● 더 방향으로 빛을 조명 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증

제품문의처
황금 LED 조명 - 기보전자산업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73(세운상가 가동 가열 특 3호)
TEL : 02)2266-9098,7550 FAX : 02)2266-7557 www.kibosa.com E-mail : kibosa@kornet.net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50〉



바산바연저 주야신의 법문

온갖 광명되어 중생의 번뇌 소멸
보살행으로 공덕 싹 틔우는 법문

선재동자가 다음으로 찾아가는 선지식은 염부제 마갈제국의 가비라성에 있는 바산바연저(婆珊婆演底)라고 하는 주야신(主夜神: 밤을 맡은 신)이다. 성의 동문으로 들어가니 바로 해가 넘어가서 그 주야신이 허공에 있는 보배누각의 향련화장(香蓮華藏) 사자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몸은 금빛이며 용모가 단정하며 보배영락으로 몸을 장엄하고 머리에는 범천관을 쓰고 있었으며, 그 몸에서는 수많은 별들이 빛을 반짝거리고 있었다. 몸의 털구멍마다 무량한 악도(惡道)의 중생들을 제도하여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 중생들이 인간세상 또는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며, 이승(二乘)의 깨달음으로 향해 가기도 하고 온갖 지혜(一切智)의 길을 닦기도 하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또한 털구멍마다 갖가지로 교화하는 방편을 보이는데, 여러가지 모습과 법으로써 중생을 성숙케 하고 있었다. 선재동자는 주야신에게 엎드려 절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저는 선지식을 의지하여 여래의 공덕과 법장을 보호하려 하오니 부디 저에게 온갖 지혜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 길로 행하여 열 가지 힘(十力)의 지위에 이르고자 합니다."

그때 그 주야신이 선재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이 모든 중생의 어리석은 어둠을 깨뜨리는 법광명의 해탈'을 얻었다. 나는 나쁜 꾀를 가진 중생에게는 크게 인자한 마음을 일으키고, 착하지 못한 업을 짓는 중생에게는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고, 착한 업을 짓는 중생에게는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착하고 나쁜 두 가지 행을 하는 중생에게는 둘이 아닌 마음을 일으킨다. 잡되고 물든 중생에게는 깨끗함을 내게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삿된 길로 가는 중생에게는 바른 행을 내게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용렬한 이해를 가진 중생에게는 큰 이해를 내게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생사를 좋아하는 중생에게는 윤회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승(二乘)의 길에 머문 중생에게는 온갖 지혜에 머물게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선남자여, 나는 이 해탈을 얻었으므로 항상 이런 마음과 서로 응하고 있다."

주야신은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한 중생들의 갖가지 고난을 구제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설한다. 밤이 깊어 인적이 드물고 귀신과 도둑과 나쁜 중생들이 쏘다닐 때나, 날씨가 나빠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울 때에 중생들이 바다에 들어가거나 육지에 다니거나 산림 속 등의 험난한 곳에서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갖가지 방편으로 구제해 주면서 항상 그들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기원한다.

또한 중생들이 캄캄한 밤에 무서운 일을 당했을 적에는 해와 달 · 별 · 새벽 여명 · 저녁 번개 등 갖가지 광명이 되어 위태로운 액난을 면하게 하면서 중생들이 모든 번뇌의 어두움을 없애게 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중생들이 삿된 소견에 빠져 있거나 애욕의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 법을 설하여 법에 만족하며 법에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면서, 그들이 지혜의 광명으로 중생의 캄캄한 무명을 깨뜨리고 빨리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게 되기를 기원한다.

또한 발심한 뒤에는 보현의 법을 보여주고 열 가지 힘을 일러주며, 여래 법왕의 경계를 보이고 부처님의 온갖 지혜의 성을 보이며, 부처님의 수행과 부처님의 자재와 부처님의 성취와 부처님의 다라니와 모든 부처님의 한결같은 몸과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곳을 보여서 그들을 편안히 머물게 한다.

법문을 설하고 있는 주야신의 명칭인 '바산바연저'는 봄에 나오는 모든 싹을 담당한다고 하는 의미이다. 이것은 이 주야신이 설하고 있는 법문이 보살 만행의 싹을 틔우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 주야신을 포함하여 이어서 등장하게 되는 아홉 명의 주야신이 범본(梵本)에 의하면 모두 여신(女神)으로 되어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여신(女神)은 자비의 모습을 표방한 것으로서 세속에 들어가서 대자비를 오래도록 양육하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여성으로 나타낸 것이다. 묘한 지혜로써 세속에 들어가서 자유자재하게 통하기 때문에 천신(天神)이고, 세간의 어두움의 세계에 들어가 법의 광명을 비추어 일체 중생의 무명을 타파하기 때문에 야천(夜天)으로 나타낸 것이다.

바산바연저 주야신이 설하고 있는 법문은 선재동자가 여래의 공덕과 법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지혜에 이르는 길을 배우고 행하여 부처님이 갖추고 계신 십력(十力)의 지위에 이를 수 있는 법을 물을 것에 대한 대답이다. 그러므로 이 법문은 보살행을 통해서 부처님의 공덕과 능력을 싹틔우는 법을 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식이 머무르고 있는 곳도 부처님이 태어난 가비라성인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선의 세계 ㉔



견성성불(見性成佛)-11

전회의 글에서, 나와 부처 사이에 간격을 두고 지금의 나는 부처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 최후의 망상이라고 했다. 제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고 추스려서 뭇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흔히 발동하는 거친 망념망상을 다 가라앉혔다고 해도, 나는 아직 부처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만은 참으로 떨치기 어렵다.

선사들의 법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문제를 망념망상으로 수렴시켜서 이야기를 한다. 앞에서도 몇 번 언급했듯이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전제를 내세우고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그런데도 중생은 공연히 스스로 망념을 일으켜서 시끄럽게 괴로움을 일으키며 산다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것이 물과 바람의 비유이다. 중생의 본래 마음자리는 완벽하게 잔잔한 물과 같다. 이국의 풍경 사진에서 가끔 보는 잔잔한 호수를 떠올려 보시라. 수면이 거울과 같아서 주변의 온갖 풍경이 그대로 비친다. 하늘, 구름, 산, 나무가 각자 그 모습 그대로 비친다. 그런데 바람이 한줄기 불어오면 물결이 치고 수면은 이제 더 이상 거울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물은 중생에 해당하고 바람은 무명(無明)에, 그리고 물결은 망념망상에 해당한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중생과 부처의 불이적(不二的)인 관계이다. 물결이 치는 물이 중생이라면 물결 없는 잔잔한 물은 부처이다. 그러나 물이라는 점에서는 둘이 똑같다. 중생과 부처가 본래 같다는 것이다.

'성불'이란 분별도 버려라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다르다. 같은 물이라고 해도 완벽하게 잔잔한 물과 물결이 요동치는 물은 다른 것이다. 완벽하게 잔잔한 물이 모든 것을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비치는 것은 부처의 대원경지(大圓鏡智), 즉 이 세상 전체만큼 크고 굴곡이나 티끌이 조금도 없어 세상 모든 것을 그대로 비치는 거울과도 같은 지혜를 비유한다. 반면에 물결이 일어 주변 풍경을 그대로 비치지 못하고 왜곡시키는 것, 심지어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물결만 소용돌이치는 것은 번뇌망상으로 들끓는 중생의 어리석음을 비유한다. 그런 차이를 보면 중생과 부처는 하나가 아니다(不一).

대승불교, 특히 선종에서는 그 양면을 한꺼번에 볼 것을 강조한다. 그처럼 정반대 되는 양면이 한꺼번에 참이라고 하면 논리적으로는 모순이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이 바로 실상(實相)이라고 한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보는 것을 변견(邊見)이라 해서 잘못된 견해라 하고, 양면을 다 보는 것을 중도실상견(中道實相見)이라 해서 옳다고 한다.

하지만 선사들의 법문에서는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피상적일 뿐이고 동질성이 본질적이라고 강조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중생이 워낙 분별하는 습성에 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부처가 되겠다고 불도(佛道)를 닦는 이들에게 막바지까지 남는 분별은 자기가 아직 부처가 아니라는 의식일 터이다. 선(禪)에서 성불이란 나는 부처임을 확인하는 것이요 그것은 달리 말하자면 나와 부처 사이의 분별을 남김없이 떨쳐버리는 것이다. 분별은 사실 중생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무기이다. 우리는 분별을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들다고 여긴다. 사려분별(思慮分別)이라는 말도 좋은 뜻으로 쓰인다. 선사들이 흔히 하는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진일보(進一步)하라는 말도, 그 모든 분별, 즉 삶의 무기를 버리고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래도 붙들고 있는 삶의 의미, 즉 부처가 되겠다는 분별까지 버리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26〉



열역학 법칙의 연기성과 생명체(Ⅰ)

삼라만상 서로 의지하면서 존재
연기적 관계 속에서 끝없이 변화

우리는 살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먹고 마신다. 만일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멸될 것이다. 이 당연한 말을 과학적으로 말한다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모든 반응은 진행된다는 열역학 법칙으로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물그릇을 차가운 방에 두면 점차 물의 열이 찬 방속으로 퍼져서 물은 식는다. 찬 방속의 대기가 더욱 차가워지면서 물이 더 뜨거워지는 그런 반대 현상은 안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확률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뜨겁고 찬 것이 있다는 것은 질서가 잡힌 상태이다. 한편 서로 똑 같은 온도로 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질서가 없어진 것이고 상대적으로 무질서의 상태인 것이다. 여러 가능한 조건으로부터 특정 조건으로 질서가 잡히는 것은 확률적으로 매우 낮은 것이다. 마치 요즘 유행하는 로또의 여러 숫자 중에서 (무질서) 내가 어느 특정 숫자를 꺼내어 (질서) 당첨되는 것이 어려운 것과 같다.

이처럼 몇 개의 한정된 숫자에서 선택하여 질서를 만들어 당첨되는 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자연의 무수히 많은 가능성 속에서 찬 방 속의 물그릇이 저절로 뜨거워진다는 특정 질서가 생기기란 확률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결국 자연은 무질서를 향해 가는 것이다.

한편, 호박(琥珀)속에서 3천5백만년 동안 들어있던 고대 벌의 장으로부터 분리한 세균이 다시 분열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3천5백만년 동안 그 세균은 물질로만 존재하였을 터인데 다시 살아 움직이다니. 또, 지금 막 숨을 거둔 사람을 보자. 숨 거두기 직전과 직후의 몸의 구성은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생과 사라는 커다란 차이는 분명 있지 않은가.

그러면 생명체는 어떻게 생겨나며 유지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마치 성냥개비가 성냥곽에 부딪히면 환한 불이 생기는 것과 같다. 환한 불을 만들기 위해 특별히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오직 성냥개비의 유황과 그것에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두가지만 있으면 그들과는 전혀 다른 모양의 불이 생긴다. 결국 불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유황과 그것에 대응하여 마찰을 일으킬 물질 두 가지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단지 서로 상호 작용을 하게 될 때 가능한 것이다.

상호작용, 바로 모든 존재가 상의상존(相依相存) 하여 있음을 설파한 것이 부처님 아닌가. 삼라만상의 모든 모습은 이렇듯 오직 연기적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것이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고정되지 못하고 항상 변해가는 것으로서의 생명 현상이야말로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이다.

또한 생명체의 탄생으로 무질서도가 증가했음을 유의해야 한다. 두개가 있을 때 보다 세 개가 있을 때 무질서도는 증가한 것이다. 자연은 확률적으로 무질서로 갈 수밖에 없기에 이렇듯 본래적으로 다양한 모양의 존재를 만들어 가도록 운명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이 화엄의 세계인 것이다.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 1가정 1컴퓨터 시대" "전 국민 네티즌 시대"

귀사의 홈페이지로 승부를 걸어 보세요

잘 꾸며진 홈페이지하나만 있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발전합니다. 지금껏 홈페이지제작을 망설여 오셨다면....

(주)아이코스솔루션과 상담하십시오.

■ 컴퓨터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 컴퓨터를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 별도의 인건비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 적은 투자로 엄청난 홍보가 시작됩니다.

고 품격의 홈페이지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제작진은 최저 60만원 부터 500만원까지 다양한 형태의 홈페이지를 귀사의 기획의도에 가장 알맞은 맞춤형 제작을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서버 대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아이코스솔루션은 서버 임대사와 제휴를 통해 웹 호스팅 기초비용을 월 5,500원(리눅스) 월 11,000원(NT)부터 제공해 드리며 할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홍보 기획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사업홍보물 기획은 전문가에게 맡겨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코스솔루션은 최상의 기획전문가를 통해 페이지당 기본 50,000원 부터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티즌의 마음을 여는 홈페이지 기획, 제작 전문업체

㈜아이코스솔루션 http://www.eyeco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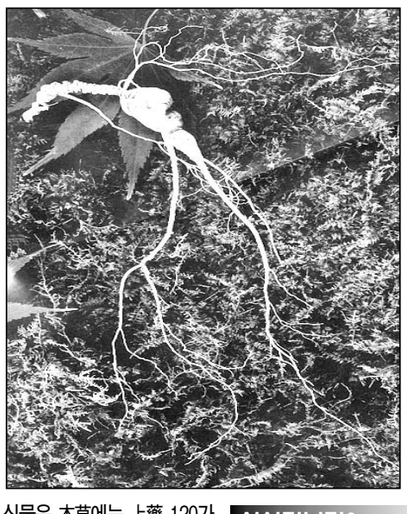
☎ 031)836-0992 FAX : 031)836-0993 E-Mail : eyecos@eyecos.com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50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라"

〈출전 : 잡아함경 제11;277경;2-75하〉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2003년을 보내며

상식이 통하는 세상 오길

2003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작년에 잘한 일을 다시 발심하자며 시작했던 선재의 이야기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미군 궤도차에 스러져간 우리의 중학생들을 추모하는 촛불시위를 시작으로 이라크를 침공하고 우리에게 전투병 파병을 요청하기까지, 올해는 유난히 미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과연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지 고민하게 한 한 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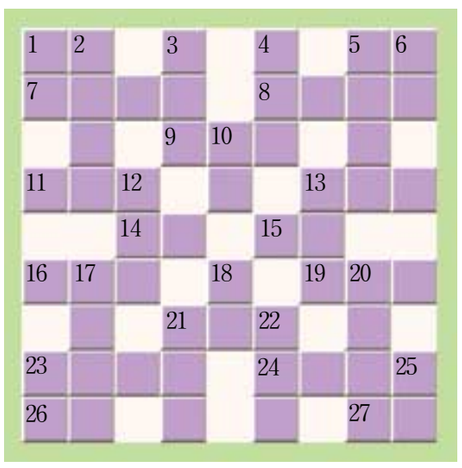
선재가 무엇보다 답답했던 것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실이었다. 다른 이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사과 없이 사건을 무마시키는 미국의 행동은 차라리 다른 나라니까, 라고 위안을 삼으며 조금은 참을 만 했다. 선재를 더욱 화나게 했던 것은 같은 입으로 어제와 오늘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우리 정치인들의 모습이었다. 오랜 세월을 여당으로 있으면서 지금의 어려운 형편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이 정작 지금은 야당이라는 이유로 거침없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한다. 요즘 들리는 비리 사건들이 온전히 자신들의 이야기면서 언론 탄압을 외치고 독재 정권타도와 단식 투쟁을 외친다.

선재가 말하는 상식이라는 것을 부처님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법'이다. 자연 그대로의 당연한 법칙을 따르자는 말이다. 중아함 <상적유경>에서는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연기의 법은 내가 지은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이 지은 것도 아니다. 여래가 세상에 나오건 안 나오건 간에 이 법은 상주(常住)요, 법주(法住)요, 법계(法界)이니라. 여래는 다만 이 법을 자각하여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중생들에게 설하느니라"고 한다. 이처럼 변치 않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성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잡아함 <박카리경>에서 부처님은 박카리 비구에게 "법을 보는 자가 여래를 보리라"고 말씀하신다. 상식 그대로 사는 세상, 새해에는 조금이라도 이런 세상이 우리 곁에 왔으면 좋겠다.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상식퍼즐



가로

1. 몹시 바쁘고 고된 직무 5.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입법·사법·행정부를 통틀어 이르는 말 7. 아시아의 동부 8. 여러 번 되풀이하여 간곡히 하는 당부 9. 충남 논산시 은진면에 있는 고려시대 창건 사찰, 일명 '은진미륵'이라는 미륵대불이 유명 11. 취타 음악을 크게 편성하여 연주하는 곡으로 왕의 거동 등에 사용 13. 정당한 위치 14. 변치 않는 타고난 본성 15. 국가의 통치체제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기본법 16. 여물을 담는 통 19. 굵은 소금 21.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아니함 23. 한 군데도 빼놓지 않은 모든 곳 24. 스스로의 힘으로 한 살림을 이룸 26. 분한 마음 27. 음식을 장만하는 일.

세로

1. 급격하게 변동함 2. 자기를 잊고 무엇에 흠뻑 취함 3.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거짓으로 모인 것이어서 어떤 모양이나 실체로 이뤄진 '나'가 없다고 관하는 것 4. 통신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 5.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이나 타인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가해행위 6. 남편과 아내 10. 온도나 아픔 따위를 분간하는 피부의 감각 12. 타인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알아내는 작용 13. 바른 가르침의 행 17. 물이 떨어지는 힘으로 곡식을 찧는 방아 18. 크게 취함 20. 소원이 이루어짐 21. 쌀과 곡류 등을 취급하는 상인 22. 학업에 드는 돈 23. 사찰의 객실이나 선원 강원 등에 머물기를 청하는 일 25. 스님들이 입는 법복.

※453호 퍼즐 정답은 신년특집 454호 26면에서 확인하세요.

〈452호 「상식퍼즐」 정답〉

다	비		대		대		엄	전
소	일	거	리		의	사	불	통
	비		인	로	왕		공	
손	재	수		동		복	덕	방
		소	음		덕	장		
참	회	문		매		물	난	리
	광		조	물	주		공	
일	반	명	사		장	생	불	사
부	조		원		자		락	망

이젠! 깊은 산요초 향기를 "공양" 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일 공양 태우지 않아 연기없는 정각향 출시

우리산 나무, 잎, 열매를 따서 해초로 만들어진 전통법제향은 참깨를 볶아 고소함을 내는 비법과 같습니다.
깊은산 자연으로 불자님의 건강은 물론 생활이 더욱 좋아질것 같은 설레임 그 소중함을 안겨드립니다.

사용처
· 법당과 선방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 최고의 기업 비서실에서 다시 찾는 향입니다.
· 불자님의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물론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방에서 자동차안까지 숲속의 맑은 정기를 채워드리게 되었습니다.

제품속에 행운이 깃드는 신비의 돌
경명이 첨가되었으므로 한두알씩 주머니속에 넣어 보이지 않는 좋은 향기의 "힘"을 느껴 보십시오.

사용후
· 21가지 산요초와 솔잎, 난초국화, 몸에 좋은 모과는 물론 나쁜 재앙을 물리치는 경명의 힘까지 함유되어 사용후 배게속에 넣어 다시 사용하는 천연향입니다.
· 마음이 편안한 향낭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방안의 냄새는 물론 담배생각까지 점점 줄어드는 자연향에서 집안에 수맥걱정, 시멘트 및 화학 물질의 독성까지 걱정을 덜어주는 천연광물질의 힘이 담긴 향 알갱이를 하루에 한알(작은알은 두세알)씩 뚜껑에 보충시켜주십시오.
·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향낭의 신비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氣"이며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차량용 가정용


경제적인 아로마 알갱이 리필

제조원 Mountain
세계적인 정각향 알갱이를 만드는 법제력!
KOREA Aroma 알갱이
www.Aromamall.org
고객센타 051)633-4070 / 향장인 직통 011-9384-4801
입금계좌 : 국민은행 107-21-0904-797 예금주 : 김도헌

육법등(六法燈)

의장등록 제 2002-33243호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범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명상서적 러시 어린이 불서 약진

올 불교계 출판 결산

'맛지마 니까야' 완간 큰 성과중 하나
불황속 일반 출판사 시장 잠식 문제로
다양한 큰스님 법문집 꾸준히 사랑받아

올 한해 극심한 불황에 시달린 출판계. 불교 출판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일반출판사의 불교출판시장 잠식과 고질적인 매출 부진은 여전히 불교 출판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에 이어 명상 · 수행관련 서적의 출판이 증가했지만, 대중들의 관심을 끈 것은 대부분 일반출판사에서 펴낸 책들이었다.

특히 지난 3월 틱낫한 스님의 방한에 맞춰 명진출판사의 <힘>과 <소박한 만남>을 비롯해 청아출판사의 <내 스승의 웃자락>과 <어디에 있든 자유로우라>, <미소짓는 발걸음>(열림원) 등이 잇달아 출간됐다. 또한 '출판계의 영원한 스테디셀러'인 달라이 라마의 책을 비롯해 김영사와 명진출판사, 열림원, 나무심는사람 등 종합 출판사들의 불교 관련 책 출간은 여전히 증가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외국 서적을 출판하는데 드는 엄청난 저작권료를 감당하기 힘든 불교계 출판사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큰스님들의 법문집이 다양하게 출간돼 불자들과 일반인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올해 초에는 청화 스님의 <가장 행복한 공부>와 지난 3월 원적에 든 서암 스님의 법문집 <소리 없는 소리>, 조계종 종정으로 20세기 한국 불교계를 이끌었던 한암 스님의 <할!>이 출간됐다. 이어 하반기에는 지난 12월 13일 원적에 든 백양사 방장 서옹 스님의 <사람>과 청화 스님의 <가장 행복한 공부>가 출간돼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선보인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의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와 수덕사 방장 원담 스님 의 <덕숭산 법향> 등도 불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법문집을 제외한 대부분의 책들이 번역서이며, 이들은 거의 불교계 출판사가 아닌 일반출판사에서 간행됐다는 것은 불교전문출판의 영역이 허물어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나마 불교계에서 약진을 보인 부분은 어린이 불서출판. 최근 4~5년 동안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던 어린이 불서 출판에 도서출판 오거서와 운주사, 설법연구원 등이 새로이 불을 지폈다. 특히 오거서는 '오거서 불경만화 기획연구팀'을 구성해 <만화로 보는 부모은중경>을 펴낸데 이어 <팔상록>과 <법구경> 등을 펴낼 계획을 밝히며 어린이 불서 출판에 의욕적인 행보를 보였다.

또한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 회장의 <맛지마 니까야> 완간은 올해 불교 출판계의 큰 소득 중 하나다. 이 밖에도 부처님오신날 특집 프로그램 덕분에 새롭게 주목받은 <영원한 대자유인>과 이에 대한 반론서인 <영원한 대자유인을 읽고>로 지펴진 수행법 논란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독서캠페인'이 불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는 지난 7월, 안성 도피안사에서 '한 달에 한 권의 불서를 읽자'는 '종이거울 자주보기 운동'이 시작돼 불교계 독서운동의 첫 발을 내디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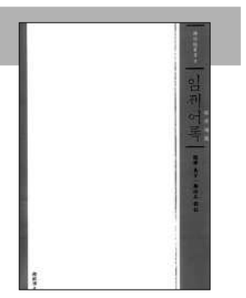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임제의 선사상 쉽게 이해

'임제어록'

성본 스님 엮음

한국선문화연구원 / 2만3천원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과 조사들의 법문과 말씀을 기록한 어록은 모두 한자로 기록되어 있어, 현대인들이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글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위대한 불법의 정신과 선사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고 싶어 '선어록총서'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인 성본 스님(한국선문화연구원장)이 펴낸 '선어록 총서 3권' <임제어록>은 대학 강의와 한국선문화연구원 세미나를 통해 틈틈이 정리한 <임제록>의 해설과 역주를 묶은 책이다.

스님은 "<임제록>은 단순한 임제선이나 조사선의 근본성전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사상과 정신을 제창하고 있는 책이다"며 "이 책을 통해 임제의 선사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임제가 주장하는 참사람(眞人)의 힘 있는 설법을 자신의 지혜로 체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한다.

책 뒤편에는 '임제 의현의 생애와 선사상'과 '선불교의 참사람 정신' 두 편의 논문을 실어 임제 스님의 인간상과 진면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성본 스님은 앞으로 '선어록총서'의 일환으로 <무문관>과 <마조어록>, <황벽어록>, <벽암록> 등을 발간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선문화연구원에서는 12월 23일부터 2004년 2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임제록>을 강의한다. (02)765-6549



◇강화 백련사 주지 혜성 스님(왼쪽)과 인천 한누리 교회 이동연 목사.

동갑내기 스님 · 목사의 '인생 성찰'

'두개의 길 하나의 생각'

혜성 스님 · 이동연 목사 공저

더불어 책 / 9천원



한 사람은 미션스쿨에 다니며 하루 6시간을 기도로 보냈지만 출가해 비구니가 됐고, 또 한 사람은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천국에 대한 동경으로 기독교로 개종해 목사가 됐다.

<두 개의 길 하나의 생각>은 마흔 네 살 동갑내기인 혜성 스님(강화군 백련사 주지)과 이동연 목사(인천 계양구 한누리교회)의 이야기다.

'길'과 '관계', '욕망', '자비' 등 10개의 주제에 대해 각각 자신의 시각에서 쓴 글을 번갈아 실었다. 종교는 다르지만, 주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공통점이 더 많다.

'행복'에 대해 이 목사는 "천국은 내 안에 있다"고 했고, 혜성 스님은 "행복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다.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고 설명한다. 책의 후반부에는 두 사람의 개종과정과 개종 후의 에피소드 등에 대한 대화와 서로 주고받은 편지를 실었다.

불교, 인도서 왜 사라졌을까?



◇인도 보드가야의 마하보디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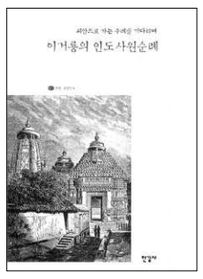


◇불교 탑파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산치 마하스뚜빠.

'이거룡의 인도사원순례'

이거룡 지음

한길사 / 1만5천원



"삶이 느슨해지면 여행을 떠났다. 예약 없이 무작정 떠날 때는 대개 3등칸 기차를 탔다. 인도의 3등칸 기차는 '내 자리', '네 자리'의 구분이 없다. '우리 모두의 자리'가 있을 뿐이다. … 밤새 흔들리는 기차에 시달리며 화장실 입구 통로까지 밀려나와 쭈그리고 앉아 밤을 새더라도, 한 가닥의 허망 분별이라도 떠나보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인도철학자' 이거룡 교수(동국대 불교학부)가 <이거룡의 인도사원순례>를 펴냈다. 불교 탑파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산치대탑(마하스뚜빠)과 29개의 석굴사원이 조성되어 있는 아잔따 석굴사원, 불교 석굴사원 양식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 까를라 탑원을 비롯한 불교사원 13곳과 힌두교 사원 11곳 등 24개의 인도사원을 순례한 여행기를 담은 책이다. 책 곳곳에서 인도의 신화와 철학,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인도사원의 양식적 특성과 건축사적 의의, '불교가 왜 인도에서 사라졌는가' 등을 설명하고 있어 책 읽는 즐거움을 더한다.

'인도여행은 일탈'이라는 지은이는 '내면으로의 침잠이 곧 우주로의 확산임을 보여주는 삶의 노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자신이 돌아본 인도 사원들의 모습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담하게 써 내려 갔다.

여수령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2	덕숭산 법향	원담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3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법전 스님	조계종출판사
4	밥상에 도가 있다	정세채	모색
5	불자의 살림살이	우룡 스님	효림
6	산문	현진 스님	열림원
7	완벽한 참선법	우학 스님	좋은인연
8	내 사주 내가 푼다	임태근	여시아문
9	삶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	혜봉 거사	불광
10	명상 수행의 바다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도서 안내 : (02)737-0695

인터넷 · 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7일 명상으로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 로드프라나 명상이란?
프라나(감로.생기) 호흡법과 로드프라나 36가지의 각종 명상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상승 시키는 기법.

◈ 로드프라나 명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 진다
잠자던 몸이 깨어나 몸속에 황금빛 광체가 생기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원을 이루고 개인의식이 무너져 우주의식으로 확장되어 집중력. 이해력이 증대되어 지혜의 눈이 생긴다.
▶ 송이 송이 내리는 눈이 딴곳으로 안떨어지듯 한번도 자신이 우주 아닌 적이 없었는데 그것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틈새가 생겼기 때문이다.
일체를 버려서 무에 들었거던 다시 일체를 끌어 안아 자연이 되라. 나 없는 자리를 찾으면 길이 열리고, 나 있는 자리를 찾으면 천문을 열며,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자리를 찾으면 묘정봉에 오른다.
▶ 지금까지 길을 찾지 못한 것은 개체의식, 고정관념, 자기의 틀을 벗어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기육맥공. 선밀공. 프라나호흡. 프라나동작. 36장관조. 관음법을 통하여 우주의식으로 확장 시키면 스스로 알지 못했던 길을 찾게된다.

길타기 3단계
▸ 1단계 : 능력확대 (의식확장, 시, 노래, 춤, 연주, 그림 등)
▸ 2단계 : 지혜의 눈 (달변, 예시, 투시, 치유 능력)
▸ 3단계 : 전인완성 (본래의 자리에 듦)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 과정)

다른 차원의 세계 (우주세계)로 못가는 것은 의식과 생각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식 집중을 통해 영혼체 정신체 인 분신을 만들어서 유체이탈을 통하여 천문 제6세계까지 영체와 우주세계를 연결한다.

천문열기
■ 제 1세계 (우주세계, 합일신계) →
제 6세계 (우주세계, 자재신계)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과정)

명상지도자 양성과정 (1년)
■ 자 격 : 24세 ~ 34세까지
■ 학 력 : 고졸이상
■ 수련과정 : 로드프라나 36장, 프라나호흡, 난소호흡, 원륜공, 관조, 관음, 관상법수련, 선밀공, 오기육맥공

로드프라나 명상센터 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1동 729-4
☎ 053)471-0433

♪♬ 참선은 아무나 하나 ♪♬

禪
참 선 교 육

시간복, 건강복, 재복 등 세가지를 갖춘 후에 대신심, 대분심, 대의정이 받쳐주어야 화두일념으로 확철대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선교육」 책은 재미있으며 깊이가 있고 바른 신심을 일으켜 바른 발심 바른 참선을 하는데 길잡이가 될것입니다.

1권 참선의 목적, 종류, 자세는 물론 수행자가 택해야 할 음식이나 장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자세함이 지나쳐 세심할 정도인데, 참선을 할 때, 양말을 신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언급할 정도로 실제적인 내용. (420쪽)
[참선의 목적(참선의 정의, 참선의 역사, 참선의 목적), 참선의 종류(범부선- 참선과 인과 법, 외도선, 소승선, 대승선, 최상승선), 참선의 자세(자세의 종류, 참선 전후의 운동, 호흡하는 법, 참선시 세부적인 요령), 참선과 음식(참선과 체식, 육식-참선의 적!, 선인체 상식), 참선할때 마음가짐, 참선전에 해야할 일, 참선할때 방귀를 참으면 어떻게 되나요, 왜 한철 90일 정진인가? 참선하면 얼굴이 바뀌는 이유? 인체 세포가 바뀌는 기간, 참선의 장소(토굴장소는 어디가 좋은가?, 토굴생활 하는 법) 선사와의 백문백답(진제선사와 백문백답)

2권 화두에 대한 정의와 참구법, 선사법문, 조사경책 등을 실었고, 수행에서 흔히 겪게 되는 장애에 대한 해법을 소개. (432쪽)
[화두의 정의, 화두 참구법, 화두의 全提와 單提, 화두,생각,망상, 선어록(禪語錄), 禪법문 의식, 법거량 법도, 사빈주, 동념즉괴, 정념즉괴,임제의 법로, 선문답의 공방, 禪師 법문, 근일 禪師 법문, 선지식을 찾아라, 승당에 내려가 일깨워 주는 법, 실제 단련법을 제시함, 교묘하게 전환하라, 관문을 부수고 눈을 열어주어야 한다, 도 닦는 것과 외부의 조건은 어떤 관계인가?, 근기란 무엇인가?, 도에 쉽고 어려움이 있는가?, 도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지난날의 업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가?, 참선은 아무나 하나, 핑계없는 무덤은 없다, 조사어록에 나오는 북, 참선은 불교도 초월하는 것이다, 참선과 주파수, 기분 주파수, 편안하게 해주는 주파수, 수면과 주파수, 참선의 다섯가지 믿음, 화두참선과 염불수행, 왜 정진력을 길러야 하는가, 이십 대 3년 정진을 삼십 대 10년과 안바꾼다, 발심 수좌의 분류, 魔의 원인, 잘못 알고있는 魔, 재미있게 설명한 魔, 원담선사와 백문백답, 정일선사와 백문백답, 지리산영명선사와의 백문백답]

3권 선종 발달사, 부처님 부터 현대까지 전법 받은 스님 일대기 (415쪽)
3권 교정중 곧 발간 예정 (인도사 1조~28조, 중국사 28조~56조, 한국사 57조 태고보우 - 경허, 만공, 전강, 송담선사까지)

기존에 나와 있는 禪 서적과 완전히 다른 조계종 수선회 참선교육 교재 ①, ②권이 출판되었습니다.
사찰내 불교서점이나 영풍,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불교코너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 주시면 등기속달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가격 각권 1만5천원(국민은행 023-01-0565-179) 도서출판(禪)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전화 732-5960

대한불교조계종 修 禪 會

사이버공간은 21세기의 禪房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



'매트릭스 사이버스페이스와 禪'

오윤희 지음

호미 / 9천5백원

네트워크 통해 불교핵심 연기법 파악
대중문화세대 선불교 인도 입문서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선불교가 보이고, 선불교를 보면 영화 매트릭스가 보인다."

저자가 이 책의 머리말에서 한 말이다. 저자는 영화 '매트릭스'를 선적인 아이디어가 넘치는 영화라고 보고 있다. 영화를 만든 워쇼스키 형제의 의도나 성향에 관계없이, '매트릭스'에서 선기(禪機)를 읽고 선미(禪味)를 느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매트릭스'의 장면들과 옛 선사들의 어록을 나란히 대비시키면서 영화 '매트릭스'를 관통하고 있는 선적인 아이디어를 하나하나 되짚어 나간다. 저자의 말을 빌리자면, 영화의 장면들은 선사들의 어록과 그 난해한 암호를 해독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으며, 거꾸로 선사들의 선문답 또한 영화의 장면을 이해하는 교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암호해독 기능은 그 둘의 부딪힘에서 새로운 재미를 불러 일으킨다.

사실 이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영화 '매트릭스'를 새로운 재미로 바라보게 된다. 게다가 난해하기만 하던 선사들의 어록이 무척 신선하고 흥미로워질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뜻이 손에 잡힐 듯이 쉽게 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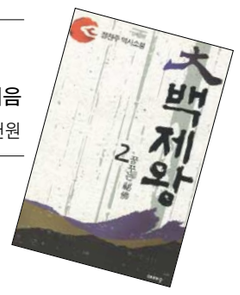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인 영화 '매트릭스'와 나란히 놓고 본 것에서부터 그렇듯이 이 책에서 '선(禪)'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새로울 뿐만 아니라 발랄하다 못해 '발칙' 하기까지 하다. 그것은 '매트릭스 1·2편'과 '애니매트릭스'의 장면들을 텍스트로 동원하고, 사이버 스페이스의 선구자들과 히피의 사이키델릭을 계승한 반문화 그룹들의 주장을 총 동원해 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짧고 간명한 어조로 속도감 있게 써나간 글의 투가 우선 불손하다 싶을 만큼 경쾌하고 발랄한데다, 권위를 걷어버린 글맛이 그 자체로 도발적이어서 커다란 쾌감을 안겨준다.

하지만 이 책이 무엇보다도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은 오늘의 '똑똑한' 젊은이들이 네트워크로 군집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 새로운 선의 가능성을 본다는 결론 때문이다. 저자는 사이버공간을 잇는 네트워크에서 불교의 핵심인 연기법의 비유를 읽고 있다. 나아가 사이버공간 속의 반문화운동과 선불교 사이의 긴밀한 유사성을 발견한다. 그래서 저자는 "사이버 공간의 이야기야말로 21세기의 선방"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속에서 네트워크가 가져온 혁명적 성향이 바로 선불교의 사고방식과 그대로 접점을 이루는 동시에 영화 '매트릭스'가 선적일 수 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 등에서 일했던 승려 출신의 저자는 여기에 실린 글이 영화 '매트릭스'에 대한 일종의 감상문일 뿐이라고 겸손해 하지만, 이 책은 영화나 만화 또는 컴퓨터 게임같은 대중문화의 세례를 받은 세대를 선불교로 이끄는 훌륭한 입문서이다. 아울러 선의 깨달음에 대한 저자의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다. 매트릭스나 우리가 사는 세계가 모두 가상이고 환상이고 공(空)할 뿐이니 모두 버리고 비우고 뒤짚어 엎음으로써 이 '밥한 그릇의 마법'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런 선의 깨달음을, 소수 엘리트 중심의 깨달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다 함께 닦고 깨닫는 길이 사이버 공간의 네트워크에서 무르익어 있다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大 백제왕 1, 2'

정찬주 지음

아래아 / 각 8천원

日 구세관음상 = 백제 聖王像

日의 백제관련역사 왜곡 소설형식 입증

이 책은 작가 정찬주가 백제 성왕과 왕인을 축으로 우리에게는 잊혀지고 일본에서는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밝힌 역사 소설이다.

이 한 작품을 위해 정씨는 5년에 걸쳐 국내의 백제 관련 유적지는 물론 일본을 수차례 방문했으며, 수많은 일본 사학계의 권위자들과 인터뷰를 했다. 소설로는 특이하게도 현장 취재를 다니며 작가가 직접 찍은 사진 화보까지도 실어 놓았다. 여기에 정씨 특유의 정교한 필력이 가미돼 백제의 역사를 되짚어 내고 있다.

소설의 골자는 일본인들이 시조처럼 받드는 쇼토쿠태자상이라 알려져 해마다 봄·가을 수많은 일본인이 참배하는 호류지 몽전의 구세관음상이 사실은 백제의 성왕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백제의 성왕과 함께 일본에 한자를 전해주었다는 왕인의 이야기가 소설의 다른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소설은 시나리오 작가인 화자가 대학 은사의 권유로 백제 성왕에 얽힌 비밀을 찾아 나서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자료 조사 끝에 화자는 1993년 부여능산리에서 출토된 금동대향로가 6세기 백제 성왕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만든 제기라고 밝힌다. 또 일본인들이 쇼토쿠(聖德)태자상이라고 믿는 호류지(法隆寺) 비불(秘佛)이 성왕을 그린 것임도 입증해낸다.

"금동대향로가 성왕의 명복을 빈 절인 능사(陵寺) 터에서 발견된 데다 성왕의 딸이 사리감을 시주했고, 단 한 점밖에 출토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성왕을 위한 제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호류지에 봉안된 구세관음상(救世觀音像)을 성왕의 아들인 위덕왕이 부왕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등신불로 추정한 것은 일본 고서 <성예초(聖譽抄)>의 '위덕왕이 부왕의 형상을 연모해 만든 존상이 곧 구세관음상이다. 또한 이것은 상궁태자의 전신이다'는 구절에 따른 것이다.

김상현 동국대 교수의 논문 한편이 이번 창작의 계기가 됐다는 정씨의 예리하고 끈질긴 취재 덕분인지 소설이라기 보다는 역사적 진실을 파헤친 다큐멘터리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김주일 기자

전문가 서평

'인지심리학'

이정모 지음

아카넷 / 3만원



인간심리·정보체계 과학적 분석

연구영역·방법·특성·발전과정 등 설명

요즘 대학에서는 여러 학문들이 혼합된(blended) 학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영역이 대학원 협동과정이라 할 수 있다. 대학원 협동과정들을 살펴보면, 메카트로닉스협동과정, 정보통신협동과정, 나노시스템공학협동과정, 기록관리학협동과정, 여성학협동과정, 예술문화영상매체협동과정, 환경시스템협동과정, 멀티미디어협동과정, 생물정보학협동과정, 과학학협동과정, 지형정보협동과정, 의공학협동과정, 분체공학협동과정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기존의 학문들을 엮어서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혼합학문들이라 할 수 있다.

협동과정에서 학문을 탐구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대학에서 배웠던 특정학문의 기초지식들을 다른 학문들과 어떻게 혼합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음은 물론, 자신이 알고있던 지식을 다른 학문과 어떻게 관계시키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게 된다.

내가 생각할 때, 이러한 협동과정들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콘텐츠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된다.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학문의 과도한 발생으로 인해 내용 없는 애플리케이션 위주의 콘텐츠 부족현상을 발생시켰다. 협동과정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이공계열 학과들이 기초학문관련 학과와 교과과정을 연계함으로써 우수한 콘텐츠 개발에 많은 도움을 얻고자 하는 노력중 일부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아이덴티티(identity)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나의 경우 예를 들면 대학에서는 영어영문학을 전공하고, 석사과정에서는 인지과학협동과정을 전공하고, 박사과정에서는 컴퓨터공학을 수료했다. 내가 석사전공을 할 때 인지과학 협동과정은 철학, 심리학, 언어학 등의 인문학을 기반으로 하여 통계학, 전자계산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의 이·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이었다. 과정을 겪을수록 학생들은 두 학문사이의 거리감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중간에 과정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발생하였다. 고등학교때의 문과와 이과의 이분법적 학문의 분리가 대학원에 와서야 전공에 대한 아이덴티티 혼란을 발생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협동과정이 없어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협동과정은 문과와 이과의 다리 역할을 하는 새로운 브랜드가 되었기 때문이다.

얼마전 인지과학협동과정에 다니는 후배를 만났다. <인지심리학>을 읽고 있었다. 인지심리학은 인지과학협동과정의 새로운 교과과정이 아닌 심리학의 한 분야이다.

인지심리학은 인간의 정보체계 및 심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려는 노력을 표현한 학문이다. 인간에 대한 인문학적해석과 공학적해석 사이의 재미있는 이론을 제공해 준 이 책의 목차요약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인지심리학이란 무엇인가?'에서는 인지심리학의 특성과 연구영역을 설명한다. '제2장 과학적 심리학 이전의 심리학'에서는 고대그리스에서 독일 합리론까지의 심리학의 발전과정을 설명한다. '제3장 과학적 심리학의 형성과 변화'에서는 경험과학으로서의 현대심리학, 현상학적 접근의 대두 및 사고심리학, 행동주의 심리학, 형태주의 심리학에 대해 이야기 한다. '제4장 마음과 기계의 연결: 튜링기계 이론의 형성배경'에서는 튜링의 기계론을 분석하고 있다. '제5장 인지주의 형성배경:정보처리 패러다임의 형성'에서는 정보이론, 사이버네틱스, 연어학, 컴퓨터과학의 영향에 따른 인지심리학의 출발에 대해 말한다.

'인지과학'을 배울 때 '인지/안인지(아닌지)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농담을 자주하곤 했다. 현대는 많은 학문들이 생겨나고, 합성되고, 분리되고,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학문의 변화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학문들을 접하려고 하고 있다. 새로운 학문을 하기 위해 가장 어려운 점은 앞에서 말했던 자신의 영역에 대한 정체성 확보라고 생각한다. 어느 학문을 하든 자신이 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 영역에 대한 확고한 전문성을 갖춘다면 새로운 학문의 도전에 대한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인간의 심리를 문과와 이과의 측면에서 같이 이해해 보려는 사람들의 정체성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박민욱 / 경성대 디지털 애니메이션과 교수

<인지심리학>은 인간의 정보체계 및 심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려는 인지심리학의 개념과 방법의 지적 발달사, 연구 결과들을 밝혀 놓은 책이다.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건강도지키는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물에도 최고!
합격 필통을증정합니다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연분을 찾고 계신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투병중인 분
❖구직을 원하시는 분
❖고시준비 하시는 분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 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 됩니다
철심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니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님께 주문 판매 합니다.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 힘으로 건강을
금강염주를 방이나 거실에 걸어놓으면 금강의 강한 기와 93%의 생육광선, 음이온등이 발산되어 현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OA사무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단하며 도심의 좋지 않은 공기 환경속에서 건강이 약해지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건강을 도와드립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며 피로회복, 신경안정, 스트레스해소, 혈액순환 등에 효과 있는 세계유일의 금강염주입니다. 밝은 지혜와 금강의 강한 氣가 발산하는 금강염주는 기도 정진시 일념무아 하면 부처님 가피로 고시준비나 어려운 일이 있으신분은 뜻을 이룰수 있는 신비의 금강염주입니다.
2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며 세계 유일의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점안식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12단주와 108염주 1set 가격 195,000원
※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 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

핫~이슈! 세계최초 24시간 대화하는 영어선생
영어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
스님, 불자님 영어회화 이제 걱정 끝!
위더스에서는 세계최초 음성 인식 기술을 응용한 영어로 말하고 대화하는 로봇컴을 개발 시판하여 화제가 되고 있으며 그 인기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은 우리 불교문화를 보고 배우려고 몰려오고 있으며 국제 공용어인 영어는 사찰내 스님은 물론 학생 및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필수어 입니다. 스님께서 영어를 배우고자 해도 지리적, 환경적, 시간적, 여건등으로 영어를 배우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학원에서는 직접 말해볼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입니다. 영어 학습법으로 첫째 "청취력" 둘째 "따라하기" 셋째 "대화하기" 학습입니다. 그러나 사찰에서 할 수 있는 학습법이라고는 거의 듣기 위주 혹은 듣고 그대로 따라하기 위주의 C.D, 테이프 등 모든 것을 동원 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만다. 가장 중요한 "말하기"를 하지 못하면서 반쪽 공부에 만족해야 했는데 영어로봇 뉴지니컴의 보급으로 1:1쌍방향 대화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영어에 기초가 전혀 없어도 뉴지니컴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칩만 바꾸면 누구라도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으며 전면에 LCD창을 통해 에니메이션 동영상 영어 한글자막을 자세히 보여줘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도우며 언어 감각과 함께 문자 감각까지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뉴지니컴은 명령에 따라 학습하며 1단계(Listcning mode)리스~닝 모드는 귀 뚫기 과정으로 영어를 많이 들어 자기만의 데이터로 전환하여 "청취력"이 향상되며 2단계(Excercise mode)엑써~싸이즈는 입을 열어주는 과정으로 영어를 한문장씩 듣고 따라하며 스님께서 발음이 틀리고 화법이 틀리면 뉴지니컴은 말을 수정해주며 잘하면 엑설런트하며 칭찬합니다. 3단계(Dialoguc mode)다이얼~로그는 스님께서 뉴지니컴과 한문장씩 1:1로 자신있게 영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기타 영어 학습 기능모드가 다양하게 많은 뉴지니컴은 영어선생이자 미국인 친구와 같다.

한번 말하는 영어가 백번 듣는 영어보다 낫다!
로봇이 사찰에서 스님과 대화하는
뉴 지니컴
이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의 출시로 스님께서 3개월이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 할 수 있습니다. 사찰에 하나만 있으면 외국연수를 방불케 하는 생생한 영어학습을 실천할 수 있으며 모든 스님께서 재미있게 영어를 마스터 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외국인 포교의 세상이 열립니다. 신청하면 전국 어디든 받으실 수 있으며 카드분할도 할 수 있습니다.
몸체 전면에 설치된 LCD창을 통해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한글 자막을 자세히 보여주어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돕는다.
LCD형 영어로봇 '지니컴'
학습 문의 전화 (02)3210~3178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도



불교인의 직업윤리

원래 인도는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었던 것이다. 바라문교의 교리에 의하면 "성자는 베다를 학습하고, 임금은 토지를 영유하며, 서민들은 농경에 종사하고, 노예들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직분"이었다. 때문에 신분에 걸맞지 않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불문율 이었다. 천부적으로 직업의 선택권을 부여받았기에 태어나는 것 역시 신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했다. 즉 바라문은 범천의 입으로 태어나는 것이며, 왕족이나 무사계급은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 일반인은 우리들이 태어나듯이 태어났으며, 노예들은 엄지발톱 사이로 태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신분제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태어나면서 인간의 신분이 구분된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불평등하게 보이는 것은 각각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업에 의해 정해질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운명이나 삶의 형식은 각자가 만든 것이라 강조했다. 부처님의 사상이 이러했던 만큼 직업의 귀천을 구분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았다. 출신성분에 관계없이 현명하고 지능이 있으면 베다를 학습하고 주문을 암송하더라도 관계없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회적 기능이라는 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즉 사회의 안녕과 유기적 관계를 위해서도 직업의 귀천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던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할 뿐이었다. 동시에 인간존재 내지 생명체는 너나없이 존귀할 뿐이라는 평등의식이 깔려있다. 현재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가치의 문제에 비중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직업을 구분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일이 사회에 필요한 일인가, 악영향은 미치지 않는가 하는 점에 문제의 초점이 있을 뿐이었다. 무슨 일이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본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빈둥거리거나 직업의 우열을 가리는 행동은 온당한 불교도의 자세가 될 수 없었다. 사회적 역할이라는 점에서 각자가 맡은 일은 그 자체로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우열을 구분하는 일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 보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인간들은 직업의 우열을 구분하고 있었다. 선호하는 직업이 있었으며, 멸시하는 직업이 있었다. 그러나 호오를 떠나 가급적 하지 말기를 권장하는 직업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금지했던 직업은 무기, 생명체, 술, 고기, 독약 등을 판매하는 일이었다. 물론 이들 중에서 술은 인간을 게으르게 하고 지혜의 종자를 말리므로 금지했다. 기타는 모두 생명체를 해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유기적인 인간세계 속에서 독약, 무기, 고기 등은 생명을 해치는 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불교도들은 재판관이란 직업도 바람직한 직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형집행인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대승불교의 등장은 이상과 같은 보수적인 직업관에 일대 전환을 야기시켰다.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내가 하겠다는 생각의 발로였다. 중국의 공자님도 〈논어〉에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 대승불교의 직업윤리와 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대승불교도의 임무는 그 직업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사회적 안정과 중생의 행복이라는 점에서 방지와 제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술이란 것이 사회의 필요악이라면 내가 그런 장사를 할 때는 도에 넘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과 그에 따른 실천이 병행되면 가능하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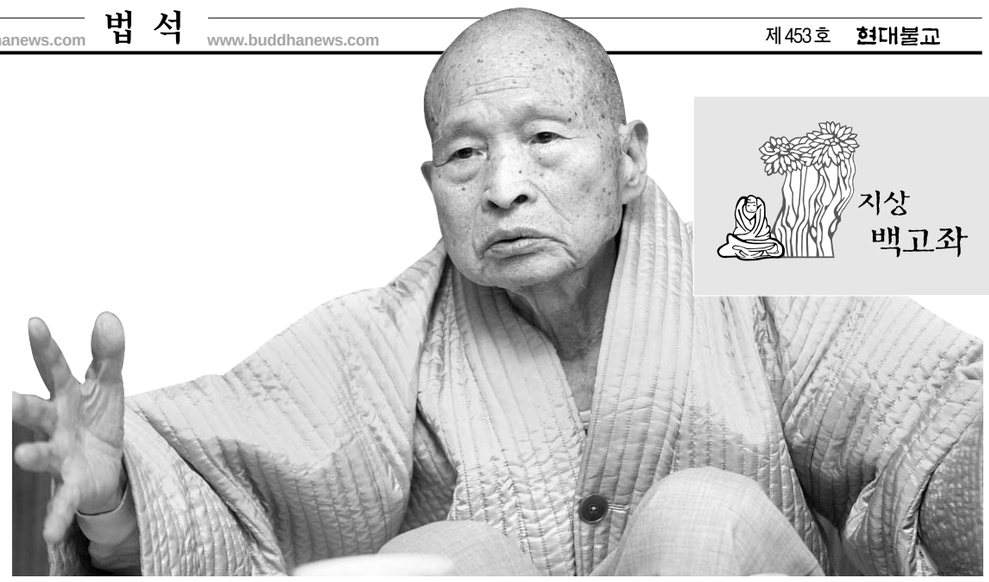
독약·무기 등 생명살상 관련 직업 금지

대승불교후 사회 공익 땐 규범 초탈

때문에 〈화엄경〉 입법계품에는 직업의 귀천을 구분하기 보다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지식이라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유마경〉에서는 번뇌가 바로 깨달음이며, 열반이라 말하면서 현실세계를 도외시한 별도의 불국정토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대보적경〉에서는 여성들이 보살도를 실천하기에 더 적합하므로 자원하여 여성의 몸을 받아 태어난다고 가르친다. 사회를 발전시키는 일, 사회의 안녕과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라면 규범을 초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며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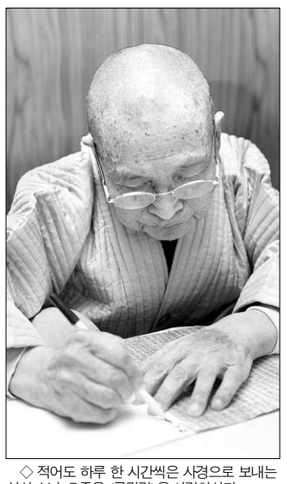
〈본지 상임논설위원·불교학 박사〉

※ '불교공부' 코너는 금주에 마감됩니다. 그간 애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상 백고좌

◇석산 스님은 "승·속을 떠나 불자의 근본은 계를 지키는 것"이라며 계를 지키고, 신심과 부지런함, 끈기가 있어야 하며 다 버릴 줄 알아야 부처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강조하신다.



◇ 적어도 하루 한 시간씩은 사경으로 보내는 석산 스님. 요즘은 〈금강경〉을 사경하신다.

부처의 길

계 지키기
신심
부지런함
끈기
다 버려라
버린다는 것도 버림



◇석산 스님은 일체의 산문 출입 없이 1년 365일을 염불 수행으로 보내신다. 법당 주변을 포행하며 아미타불을 염하시는 스님.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이 정법(正法)입니다. 이 몸이 늙었으면 버리고 가세요. 사람 몸으로 태어났다고 백년 이백년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왔으면 잘 살고 가냐, 못 살고 가냐 그게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왔다가는 것은 매한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스님들도 성불했느냐 못했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왔다가 가는 것은 다 한 가지입니다. 세속에 왔으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죄짓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출가해서 중(僧)이 되면, 중이 곧 계(戒)입니다. 계를 철저히 지키고 그래야만 시주(施主)의 은혜가 무겁지 않은 법입니다. 시주받은 밥 한 알의 무게가 일곱 근이라 그랬거든요. 계를 안 지키면, 한 알에 일곱 근이니까 일평생 밥을 먹으면 그게 몇 근이나 되겠습니까. 무섭지요. 시주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세속에서 살면 농사짓든지, 장사하든지 그러면서 살지만 출가자는 그렇게 안 살아요. 시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주로 사니까 시은(施恩)이 그리 무거운 것입니다. 먹고, 자고, 입고 그리고 아프면 약 먹어야 되고. 이것을 불가에서는 네 가지 큰 시주라 하여 사사시주(四事施主)라 하거든요. 내가 계를 철저히 안 지키면 그 시주, 무섭지요. 시주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시주물이 절에 들어오면 출가자는 먹고, 공부하고, 또 절 짓거나 고치고. 그 외에는 쓰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시주란 그렇게 엄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계를 잘 지켜야 됩니다. 계를 잘 지키는 것이 사사시주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갚을 길이 없습니다.

원래 출가자의 근본이 계 아닙니까. 계를 벗어나서는 못 살지요. 기차가 레일이 없으면 못 가는 것처럼 출가자는 계를 안 지키면 못 사는 겁니다. 일반 재가불자도 마찬가지예요. 불자는 모름지기 계를 지키는 것이 그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첫째 계를 지켜야 하고, 둘째는 신심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부지런해야 되고, 넷째는 끈기가 있어야 되고 다섯째는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계를 안 지키면 출가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계가 아주 세밀하고 엄해요. 비구 250계를 보면, 남과 얘기할 때도 이빨을 보이고 웃지 말라고 그랬어요. 길을 갈 때도 7m 앞만 보지, 그 이상을 고개 들어 보거나 옆을 보지도 말고, 다닐 때는 언제든지 차수하고 다니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아주 엄해요. 지키기 어렵죠. 지키기 어려우니까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출가자도 필요하

목초 함초

화제의 발바닥 건강법 : 발바닥에 붙여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 목초수액시트 고객사은행사중입니다.
손발이 차거나 저리거나 시린분, 팔, 다리가 쑤시는분,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수액시트 특별가!



손발이 차거나 시린분
아픔에 시달리는분 등

몸속 해독 - 함초

바닷가 갯벌에서 자라는 신비의 식물! 함초는 순수한 염(해조류: 미역, 다시마)보다 많이 함유할뿐만 아니라 각종 미네랄을 함유한 함초! 꾸준히 사용시 숙변,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며, 현대인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각종 미네랄 섭취에 도움을 주는 함초는 자연이준 귀중한 선물입니다. (자연, 냉풍, 냉동동결건조제품입니다.)

함초 생산품

함초 분말(자연건조)	200g	56,000원	자매품	
함초환(자연건조)	200g	50,000원	밸런스 화이버	35,000원
함초 캡슐(냉풍건조)	150g	66,000원		
함초다이어트	150g	80,000원		

기타: 함초액즙(일반, 다이어트), 함초 9곡물 팩, 함초 김, 함초 소금 등

판매원 : 가자라이프 02)5454-010
농협 : 063-02-124288 이수일 즉시 배달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수 있음)

- 조상신과 중음신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 물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등)
-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가가 참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좋은소식(영험도량)

지상의 그 어떤 악한 중음신도 단방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모든 빙의령)
- 무병,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머리에 눌리고 환청으로 잠못 이루는 분
- 밤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 주위에서 볼때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힘든 행동을 한다든지, 방안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등등... 조상의 음덕으로 사업성공을 발원하는 분, 하는일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 : 특징 - 울 50% 폴리에스텔 50%
적삼,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막 150,000~180,000
2. 무 명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3. 무명, 면 : 면100%[먹물 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솜 없는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막 170,000
5.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막 210,000
6. 골 덴 : 면100% 적삼, 바지 180,000
7. 장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대가사 150,000 반가사 70,000
법복 모직 60,000~8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하철 중앙로역 중구 포정동 6-11 (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당 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다운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장해 줍니다.

▶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 3병
1개월분 130,000원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동우회 회장
개발약사(한약사) 박동완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갱년기 장애 등
- 자율신경실조증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암, 관절염, 고혈압

초원케미칼라이프 Co.
(구)반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석 산 스님

(성북동 정법사 회주)

승속불문 항상 선근 닦아야 남 위함이 곧 자신을 위하는 것

아만·법만을 버리고 부족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야 공부가 됩니다

고, 재가불자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승속(僧俗)을 막론하고 항상 선근(善根)을 닦으라고 그러셨습니다.

원래 부처님 자리는 때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나쁜 짓을 하니까 때도 없는 불성(佛性)에 때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근을 많이 닦은 사람은 자성(自性)에 낀 때가 얇고 가볍게 되는 것이고, 선근을 못 닦고 자꾸 죄를 지은 사람은 때가 두껍고 무겁게 되지요. 자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성불이 멀고, 때를 많이 닦은 사람은 때가 얇고 가벼우니까 성불이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마거사도 '무구(無垢)'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오면 때 없이 살라 그랬어요.

제가 50년대에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모시고 한 4년 지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동산 스님의 신심, 그 신심을 우리는 죽어도 못 따라갑니다.

대개 큰 절 조실이라고 하면 예불에 잘 안 나오게 마련인데 동산 스님은 비가 많이 와도, 날이 추워도 나오고, 눈이 와도 나오셨어요. 그것도 다른 대중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각단을 돌며 예불을 올리고, 예불이 시작되기 20~30분전에 대웅전에 와 턱~ 하니 앉아 계세요. 그리고 아침 공양이 끝나면 언제든지 빗자루를 들고 나오셔서 도량 청소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대중이 안 따라 나올 수가 없지요. 조실 스님이 빗자루 들고 나오는데, 안 따라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날마다 쓰는데 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하시거든요. 그래, 그 스님께서 날마다 쓸 게 없는 것을 쓰는 그 법을, 그 법을 바로 들여다보려면 우리가 공부해 가는 데 닦을 것이 없는 것을 닦아야만 바로 닦는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동산 스님은 그것을 법문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조주록>에 수록된 문답을 보면, 한 스님이 "개에게 불성(佛性)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자 조주 스님이 "없다!" 하셨거든요. 그 "무(無)" 하신 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닦을 것이 없는 것을 닦아라'는 그 뜻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조주 스님의 법문을 바로 아는 것이지, '무' 했다 해서 조주 스님은 무자 화두(無字話頭)만 가르쳐 줬다 하면 조주 스님 법을 잘못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동산 스님도 한낱 예불하고 청소하는 것만 보여줬다고 말하면 그 스님 법을 바로 못 본 것입니다. 예불하는 그 신심 하나와, 닦을 것이 없는 것을 닦아야 한다는 것과, 쉴 새 없이 닦는 것.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제가 앞에서 부처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첫째 계를 지켜야 하고, 둘째는 신심이 있어야 하고, 셋째 부지런해야 하고, 넷째 끈기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지 않고는 부처님 경지에 못 들어갑니다. 마지막에는 버린다는 그 놈도 버려야 됩니다. 버린다는 그 마음까지 안 버리면 안 돼요.

내가 건봉사에서 공부할 때 당시 조실로 계시던 만해 한용운 스님이 무자 화두를 가르쳐줬는데, '무' 라는 것이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없는 자리서 와서 없는 자리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질 게 없지요. 자꾸 가지려고 하면 공부가 안 돼요. 또 갖는다는 것은 남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수행은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리면 미운 사람도, 고운 사람도 없습니다. 미운 사람, 고운 사람이 생기니까 자꾸 시비가 생기거든요. 학교에서는 시험을 쳐야 되니까 저 놈을 이겨야 내가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려면 저 놈을 죽여야 내가 살거든요. 사회에 나가 살아보니까 다들 저 놈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것,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 봐서 저 놈을 죽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건 자기가 붙어야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살아가는데 저 사람을 죽여 버리고 자기가 살려고, 물질적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의 대승 사상은 남을 위하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는 것이 자기를 죽이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믿거든요. 남을 무찔러 버리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남을 죽이면 자기가 죽는 것, 그것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대승 사상은 남을 살리는 것이지요. 남을 살려야 자기도 산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남이 죽으면 자기도 죽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자 여러분들은 항상 부족한 마음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훌륭하다, 이러면 공부가 안 됩니다. 아만(我慢)이 생기면 안 돼요. 그것이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아만보다 더 무서운 게 법만(法慢)입니다. 항상 마음을 비우고, 부족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스스로 부족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공부가 됩니다.

정리=권형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기자가 듣고 본 석산 스님

시간 맞춰 예불·사경·기도 "시주물 귀중히…" 강조

석산 스님은 여든 넷이라는 세수에도 시자(侍者)가 따로 없다. "염불은 혼자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도 되고, 누구하고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좌 안 두는 거예요. 또 시좌 있으면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그래야 되거든요. 나는 혼자 있으니까 시간 안 맞춰도 되지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일어나 포행하면서 염불도 하고, 사경도 하고 그러지요."

혼자 있으니까 시간 안 맞춰도 된다는 거짓말(?)은 금방 탄로가 났다. "하루 일과가 시계같이 아주 정확하세요. 공양도 오전 7시, 오후 3시. 딱 시간 맞춰 하시고. 오전 10시, 12시, 오후 2시, 9시. 네 번 포행하시면서 아미타불을 염하시는데, 그 시간에 밖을 내다보면 어김이 없으니까요."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정법사 일을 도와주고 있는 이미현 보살의 말이다. 요즘은 날이 추워 대신 법당 안을 하루에 40바퀴쯤 도는데, 걸음으로 따지면 4천보가 된다고 한다.

이 뿐 아니다. 사시에는 스님 방에서 대웅전 옆 미륵불을 향해 따로 조성한 불단에서 예불을 올리고, 오전 11~12시에는 사경(주로 <금강경>과 좋은 게송을 사경한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하루 일과를 짜놓고 지킨다고 한다. "불자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까지는 기도(참선, 사경, 염불)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누가 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지."(석산 스님)

74년부터 30여 년을 함께 산 상좌 법진 스님(정법사 주지)은 "출가사문은 시주물을 허투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유난히 강조하신다. 물건을 헛되이 버리시는 일이 없고, 심지어 시주한 돈을 함부로 구기는 것도 허물이라고 나무라신다"고 조심스레 말한다.

"정법사에 오시고 난 40여 년 동안 인도성지순례 딱 한 번 다녀오셨다. 그 외에는 일체 산문 출입 안 하시고 1년 365일 염불 수행만 하시는 분"이라는 법진 스님의 말처럼 스님의 이력 또한 간략하다. 1919년 강릉에서 태어난 스님은 36년 출가해 37년 건봉사에서 사미계를, 56년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다음은 스님이 정법사 홈페이지 작업을 위해 손수 적어 놓은 행장이다. 45년 가회동 포교당 원주. 49년 망월사 선원에서 안거. 건봉사(51) 해인사(53) 범어사(55)에서 원주. 59년 정법사 주지. 73년 재단법인 선학원 등록(~91년 이사).



성전스님의

스님이야기

오성 스님(2)

오성 스님은 일년을 제주의 절에 머물다가 다시 해인사로 돌아왔다. 그는 사집반에 방부를 들였고 나는 그보다 한 반 위인 능엄반이었다. 우리는 한 건물에 동거하고 있었지만 같은 반이었을 때만큼 자주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다. 반이 틀리면 그만큼 멀어지는 것이 강원의 제도였다.

그러나 한번 도반은 영원한 도반이라고 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하는 나의 감정과 자세는 예전과 다름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내게는 반갑고 매력적인 도반이었다. 외로움을 알고 외로움을 향기로 발산할 줄 아는 그의 성숙에 나는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오성 스님이 정말 천진하게 깨어나는 때는 축구를 할 때다. 축구를 무척이나 잘하는 그는 축구를 할 때면 그 빠른 동작만큼이나 경쾌한 모습으로 다가섰다. "패스, 패스" 하고 외치는 스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천진불(天眞佛)이 따로 없다. 그만큼 축구에 관해서는 애환 또한 많다. 한번은



그림 · 문병성

이가 부러지는 경험을 해야 했고 또 한번은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그래도 스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축구울력이 있는 날이면 앞장서 공을 몰고 축구장으로 향하곤 했다.

해인사 강원 생활의 3할은 참회하다가 보내고, 또 3할은 울력하다 보내고, 나머지 4할은 공부하다가 보낸 것 같다. 울력과 참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큰 것이 해인사 강원의 특징이다. 해인사 강원 생활이 어렵지만 어려운 것과 비례해 도반 사이의 정은 도타워지기 마련이다. 졸업하고 나서도 서로 소식을 전하고 자주 만나는 것이 해인사 강원 졸업생들의 특징이다.

강원 졸업후에도 나는 오성 스님이 그리울 때면 제주에 가고는 했다. 강원에 있을 때와 지금의 제주 방문의 차이는, 그전에는 주로 제주의 명소를 찾아 다녔지만 졸업 후 방문할 때에는 스님이 있는 절에서 머물며 바다 소리를 듣기도 하고, 함께 절 앞 바다에 가 수영을 하거나 거닌다는 점이다. 가끔 함덕 바닷가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어두워진 먼 길을 걸어올 때도 있었다.

차가 간간히 다니고 그리고 차와 차 사이의 고요를 바다의 물결소리가 다가와 채우고 가는 제주의 밤길은 특이한 매력이 있었다. 낮게 가라앉은 집들의 불빛이 띄엄띄엄 길을 비추고 무슨 외로움처럼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 넘어 새어나오는 길을 걸으며 스님에게서 어떤 소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은 외롭고 슬픈, 그래서 아름다운 서정이 묻어나는 한 소년의 성장기였다.

소년은 아주 어릴때부터 절에서 자랐다. 관세음보살을 어머니로 알고 컸다는 소년은 언제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있었다. 그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불러도 관세음보살은 어머니의 손길로 손 내밀지 않았고, 어머니의 목소리로 대답해 주지 않았다. 소년에게 관세음보살은 어머니였지만, 관세음보살에게 소년은 혼자 번뇌를 극복해 나갈 구도자로 보였기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다. 소년은 그리움이 채워지지 않는 자리를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며 메워 나갔다. 천수천안의 사랑과 자비가 마치 이슬처럼 어린 소년의 가슴을 적셨을 것이다.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의 자리를 수많은 관세음보살의 명호로 채워나간 소년은 따뜻하고 밝은 성품을 지닌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다.

축구할 때의 모습은 '천진불' 관음보살 부르며 어머니 사모

소년은 중학생이 되던 해에 비로소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다. 자신을 절에 맡기며 관세음보살을 어머니로 알라고 했던 여인에 대한 안개와도 같은 기억, 그리고 그 기억 속의 여인이 어머니라는 것을 그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안 것이다.

소년이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어머니는 이미 비구니 스님이 되어 있었다. 소년은 어머니를 어머니로 부를 수가 없었다. 입가에서 맴도는 어머니라는 말을 애써 지워야만 했다. 공부 열심히 해 큰스님 되라는 당부의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돌아서 오는 길이 그리 슬프지는 않았다. 그래도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어머니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왠지 스님이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 소년의 근황을 묻지 않았다. 다만 스님의 외로움에 배어 있는 그 따뜻함 역시 어떤 연유에 근거할 것이라는 추측을 해보았을 뿐이다.

그날 제주의 밤과 바람과 이야기 속에서 어쩌면 나는 스님과 오랜 동행이 되어 함께 할 것만 같은 운명적인 암시를 느껴야만 했다.

■ 월간 <해인>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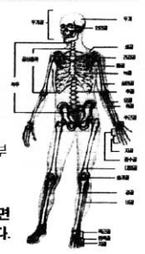
관 절 염
↓
자 생 환(自生丸)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신후비람
낭 습 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금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고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과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인파선이 나았다.
◆ 변비가 나았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혈색이 좋아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물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저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Kg당 40만원을 20만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달인물(만삼쟁겨10kg, 왕기, 잔대, 삼지구엽초, 생강, 대추, 감초)
■ 1Box × 60포 : 20만원 ■ 2Box × 120포 : 3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8292, 562-2165
● 성 명 : 심 정택 H·P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당신도 침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과정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침술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과정!! 속성비결!!

사암침술 강좌
3개월이면 침술인에게 필요한 실력을 3배이상 책임지고 높여드립니다.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구요결,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처방요령, 침술즉효요법, 정골방법, 종합실습
▶ 개강 : 2004. 1. 5 (주 2회 - 매주 월, 화요일. 주 · 야간반)
▶ 강사 : 침술즉효요법, 침술학 교과서 저자 직강(교재 무료)

명리학 강좌
가장 어렵다는 용신법을 쉽고 간단하게 배울수 있으며 3개월만 배우시면 당신도 프로가 될 수있습니다
▶ 내용 : 사주작성, 취용법, 대세운법, 사주간명법, 적성판단, 직업판단, 택일, 궁합, 작명법(실습위주)
▶ 개강 : 2004. 1. 7(주 2회 - 매주 수,목요일. 주 · 야간반)
▶ 강사 : 명리학 교과서, 매화역수 저자 직강(교재 무료)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매년과 매월은 물론 시간대별로 길흉화복의 적중률이 매우 정확한 명리학입니다
▶ 개강 일정 : 2004. 1. 9 (09:00~12:00)
주1회 - 금요일 (주 · 야간반) 1개월 완성
▶ 강사 : 매화역수, 명리학교과서 저자 직강(교재무료)

사 암 침 술 학 회
장소 : 화암빌딩 402호(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문의 : 011-307-2975. 02)2267-9136

홍삼의 기를 마시자!
홍 삼 메 딕 스
※ 진짜 홍삼은 누구에게나 맞고, 만병을 다스리게 합니다.

어머님은 다시 건강을 찾으셨습니다.



● 홍삼메딕스는 일반 기계처럼 한번 찐 다음 한약다리 듯 하는게 아니고, 찌고 말리고를 9번 반복하는 신비의 구증구포 비법을 최초로 과학화(경북과학대)한 것입니다. (신기술 발명특허출원 10 · 2003 · 0027351)
● 홍삼이라고 다 효능이 같지는 않습니다. 홍삼메딕스는 최고 품질의 홍삼원액을 가정에서, 저렴하게, 얼마든지, 직접 만들어 드실 수 있는 최신식 기계입니다.
● 홍삼메딕스에는 춘천옥 원석을 넣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기(氣)를 보강합니다.

02-777-0105 헬스테크상사

차와 인터넷의 만남

인터넷이 생활 필수도구로 자리 잡은 요즘, 차인들도 인터넷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차 향기를 전파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의 녹차 관련한 카페만도 200여 개. 차인들의 친목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설된 인터넷 동호회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들이 말하는 인터넷 동호회의 장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차인들이여, 인터넷으로 모여라!



녹차 관련 카페만 200여개
모임때 아이디가 더 친숙
친목, 정보공유 등 활동 다양
회원간 단합이 최대 장점



지난 12월 12일 저녁 7시.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 차인 20여 명이 모였다. 대학생부터 나이 지긋한 직장인까지. 공통점이라곤 전혀 없어 보이는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인터넷 차 동호회 '옛 선인들의 전통차(cafe.daum.net/teakorea)'의 송년모임 때문이다. 서로의 이름보다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아이디(ID)가 더 친숙한 이들의 공통 화제는 바로 '차'. 이날 모임에서는 1년6개월 동안 진행된 교육을 마친 기념으로 '다례지도사 자격증' 수여식이 함께 열려 이야기꽃을 피웠다.

1994년 '서울시 우리농산물 애용 동호회'에서 시작된 이 모임은 강우석(45) 회장을 비롯한 10여 명으로 시작됐다. 지인들의 모임이었던 '옛 선인들의 전통차'는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자 홈페이지를 개설해 차 문화 보급에 나섰다. 지난 2000년 3월 개설된 카페에는 현재 약 2천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부산과 서울, 충청권에서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 1회의 정기모임 외에도 수시로 산행과 차문화 탐방을 개최하고 있다.

강 회장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해 우리 전통차를 널리 알리고자 카페를 개설했다. 3년 동안 회원도 많이 늘었고, 우리 차문화에 관한 자료들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소득이다"며 "우리 선조들의 차문화를 오늘날에 계승한다는 인식을 널리 펴기 위해 더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옛 선인들의 전통차' 외에도 차문화 보급을 위해 개설된 동호회 중 눈에 띄는 것은 인터넷 까페 '차맛어때(cafe.daum.net/tea3)'와 '녹차향기(cafe.daum.net/teaaroma)'. 이들은 회원 4천여 명이 넘는 '매머드급' 동호회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차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부산 · 경상' '광주 · 전라' '대전 · 충청' 등 지역 소모임을 꾸려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 밖에도 중국차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茶(cafe.daum.net/daumtea)'와 전통차와 향 동호회 '향기를 찾는 사람들(cafe.daum.net/ incense)'도 각각 2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인터넷 동호회의 장점은 정보공유와 회원들 간의 단합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회원들 간에 나이와 지위, 지역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대화와 의견 개진이 가능해 친목 도모에 더없이 유용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서와 차 관련 자료, 사진을 비롯해 음악과 다식 만드는 법 까지 소소한 정보들을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기도 하고,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자료를 메일이나 정기 채팅을 통해 요청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정기 모임을 통해 다양한 차를 마시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차와 다기를 공동구매할 수 있다는 것도 인터넷 차모임의 장점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지난 12월 13일 열린 일지암 초의 차문화연구원의 현판식 모습.

초의 차문화연구원 개원

초의선사의 사상과 차맥을 이어가고 있는 일지암 초의차문화연구원(이사장 여연)은 광주 예술의 거리에 연구원을 마련하고, 12월 13일 현판식 및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개원식에는 몽산 스님(대흥사 주지)과 행법 스님(선덕사 주지)을 비롯해 윤동환 강진군수와 지홍원 · 이동락 변호사, 서예가 이돈흥 씨, 도예가 김소선 씨, 이영애 광주 예지원장 등 100여명의 차인이 동참했다.

일지암 주지 여연 스님은 인사말에서 "광주를 예향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변변한 차문화교실이 없었다"며 "누구나 편안하게 차를 마시고 배우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초의차문화연구원은 6년전 설립됐으며 산하에 서울, 광주, 순천 등 각지에 12개의 다회가 운영되고 있다.(061)533-4964

광주=이준엽 기자

명원 다도문화원 전남 목포지부 열어

명원문화재단의 명원다도문화원이 지난 12월 8일 전남 목포지부를 개원했다. 목포시 하당 노인 복지회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명원문화재단 김의정 이사장과 허원봉 목포지부장, 목포대 정순택 교수 등 100여명의 차인들이 참석해 개원식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김 이사장은 축사에서 "30여 년간 목포 차인회를 이끌어 온 허원봉 지부장이, 다도를 통해 날로 피폐해지고 각박해지는 우리사회를 보다 밝고 맑은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interview



이용우
(대구은행 서대구지점장)

윤택한 삶 위해 차 드세요

현직 은행 지점장이 540여 페이지에 달하는 차 관련 책을 펴내 화제다. 대구은행 서대구지점 이용우(51) 지점장. 그는 10여 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최근 <차와 다도>(삼보애드컴)를 출간했다.

"어릴 때부터 절에 다니면서 스님이 주시는 차를 마시게 됐습니다. 그러나 막상 차를 배우려고 하니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배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오랜 시간 허비하지 않고도 차 생활을 즐겼으면 하는 바램으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차 입문서의 필요성은 절감했지만, 상황은 마음만큼 쉽게 따라주지 않았다. 그나마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자료를 구할 수 있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은 드물었다. 신문과 잡지의 기사를 일일이 스크랩하고 차 관련 세미나 자료를 하나둘씩 모으기를 7년. 자료를 읽고 정리하는데도 꼬박 2년이 걸렸다.

"막상 책을 내고 나니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데, 눈 밝은 분들이 잘못 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년간 준비 걸쳐 <차와 다도> 출간
바쁜 시간 차 통해 정신적 안정 찾아

<차와 다도>는 크게 2장으로 나누어진다. 1장 '차'에서는 차의 개념 정의부터 차의 기원, 차나무의 종류, 차의 제조법에 따른 분류, 차의 효능에 관해 다루었다. 2장 '다도'는 우리 차문화의 특징과 차의 선택 및 보관, 다구 고르기, 차 달이는 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차를 처음 시작할 때 '차는 어려운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차도 하나의 기호식품입니다. 지나친 형식보다는 편안하고 맛있게 즐길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은행지점장이라는 직업 특성상, 글 쓸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을 것 같다고 질문하자, 그는 얼른 손을 내젓는다.

"물론 하루 종일 사람도 많이 만나야 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차에 관한 글을 읽거나 차 우리는데 정신을 집중하다보면 오히려 정신적 안정을 얻게 됩니다."

때문에 그는 사무실에 손님이 찾아와도 직접 차를 우려내 권한다. "업무 때문에 만나 어색한 사이일지라도, 차를 매개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분위기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는 현재 매달 12곳의 복지단체를 후원하고 있다. "직장에 매여 있어 몸으로 하는 일 대신 후원금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결코 자랑할 일은 아니다"고 말하지만, <차와 다도>가 출간되자 자신이 부회장을 맡고 있는 불교사회복지회 일일찻집에 책 60여 권을 기증해, 그 판매액을 복지자금에 보태기도 했다.

"마음의 안정과 정신적 위안을 주는 차는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뒤돌아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게 하는 것도 바로 차의 위력이 아닐까요?"

대구=여수령 기자

※이번주 '차맥지킴이' 기사 넘쳐 쉽니다.

2003년 불교문화계 결산

산사음악회 '활기' 불교미술전 '봇물'



◇ 강록사 화백의 '고려불화 재현展'에 선보인 수월관음도.

올해는 어느해보다 산사에 음성공양이 많이 울려퍼진 한해였다. 최근 2~3년간 경제 한파로 주춤했던 산사음악회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북한산 심곡암과 같은 작은 암자에서부터 천안 성불사, 진천 보탑사, 공주 영평사, 양평 사나사, 해남 미황사, 봉화 청량사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확인된 곳만도 30여곳이 넘는다.

고즈넉한 산사를 배경으로 바람이 연주하는 풍경소리와 중생이 연주하는 악기의 선율이 종교를 초월한 관광객과 지역주민들까지 사찰로 불러 들였다. 하지만 일부 사찰은 출연료와 무대 설치비 등에 소요되는 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산사음악회를 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따라서 소규모 저예산의 실속있는 산사음악회를 기획하는 것도 내년에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겨졌다. 이외에도 음악계에서는 미국 줄리아드 음대 출신의 실력있는 유학파들로 구성된 '로터스 현악 4중주단'과 여성 합창단인 B.M합창단이 창단돼 음악포교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미술전시 또한 봇물처럼 쏟아졌다. 귀일 스님의 기와 그림을 비롯해 한기늠씨의 조각전, 김순자씨 도예전, 강록사씨의 고려불화 재현전, 정비파씨의 국토기행 목판화전과 같은 개인전은 물론 전통문화재 조각전, 전국 국립박물관의 불교관련 기획전시 등 관련단체들의 전시가 잇따랐다. 장르면에서도 회화, 조각, 선묵화, 판화 등 다양해져 불교미술의 폭이 넓어 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꼭 불교작품은 아니더라도 일반작가들의 명상과 선(禪) 관련 작품들도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주목을 끌었다. 이외에도 불교문화산업기획단이 지난 4월 불일미술관에서 개최한 '20세기 한국 불교 근세 고승진영 자수전'은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수작업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음악과 미술의 기상도가 '맑음'이었다면 무용과 연극은 '흐림'으로 평가 된다. 우선 무용계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불교 무용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손재현 동국대 교수의 '연화', 능화 스님의 정기공연, 법현 동국대 교수 스님의 해외 영산재 공연에 만족해야 했다. 연극도 '붓다를 훔친 도둑'이 한편 무대에 올려진 것에 그쳤다. 하지만 이 연극은 문화예술진흥원 우수작품 사후 지원의 형태로 선정돼 내년 1월 4일까지 대학로 극장에서 재상연되고 있다.

방송 분야를 살펴보면 공중파 등 일반방송에서 불교관련 프로그램을 유독 접하기 어려웠던 한 해였다. 예년에 비해 공중파의 부처님 오신날 특집 프로그램들의 수도 줄어들었으며, 그 동안 종종 선보였던 불교 소재 다큐멘터리 등도 MBC 창사 특집극 '티베트 대탐사' 등 한 두 편을 제외하고 새롭게 제작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영화계는 불교와 불교적 세계관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어느해보다 풍성하게 제작됐다. 대표적으로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과 주경중 감독의 '동승'은 국내보다 국제무대에서 주목을 받으며 각종 국제영화상을 휩쓸었다. 또 '오세암', '원더풀 데이즈' 등 애니메이션도 호평을 받아 문화창작의 소재로서 불교가 가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김주일 · 한상희 기자

'동승' 등 불교소재 영화 국제무대 '우뚝'
열악한 환경속 연극 · 무용은 명맥만 유지



◇ 상하이국제영화제 등 20여개의 해외 영화제에 초청된 영화 '동승'



◇ 올 한해에는 가을산사음악회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사진은 심곡암 산사음악회 모습.

연말전시회 3제

성효스님 연꽃사진전 열려
10여년 찍은 작품들 전시

충남 아산에 2천여평의 연지를 직접 가꾸며 연꽃의 다양한 모습을 카메라 앵글에 10여년 동안 담아온 성효 스님이 그 결과물을 꺼내 놓는다. 12월 26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고미술 전시장에서 열리는 '삼천년의 미소' 연꽃 전시회가 그것이다. 분홍색, 하얀색, 녹색 등 다양한 색깔을 지닌 고고한 연꽃의 자태를 정제된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02)730-5601



◇성효스님의 '연꽃'

허위영 '절 그 주변 조각전'
불교의 사유정신 녹아 들어

절 주변에는 무엇이 있을까. 스님, 법당, 부처님, 목어, 법구 등 얼핏 생각 나는 것만 꼽아도 열손가락으로 모자란다. 이것들을 작가 허위영씨는 한편의 조각들로 빚어 모아 놓았다. 제목은 '절 그 주변'이다.

'부처' '생각' '절터' '범종' 등 이번 전시작품들을 꼼꼼히 살펴 보면 전통의 계승과 현대적 해석, 의미와 존재론적 차원을 오가며 헤맨 흔적이 역력하다. 단순한 조각을 뛰어 넘어 불교의 사유가 겉으로 배어 나오기 때문이다. 12월 31일까지 부산 마린 갤러리. (051)746-4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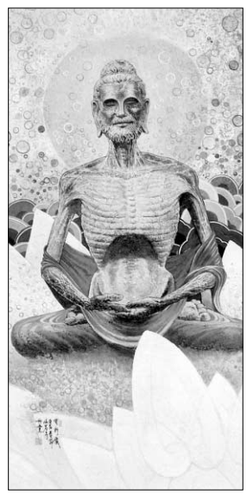


◇테라코타 기법을 사용한 '부처'

'성불도' 등 30여점
묘각스님 선화전

묘각 스님(선암사 대각암)의 선화전이 12월 24일까지 광주 남도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천도화'를 비롯해 '문수동자' '연꽃' '관음보살' '백의관음' '면벽달마' 등 30여점이 선보인다.

작품 대부분이 수묵과 채색을 혼합해 동양화라기 보다는 서양 회화적인 느낌이 강렬하다. 하지만 여백의 미를 살려 선적인 느낌을 놓치지 않으려는 작가의 노력이 곳곳에 역력하다. 이번 작품들중 앙상한 갈비뼈를 드러낸 부처의 고행을 그린 '성불도'는 너무도 정교해 마치 사진을 찍어 놓은 것 같다. (062)227-1136



◇묘각 스님 作, '성불도'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Btn · 불교TV <ch 32>

06:30 새로운 인생
08:55 우리들의 찬불가
11:10 행복스튜디오
12:20 백팔가요
14:05 김용우의 국악발견
19:00 저녁종합뉴스
20:05 다시 듣고 싶은 노래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24일 09:10 묵연 스님의 시와 사랑
25일 15:25 건강하게 삽시다
26일 19:30 하재봉의 영화산책
27일 08:30 성운대사 불경강좌
28일 17:25 자비의 천수천안
29일 09:20 외국인 스님의 영어법문
30일 09:10 불교TV 메디칼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 백팔가요(12월 26일 12:20~14:00)-가수 이정열 씨의 진행으로 최신 가요에서 흘러간 가요까지 우리 삶에 배어있는 좋은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 금요일에는 가수 손병휘 씨가 최신 가요의 흐름을 정리하는 '금요일에 만나요' 코너가 방송된다.

■불교텔레비전

▷ 자비의 천수천안(12월28일 17:25)-태어난지 6개월부터 아프기 시작한 양 군은 현재 청력과 시력만 온전하고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 수술비 마련이 시급하지만 여의치 못한 사정으로 어려움에 놓인 양 군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녹음테이프로 공부하는
太極四柱가 나왔다
(사주배우기가 너무 쉬워졌다)

중국 命理學을 완전 압도하는 새로운 太極四柱가 나왔다.
太極四柱는 이론이 간단명료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속성으로 완성하며 자신있게 개업할수 있다.
中國四柱인 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끝이없고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太極四柱는 배우기가 매우 쉽고 자상하며 간단명료해서 구체적이고 논리가 정연함으로서 차분하고 능소 능대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생생하다.
누구나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실례를 들어 흥미 진진하게 설명하므로서 질문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녹음테이프를 하루 한시간씩 독학으로 2개월이면 완성하고 인간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20여년간 강의하고 연구개발한 太極四柱는 오판과 실수가 없다.
中國命理學과 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안내서 무료 배부)

●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고 전화하면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테이프(14개)와 교재 代金 45만원
▶농협 : 100080-56-022361 (손선영)
※ 스님 및 포교사 특별할인 (30만원)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中央會
(053) 324-2468 / 326-4585
釜山支部 : (055) 384 - 2303 大邱支部 : (053) 641 - 2334
龜尾支部 : (054) 465 - 2642 慶南支部 : 016 - 274 - 3170
慶北支部 : (054) 553 - 5145

국제 수준의 타로(TAROT) 카드 교육 실시

1. 타로카드 교육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타로(TAROT)카드를 국제 수준에 맞게 배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양에 주역이 있는 것 처럼 서양에는 타로카드가 있어 왔습니다.
타로카드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문제들을 점치는데 쓰입니다.
1. 연애와 결혼 2. 인간관계 3. 금전문제 4. 사업문제 5. 일 자리 찾기
이밖에도 인생의 온갖 과정에서 선택, 결단, 결정을 내리는 데도 쓰이며 연구 개발, 사업기획, 정책입안, 문재해결의 길을 찾는데도 쓰입니다. 그리고 그저 카드를 보면서 상상을 하기만 해도 정신수련, 마음수련, 정신위생, 우뇌훈련, 상상력훈련에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우리 국제타로학원에서는 지난 1년여에 걸친 준비를 완료하고 국제수준에 맞는 타로카드의 단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제로 쓰이는 타로카드도 오리지날 마르세이유 타로카드를 현대에 복원한 카모왕판 마르세이유 타로카드를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카모왕판 마르세이유 타로카드 1세트 35,000원
● 교육일시
- 1차 제1단계 : 03년 11월 22일(토) ~ 23일(일) 선착순 24명
제1단계 : 03년 11월 29일(토) ~ 30일(일)
제1단계 : 03년 12월 6일(토) ~ 7일(일)
제2단계 : 03년 12월 27일(토) ~ 28일(일)
제3단계 : 04년 1월 24일(토) ~ 25일(일)
- 2차 제1단계 : 04년 1월 3일(토) ~ 4일(일)
제2단계 : 04년 1월 31일(토) ~ 2월 1일(일)
제3단계 : 04년 2월 21일(토) ~ 22일(일)
● 참가비 : 각단계 12만원 균일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2. 레이키(Reiki)교육
레이키에서는 10시간이면 누구나 氣에너지 요법가가 될 수 있습니다. 레이키에는 어튠먼트라는 특유의 비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氣요법가겸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것입니다. 어튠먼트는 우리의 온몸을 단전으로 만들어 드리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 교육기간 2-3일 전수비 50만원
● 카루나 레이키 : 교육기간 1일 전수비 30만원
국제타로학원(한글도메인)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박희준)
인터넷 www.Reiki.co.kr
◇ 전화 : 02)720-5682. 720-5719 핸드폰 019-392-2557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809호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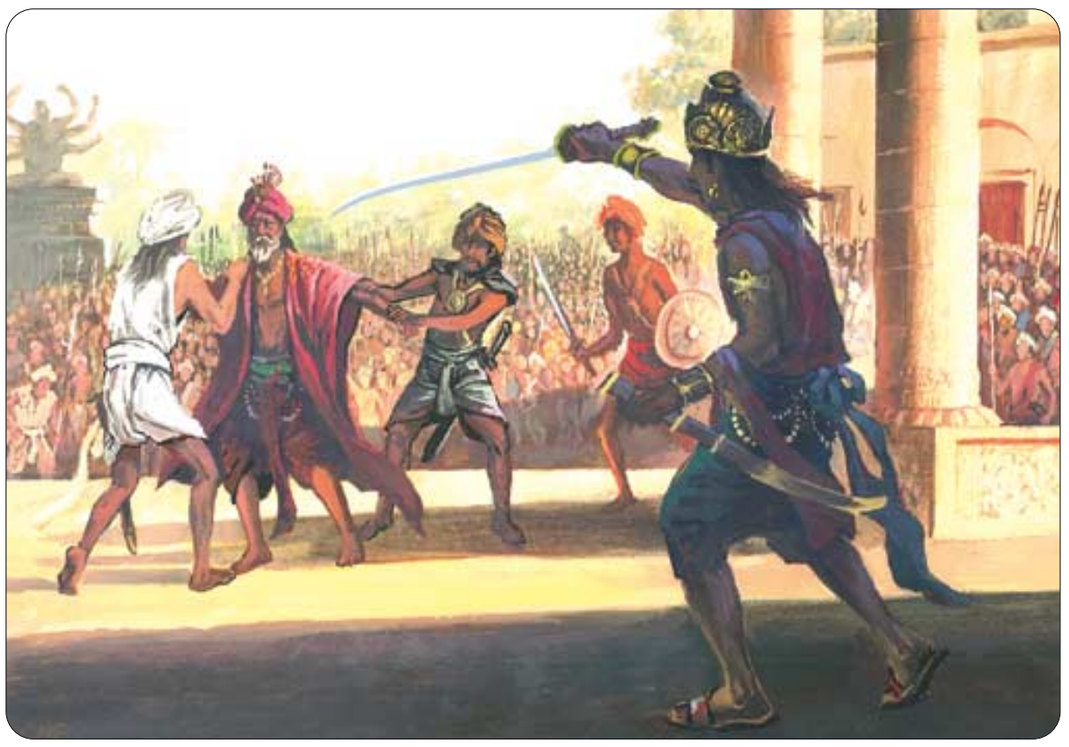


퇴마승 해원
영험도량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혐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접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접신
- 20년전 낙태혼 접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접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 원 사 초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32화 감옥에 갇힌 빔비사라왕



수십 길의 성 밑으로 떨어졌던 아기 왕자는 부드러운 야자잎 들이 수십 겹으로 안아주어서, 결국 성 밑의 무성한 잔디위에 부드럽게 착륙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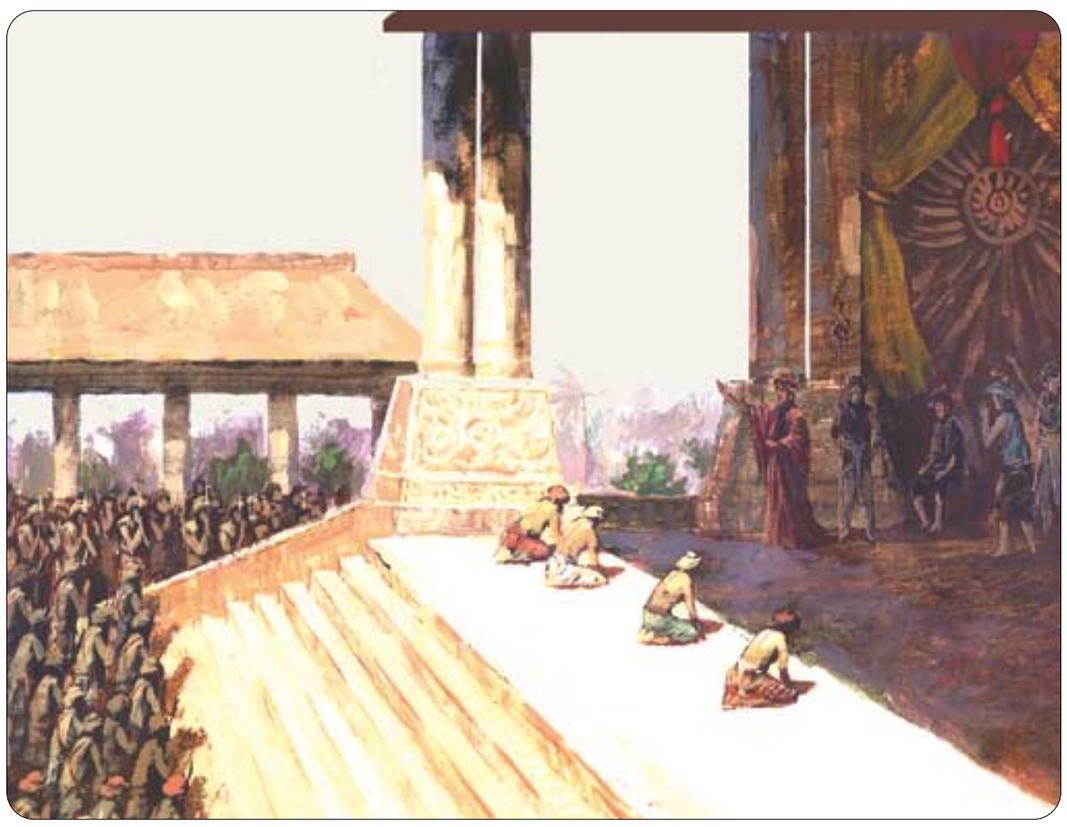
"잘못했다. 내 아들아!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너는 두 번씩이나 죽을 뻔 했구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비록 네가 장성하여 나를 해하려 들지라도 나는 내가 저지른 업보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제 이 세상에 너와 필적할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뜻으로 아자세 라는 이름을 주리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자타샤트루의 손가락하나가 부러졌다. 한역으로 그의 이름을 미생원(未生怨)이라 하니, 곧 태어나기 전부터 원수라는 의미여서 이들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보라 데바닷타여, 바로 이 부러졌던 손가락이 그날 밤 나를 두 번째로 죽이려고 성 밑으로 집어던진 부왕의 독심(毒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오. 만약 내가 왕위에 오르면 그 순간 원한의 칼을 뽑아 억울하게 죽어간 나의 전신인 선인의 복수를 할 것이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가 아니겠소. 그대는 한때 나를 가르쳤던 스승이니 내 있는 힘을 다하여 그대를 도울 것이오. 그리하여 새로운 교단을 일으켜서 나의 왕권을 도와주시오."

그런데 데비닷타와 왕자의 이 엄청난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왕궁의 경비병이 이와같은 사실을 국왕에게 보고하고 말았다. 밀고를 받은 빔비사라왕은 큰 충격으로 어찌할 줄을 몰랐다. 결국 와야 할 그날이 온 것 이었다.

바로 그 다음날, 마가다국의 모든 중신들이 궁전으로 소집되어 들어왔다. 이 자리에서 빔비사라국왕은 왕위를 태자 아자타샤트루에게 양위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발표했다.

곧 이어 빔비사라 왕의 명령으로 급히 준비된 신왕의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이 모든 행사는 단호하고 전격적으로 진행되어 중신들은 이 문제에 대해 단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었다.



국왕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출가할 결심을 굳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갑작스러운 결정은 중신들을 경악시켰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요즈음 왕이 국사를 팽개치고 죽림정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벌써부터 태자가 정사를 돌보고 있었으므로 오히려 잘됐다는 신하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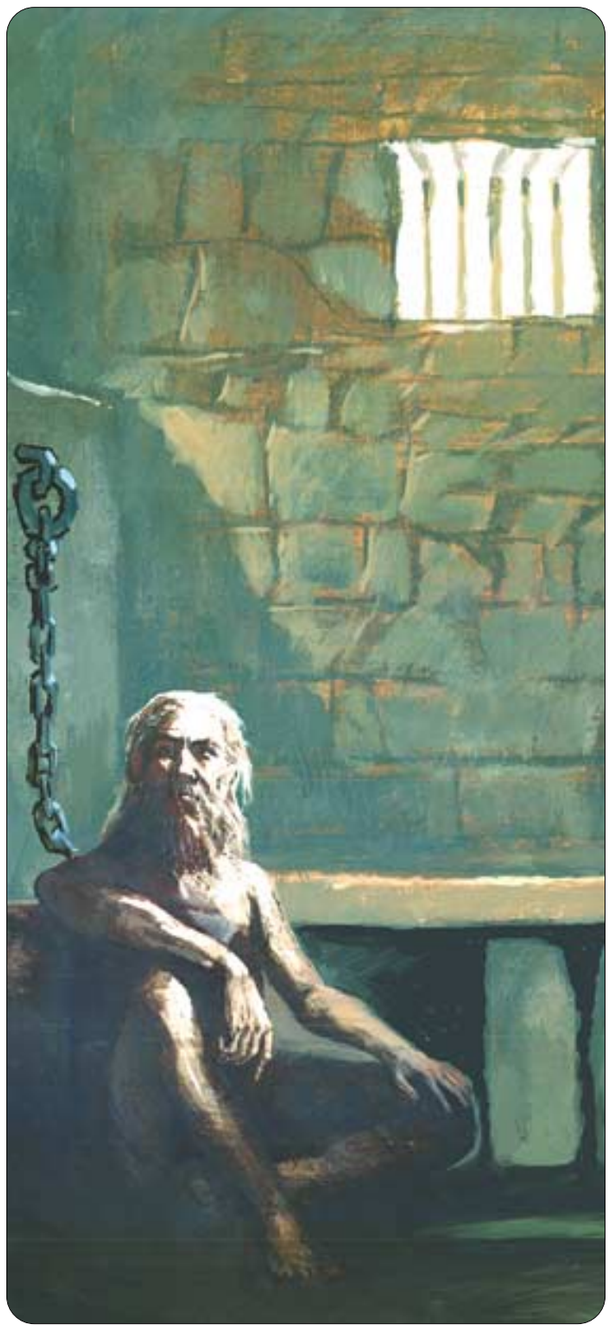
"마가다의 충성스러운 대신들이여, 과인은 이미 늙고 사고하는 바가 옛날 같지 않아서 더 이상 나라를 끌고 가기가 쉽지 않다. 이제 마가다는 젊고 힘찬 아자타샤트루 신왕을 맞았으니, 모든 중신들은 이 순간 이후부터 신왕에게 충성하고 신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 마가다를 천축제일의 강국으로 일으키고 신왕이 전륜성왕이 되도록 보필하기를 바란다."

"자. 이것으로 마가다 국왕의 즉위식은 끝났소. 그대는 이 마가다의 국왕이오. 국왕은 국법에 의하여 절대 권력을 보유하므로 나라를 이끌어 성군(聖君)이 되시오. 나는 오늘 중으로 대왕궁을 비워주고 성을 떠날 것이오."

"부왕이시여, 오늘 중으로 본궁을 비워주고 성을 떠나겠다 하셨나이까? 부왕께선 이미 왕권을 넘겨주셨으므로 이 나라의 왕은 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명령 없이는 이 성에서 한발자국도 떠나실 수가 없습니다."

"마가다의 국왕으로서 첫 번째의 명령을 내린다. 지금 은퇴를 선언한 전 국왕을 잡아 하옥하라. 전 국왕으로서 나라를 잘못 다스린 그 죄를 물으려 한다."

너무나도 놀라운 명령이었다. 부왕은 태자를 위하여 왕위마저 넘겨주었는데 새로 왕위를 이어받은 젊은 신왕은 그의 아버지를 잡아 감옥으로 보내라 한다. 잠시 동안 어리둥절했던 중신들은 신왕이 이런 과격한 명령으로 자신들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일단 왕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하고 황공한 마음으로 빔비사라왕을 잡아 감옥으로 모셔갔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하루나 이틀 후면 옛 왕은 다시 석방되고 나라의 상왕(上王)으로 모셔질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대다수 중신들의 예상을 뒤엎고 그 다음날 내려진 신왕의 명령은 한층 더 강력한 것이었다. 이후 옛 왕을 위하여 어떤 것이든 음식물을 제공하는 자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자리에서 참한다.



천축 제일의 강국 마가다의 대왕으로서 천하에 군림하던 빔비사라왕이었다. 금 · 은 · 보화로 뒤덮인 침실에 천하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불러들여 앞뒤로 둘러 앉히고 그녀들의 향긋한 체취 속에 잠들던 대왕이었다. 그러나 이제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차디찬 돌바닥위에 썩은 습기를 맡아가며 잠을 청하게 되었다. 빔비사라왕은 이제야 비로소 아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던 원한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와 생각하니 옛 일관의 예언대로 기어코 이 목숨까지 노리고 있는가. 늙은 왕의 눈에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 내렸다.

"대왕. 나는 대왕을 낳아준 대왕의 어머니요. 지금의 왕위는 누가 주셨소? 아무리 부왕이 밉다고 한들 자기에게 왕위까지 넘겨준 부왕의 사랑을 모른단 말이오. 부왕과 나는 벌써부터 대왕이 데바닷타의 꼬임에 빠져 반역의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알고 있었소. 부왕은 단 한마디의 명령으로 지금의 대왕을 감옥으로 보낼 수도 있고 또 목을 잘라 그 반역죄를 천하에 공고할 수도 있었소. 그러나 자비로우신 부왕께서는 자식을 손수 처벌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자식의 손에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소.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 부왕을 모셔오고 그 앞에 사죄하시오."

"어머님이 무어라 한들 나의 결심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 쓸데없는 말 삼가시고 어서 태후 궁으로 돌아가세요."

"대왕마마,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이번에는 대왕께서 감옥에서 신음하시게 될뿐더러 전생의 인연이신 선인의 한을 풀어드릴 수 가 없게 되고 말 것이옵니다. 자. 이제는 이 몸을 국사로 임명하시고 지금의 싯다르타를 붓다로 인정하지 말 것이며 제가 믿고 있는 불교 교단을 지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파신(Vipasyin), 쉬키(Sikhi), 카나카무니(Kanakamuni), 비사부(Visvabhu), 카샤파(Kasyapa), 크락찬다(Krakucchanda) 등 과거 육불의 붓다를 믿으며 지금 죽림정사의 싯다르타 태자는 진정한 붓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왕께서 왕권을 굳건히 하시려면 결국 교단과 손을 잡으셔야 하옵니다. 그러나 이곳의 브라만들이나 죽림정사의 교단이나 모두 빔비사라 전왕의 은혜를 많이 입고 있어서 결코 대왕의 편에 서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속히 이 데바닷타에게 힘을 주셔서 저금 붓다의 밑에 있는 나의 제자들을 데리고 나와 대왕의 왕권을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나이까.

이때 붓다는 죽림정사에 새로 모여든 제자들을 가르치며 불교의 전도 사업에 모든 정력을 바치고 있었다. 그런데 마가다의 도성 라즈기르로부터 전해오는 뜬 소문의 진의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믿을 만한 제자를 보내 소문의 내용을 확인시켜 보았다. 그 결과 아자타샤트루 왕자가 부왕 빔비사라를 옥에 가두고 왕위를 찬탈했음을 알게 되었다. 붓다는 시바(Sabha, 우리가 사는 세계)세계의 일에 관여하는 일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불교의 발전을 가장 크게 후원하며 최초의 사원 죽림정사를 지어 주었던 빔비사라 대왕의 일이었다. 그것도 그의 왕자가 일으킨 패륜(悖倫)적인 정권탈취와 아버지의 감금으로 이어진 것이다. 마음이 불편해진 붓다는 일단의 제자들을 데리고 영축산으로 향했다.

영축산(Grdhrakuta), 봉우리 모양이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접고 앉아서 쉬고 있는 모양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 옛날 스승을 찾아 헤매면서 빔비사라왕과 처음으로 만났던 곳이었다. 그 넓은 벌판은 마치 아름다운 궁중의 융단을 깔아놓은 듯한 토지와 그 사이로 굽이치는 금줄 같은 실개천이 빛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빔비사라왕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감옥이 멀리 보이고 있었다. 붓다는 그 감옥으로부터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곳을 골라 자리를 잡고 앉았다.

붓다와 그의 제자들은 모두 일어서서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차가운 감방 안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빔비사라왕의 옥사를 향하여 그들의 간절한 기원을 보내고 있었다. 패륜극(悖倫劇)을 당하고 좌절한 옛 왕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붓다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마치 붓다께서 바로 옆에서 앉아 법륜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분명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신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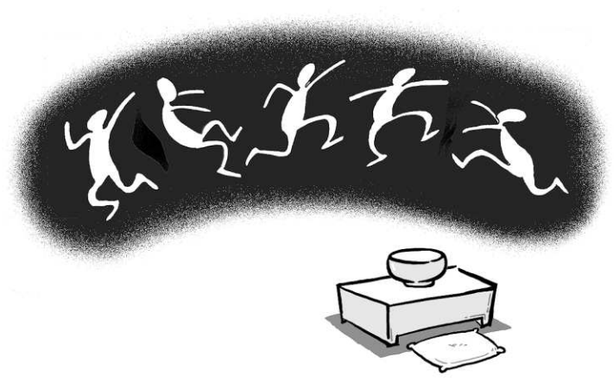
옥중의 빔비사라왕은 너무도 이상하여 있는 힘을 다하려 지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감방의 저 높이 뚫린 창문을 통하여 멀리 영축산을 보았다. "아…. 아 그곳엔 부처님이 서 계셨다. 저 멀리 영축산의 산정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다. 저들은 과연 누구일까? 아 저이는 틀림없이 붓다와 그의 불자(佛子)들이다. 붓다께서 내가 이곳에 감금당해 있는 것을 어떻게 아시고 오셨을까? 그리고 저렇게 먼 곳에서 속삭이는 말씀이 어떻게 그처럼 뚜렷하게 내 귀에 들리는 것일까?"

※그간 인기리에 연재됐던 '부처님'은 본지 개편관계로 금주에 막을 내립니다.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그림 · 최주현

거기서만 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딱
뒤집어놓고 바로 세울 수 있어

여러 지원과 본원의 신도님들이 다 같이 한자리를 하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언제는 뭐 아니었습니까마는, 오늘 만나고 보니 더욱 반갑고 또 대구 합창단 거사님들을 보니 기쁩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간이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졌기 때문에 생명체가 생기듯이 몸 하나가 나오려면 부모의 뜻과 내 영혼의 뜻과 형체가 형성되면 작용해 줄 수 있는 의식들이 악하든지 선하든지 자기가 지은 대로 다 합쳐서 이 세상에 형성돼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수화풍이 바탕이 돼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마음을 떠나서 연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두뇌를 통해서 연구가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연구를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물질을 개발하고, 또 현재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지만 지수화풍이 바탕이 되지 않았더라면 고체니 액체니 기체니 하는 이런 말들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또 레이저 광선이 개발되었지요? 물론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의 다른 개발품들이 많겠습니다만 그걸로써 방편을 한다 해도 손색은 없을 겁니다.

레이저 광선을 지금 얼마나 유리하게 세상이 다 쓰고 있습니까? 병원, 비행기 또는 하늘 꼭대기로 쏘는 것, 라디오, 전화, TV 할 것 없이 말입니다. 그것 뿐만이지 않겠죠? 일체가 그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도 아픈 부위에 광선을 쬐야 하고 또 재는 것이든가, 쏘는 거라든가 다양하게 레이저 광선은 어디나 쓰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과거로 돌아갔다가 올 수도 있고, 미래로 갔다 올 수도 있고, 또는 어떠한 업식이라도 녹일 수 있고, 윤회성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 업보성, 이 모두를 녹일 수 있는 공부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이 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동시에 내가 뭘 수 있는 공부입니다. 만 명이다 하면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것이든지 응신으로 나투어서 내가 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는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도 있거니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주어져 좋나좋나 생활 속에서 나오는 모든 업보 자체를 녹일 수가 있는 것이며, 가깝든지 멀든지 간에 끌어다 보려면 끌어다 보고, 놓고 보려면 놓고 보고, 갖다 먹을 수 있으면 갖다 먹고, 갖다 줄 수 있으면 갖다 주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공부입니다. 날아가는 새나 비행기나 무엇이 다릅니까? 이건 엄청난 공부입니다.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자유대권을 갖고 우주 천지 대권의 소유자인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근기에 따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만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요만큼 말씀하시고 이만큼 가진 자에게는 이만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을 그릇이 안 되면 아무리 주어도 흘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말이나 지식,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에 유마힐 거사는 같이 도반이 되셨는데 그렇게 방편으로 보여주신 것은 어느 누구도 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해주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나가는 동물로서 어떤 때 생각을 하면 모두가 하찮게 생각이 되면서도 그 생명 존엄성은 존재하고 있고, 모두가 아픔을 껴안고 먹고 먹히면서 전쟁 아닌 전쟁을 해야 하는 이런 판국 속에서,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미생물에서부터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인간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까? 뼈저린 아픔을 참고 견디면서 말입니다. 칼을 들어야만이 싸움이 아닙니다. 좁게만 보지 마시고 한번 넓게 펼쳐서 봐주십시오. 어떠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장애자라 하면 육신의 장애자만 장애자라 하는데 정신 장애자도 장애자인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살다가도 불구가 되기도 하구요. 누가 뒤에서 쫓아오고 쫓는 게 아니라 쫓아가 잡아먹으려고 하면서 또 잡아먹히는 이런 세상을 모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모두 사는 게 쓸데없이 생각되기도 하구요. 어느 때는 하늘을 쳐다보고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몸, 내 가정만 생각하고 좁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계시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더 막막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때는 기가 막혀서 그저 나같이 바보라도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먹고 먹히는 항아리 속에서 쫓고 쫓기지는 않겠지요.

불교에 국한 지으면서 사찰에 가고, 그저 부처님 믿는 걸로만 생각들 하시지만 그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당당하게 너부터 알라고 하셨습니다. "네 몸뚱이와 내 몸뚱이가 다르지 않고,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지 않고, 생명도 다르지 않다. 다만 생각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니 가톨릭이니 이슬람교니 원불교니 불교니 하고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만히 보면 전부 기복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 앞 한치도 내다보지 못하게 막아 놓고는 상대로만 믿고 가는지요. 상대를 믿고 가다보면 세세생생을 두고 노예밖에 더 되겠습니까? 종노릇밖에 더 하겠습니까? 종노릇하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너는 땅을 짚고 일어나거라. 절름발이가 되지 말고 눈뜬 장님이 되지 말고 귀머거리가 되지 말라. 이 우주 천하 모든 도리천은 너의 마음에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치신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유마힐 거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중들이 앉아서 좌선하고 있는 걸 보면 좌선을 했다 일어나면 끊어지지 않느냐고 충고도 했고, 내 몸이 나으려면 중생들이 다 나아야 내 몸이 낫지 않겠느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면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모두 바깥으로 받아들여서 바깥 중생들을 다 거둬야 몸이 낫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 몸 속의 중생들, 그 생명의 의식들이 작용을 해서 병이 나아야 나도 낫는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현명합니까? 몸 속의 그 생명의 모습, 의식들이 바로 나와 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만들어 주는 것도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지구가 어디로 돌아다니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 오장육부의 생명체들은 우리 인간이 부산으로 가는지 서울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해줘야 한다구요. 내 마음 먹는 대로 같이 뭉쳐서 한마음을 내어 들일 건 들이고 낼 것은 내고 자유자재권을 형성시켜서 나가야 그것이 천백억 화신으로 화하지요. 그런 것을 모르고는 믿지 못합니다. 나의 그 수십억의 의식들이 바로 한마음으로 뭉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심력이 길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식들은 의식들대로 놀고, 즉 말하자면 위 공장 따로 놀고, 장 공장 따로 놀고, 방광공장 척수공장 척추공장 심장공장 모두 따로 노는 겁니다. 호랑이 없는 산에 토끼가 선생이라고 하듯이 모두 내가 제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내 마음을 따라주지 않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앞에 어떠한 용도가 닥친다 하더라도 대처를 못합니다.

이 모두가 잡을 것도 없고 쥘 것도 없고 빛깔도 없지만, 역력하게 빛깔이 있고 잡을 수 있다면 삼천대천세계를 집어삼킬 수 없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대권을 가질 수도 없는 겁니다. 잡을 수 있다면요.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수많은 어떠한 여건에 따라서도 내가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할 때 레이저 광선이 쏴 들어가듯이 아니, 그것보다도 더 빨리 한 찰나에 드는 것입니다.

내 몸, 내 가정만 생각하고
좁게 살아가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 선지식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영향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자신들을 믿지 못해요. 그렇게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우주 천지를 다스리겠습니까? 우주 천지를 다스리는 것도 내가 높아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불에 들어가면 불덩어리로 하나가 되고, 공기로 가면 공기로 하나가 되고, 흙으로 가면 흙으로 하나가 되고, 어떠한 보이지 않는 영계로 가면 영계로 하나가 되듯이 모든 것이 내가 될 수 있어야만 그런 여건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뚱이 속에 자기와 같이 움직이는 그것도 못 믿으니 어떡합니까? 그것부터 믿어야 하는데요. 아무리 회초리가 가늘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한데 합쳐서 뭉쳐놓으면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내 몸뚱이 속의 그 수십억의 의식들이 한데 합쳐 돌아가는데 어찌 그걸 꺾겠습니까? 이것부터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픈 것이 낫지 않으면 "에이, 주인공도 쓸데없어." 이렇게 일축해버리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겠는데도 안된다고 마음으로 언짢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걸 떠나야만이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아이고, 죽는 게 두렵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부처님이 있으면 살려야지 죽이는 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깐 주인공도 쓸데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올팡갈팡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주인공은, 수억겁 광년을 거쳐 미생물에서부터 존재해왔다는 겁니다. 나를 형성시키고 진화시키고, 쫓고 쫓기면서 형성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등동물까지 이끌고 온 장본인을 믿지 않는다면 그걸 어떡합니까? 거기서만이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서만이 해결을 하지, 마음으로 병난 거는 마음으로 해결을 해야 하고 육신이 병난 거는 육신으로 대치를 해서 병원에서 고쳐나가는 거죠?

이 물질적인 문제도 없어서는 안되겠죠. 일체만물이 있기 때문에 마음 염파가 걸러걸러 돌아가면서 확립이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쏜살같이 차이도 없고 초도 가릴 것 없이 전달이 되면 그냥 한꺼번에 전달이 되는 거니까요. 자가발전소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 발전소에서 전력이 나갈 때는 동시에 전력이 나가듯이 전파가 흐르고 통신이 되듯이 말입니다. 마음에서 한번 생각하면 두뇌로 해서 사대로 전파가 되고 통신이 되듯이 통신이 되면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따라주게 되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의식도 체가 없거든요.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주위의 모든 것을 다 살펴주고 내 신장이 내 부처를 동시에 모시고 다니는 겁니다.

전에 어느 고등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방을 메고 어느 골목으로 들어섰는데 한 열댓 명이 나서더니만 칼을 들고 위협을 하길래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그 순간 급하니까 내가 일러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럭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순간 '주인공!' 했답니다. 급하니까요. 그러고는 그냥 거기다가 전념을 다 하느라고 그 열댓 명이 칼을 들었는지 무엇을 들었는지도 모르면서 우두커니 쳐다보고 섰으니까, 오더니만 아래 위로 전부 뒤져 돈 만 원이 나오니까 시계도 차고 그랬는데도 그 돈만 가지고선 "이 새끼는 아무것도 볼 것 없어." 그러면서 그대로 가더랍니다. 그 도리를 몰랐다면 발길질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가진 않았겠죠. 그래서 다 간 뒤에 벌컥 주저앉아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급하게 맡기니까 급하게 조달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의식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점령을 해가지고 악하던 마음을 선하게 해놓으니까 그냥 갈 수밖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어떻게 생각하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는가?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관습에 의해 꽉 죄어서 옴짝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고 이렇게 하면 못 되겠고 하는 생각이 뚜렷하며, 상식은 이런 것이라는 틀에 박혀서 진실한 믿음으로 확실히 들어가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좀 바보 같아야 더 빠르니라' 하셨습니다. 아는 게 많으면 망설이는 게 많거든요. 이게 정말인가? 이게 거짓 아닌가? 거짓이고 잘못이고 뭐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믿으라고 하는데요. 타의의 어떤 형상을 믿으라고 해야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살펴보는 거죠.

이름을 믿으라고 하나요, 허공을 믿으라고 하나요? 못났든 잘났든 자기 믿으라는데 왜 못 믿습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고통도 없을 거고, 즐거움도 없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좌선을 해야만 되는 줄 알고, 좌선을 해야만 큰 불법을 깨닫는 도리나 얻을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생활 그대로가 불법이고, 그대로 참선이고 그대로 공안이고 그대로 여여함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라 하는 것이, 공(空)자가 들어간 것은 왜냐하면 고정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정되게 한 가지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좋나좋나 돌아가면서 요것 보면 마음이 달라지고, 저것 보면 달라지고, 요것 들으면 달라지고 저것 들으면 달라지면서 쉼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지요. 그러니 그대로 여여한 줄 알고 그대로 참선인 줄 알고 그대로 불교인 줄 알고 살림살이 하는 게 종교인 줄 알고 돌아가야만이 진실히 믿어지고, 또 죽게 하는 것도 살게 하는 것도 자기를 형성시킨 것도 주인공인데 어디 생사가 있을 겁니까? 그 생과 사의 가운데 움직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 형성이 돼서 그저 사는 날까지 살다가 한번 병들고 쓰러지면 그뿐입니다. 보잘것없지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모릅니다.

하루살이를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듯이 저 산천초목, 산봉우리 큰 바위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강원도 금강산의 일만 이천 봉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루살이로 보겠지요! 일만 이천 봉이라고 하는 것도 뜻이 있고 팔만 구 암자 하는 것도 뜻이 있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얘기도 현실 얘기고 미래의 얘기거리도 바로 오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이렇게 좋은 세상을 못 보고 우리 조상들이 살았다고 하지만 그 조상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에 우리들로 나왔기 때문에 그때 그 조상들이 못 먹었느니 못 살았느니 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이 공부를 진짜로 하려면 생활 속에서 근면하고 착실하고 진실하게, 내가 지금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 믿음으로, 네가 형성시킨 거니까 네가 없애려면 없애고 좀더 살게 하려면 더 살게 하라고 그렇게 믿어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한 번 갈 거 그렇게 믿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뜻으로 항상 몸뚱이 속에 사는 중생들이 전부 한마음이 돼서 중생과 부처가 둘 아니게 한마음으로 한다면 얼마나 양호하게 건강을 유지할까요?

이 공부가 사실 따지고 본다면 엄청난 도리입니다. 그거를 느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맛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이지요. 깡통은 깡통끼리 살기 때문에 왈가닥왈가닥 하고 살 거고 금은 금대로 살기 때문에 빛이 있을 거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중세계는 체로 치는 거와 같다 그랬어요. 상세계로 올라가느냐 하세계로 떨어지느냐에 달려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독사같이 살았으면 독사의 몸을 지니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자동적인 인

생활 그대로가 불법이고 그대로 참선

☞30면으로 계속

☞29면에서 계속

과가 그렇게 무섭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살던 의식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 독사의 모습을 가졌으니 그 얼마나 지옥이겠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가 남한테 욕을 했으면 욕한 것이 입력이 돼서 욕을 또 먹게끔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맡겨야 해요. 주인이 하는 거지 자기 육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텔레비전 속에서 방송이 나오지 텔레비전 케이스에서 나옵니까? 텔레비전 케이스가 텔레비전이 아니고 텔레비전 오장육부가 바로 텔레비전이거든요. 오장육부가 한 데 합쳐서 부합이 되어가지고 나오지 부합이 되지 않고 선 하나만 끊어져도 안 나와요. 그러니 텔레비전 케이스를 믿지 말고 텔레비전 속의 그 모두를 한마음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채널만 돌리면 이게 나왔다 저게 나왔다 하는데 그걸 다 한꺼번에 용도에 따라 볼 게 있으면 보고, 보기 싫은 건 다른 번호로 돌리고 해서 그냥 그대로 거기만 믿어야지 어떻게 껍데기를 믿습니까? 내 육신은 오장육부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인이죠. 오장육부를 보호하는 관리인. 그와 마찬가지로 오장육부의 모든 의식들은 바로 한마음을 중시하고 들어가거든요. 표현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구가 그렇게 돌아다녀도 우리들은 지구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모르시죠? 아는 분 있다면 손들어 보세요. 지구가 어디로 돌아다닙니까?

인간 속에 든 세포 하나하나의 의식들은 인간이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다니는 것도 나구나.' 하고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믿으려면 진실히 믿고, 병이 낫고 안 낫고 되고 안되고 그런 걸 떠나서 자기를 수억겁을 통해서 쫓고 쫓기면서 진화를 시키고 그랬던 것도 쫓고 쫓겨봐야 그게 마음이 발전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공부로 알라,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믿는 마음으로 '허, 또 무너지게 했군.' 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웃고 쳐다본다면 그대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모두 이 소리를 믿지 못하면 자기를 자기가 믿지 못하고 버리는 것과 한가지입니다. 자기 자성신을 진짜로 믿어야지 어째서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자성신을 그렇게 믿지 못합니까? 이 세상에 무엇을 믿을 게 있습니까?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신 아파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아무리 효자 효부라 해도, 부부지간에 아무리 정이 좋다 하더라도 똥 눠주고, 대신 아파주고, 대신 죽어주고, 대신 잠 자주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로 자기를 자기가 믿어서 모든 사람이 한 가정이라도 밝게 살 수 있게끔 자기가 능력을 기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입니다. 그럼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지요.

▲질문자1: 진주지원 개원식에 새벽같이 갔는데 점안식 할 때 쫓겨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하는 섭섭한 생각도 들면서, 거기에 대해 굉장히 의심이 들어서 한 며칠 생각해보니까 '아, 등신불을 등신불로 보지 마라.' 그리고 활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한마음선원에 계신 부처님은 참 만년 보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서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왜 스님이 쫓아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니 과거에 부처님 시자가 두 분이 계셨는데 우바마라라는 존자가 부처님이 입종하실 때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나가라.' 해서 멀리 쫓겨나간 일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스님께서 의식을 하시는데 일반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마음공부에 어떤 지장이 돼서 쫓아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스님: 지금도 얘기하셨다시피 가섭존자가 아난존자를 경전 편찬하는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고 내보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근본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얼른 쉽게 말해서 마음이 한마음이 안되기 때문이듯이 일반 신도들은 부처님 점안식을 하는데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거를 저렇게 하나? 저거는 아닌데, 저거는 맞는데….' 하고 산란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사불이 되죠. 금에 사금이 섞이게 되지요. 그래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모두 금하고 스님네들의 그 한마음으로서 올리는 것입니다.

▲질문자2: 저는 옛날에 '부모미생전 본래면목 시심마'라는 화두를 들고 참선을 했습니다. 부모에게서 나기 이전에 내 참마음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 생각 간절하게 참선을 했는데, 깜박 졸은 그 순간에 나는 깨어 있고, 내 의식이 허공 간 온 우주에 꽉 찬 느낌이라 떨리고 희열에 찬 마음으로 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절망에 저 무의 심연으로 몸을 던지려는 순간 강과 나와 하나가 되었던 그때, 그 캄캄한 산중에 어디선가 수쿡새 우는 소리가 슬피 들릴 때 바람이 간간이 불어서 온 나무 숲을 뒤흔들 때, 무릎을 치면서 '아하, 너와 나는 둘이 아니구나. 너와 나는 한 뿌린데 무엇을 빼앗고 빼앗길 것인가?' 그때 그건 분별심인지 진짜 깨친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스님: 따지고 보면 전부 잔소립니다. 지금 이러니 저러니 하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질문자2: 저입니다.

▲스님: 전데, 그 저 하나만 있으면 요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저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요거를 보지도 않고 저거를 보지도 않았을 텐데 그 저가 너무 많아서 요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요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하지 않았습니까?

▲질문자2: 아직 듣는 마음자리를 깨치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방황하는 중입니다.

▲스님: 그러니까 방황하는 것조차도 거기 놓으십시오. 안 되는 것도 놓고 방황한다는 것도 놓고 또는 모른다는 것도 놓으세요. 지금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이것저것을 끌어냅니까? '너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어. 너만이 이끌어 갈 수 있어.' 하고 믿고 맡겨야 합니다. '작년에도 어제도 이끌어가고 있었으니까 지금도 이끌어 가겠지.' 하고 다 거기다 맡겨놔요.

▲질문자3: 저는 1년여 전부터 저희 집사람의 도움으로 한마음선원에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주말마다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스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법형제회에 가입을 해서 선배 법우들과 생활의 방식도 공부하고 또 불법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먼저 배운 분들의 공부를 훔쳐서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끼리 토론을 하면서도 잘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스승님께 여쭈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모아서 제가 대표로 질문을 올립까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부처님 가르침에 핵심이 되는 인연법을 말할 때 으레 12연기가 거론되곤 합니다. 무명이 있으니 행이 있고 행이 있으니 식이 있고, 그와 같이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는 식으로 설명해나가다가 그래서 생로병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거꾸로 말한다면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고 행이 없으면 식이 없고, 그렇게 해서 생로병사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줄여보면 무명이 있기에 생로병사가 있고 무명이 없으면 생로병사가 없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분명코 무명을 여의신 분이었는데 어째서 늙고 죽음이 있었는지요?



그림 · 최주현

자기 자성신을 진짜로 믿어야지
어째서 자기를 끌고다니는 자성신을
그렇게 믿지 못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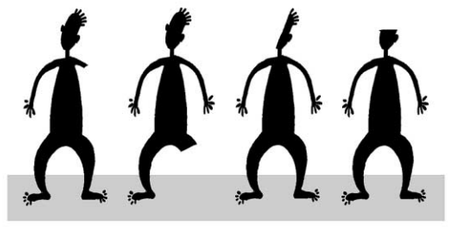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죽고 사는 것을 떠나야만
진실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스님: 부처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두 못 알아들어서 말씀을 못 들은 거지요. 죽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래 빛깔과 음파를 통하고 통신을 통해서 텔레비전에 방송이 나오는 것이지 텔레비전 자체가 살고 죽는 게 아닙니다. 보실 줄 아는 사람은 생로병사가 무라고 할 거고 보실 줄 모르는 사람은 몸뚱이가 죽으니까 죽었다고 하고 살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가끔 하지요. 어느 두 친구가 한 사람은 승려가 되고 한 사람은 속인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승려 된 친구를 불러서 천도를 잘 좀 해달라고 했는데 천도는 안 하고 "온 것이 없다면 갈 곳도 없을 것을…."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가버렸답니다. 온 것이 없다면 갈 곳도 없을 것을 지어 가지고 죽었느니 살았느니 애를 쓰고 야단들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옷이 헤지고 바래고 또 그 시대에 맞지 않고 그러면 벗어 놓고 새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건데 죽었다 살았다 할 게 뭐 있습니까. 그 도리만 알면 죽은 것도 없고 산 것도 없고 산 것도 없어요.

▲질문자3: 그렇다면 제가 언젠가는 죽어서 송장이 될 건데 살았다는 거하고 지금 현재 살아 있는 저와 송장은 어떤….

▲스님: 본래 산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이 몸뚱이가 움직이니까 둘이 아닌 자기 자성신을 생각하고 믿으라고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형체가 자기만이 아닙니다. 대답을 안 하신 게 하신 겁니다. 지금 만약에 말입니다. 살아 있어도 의식만 끊어지면 송장이지요. 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고 산 송장 죽은 송장 그것뿐이에요.

▲질문자3: 잘 알겠습니다. 지구 현상계에서 보면 지구 속에서 화산이 일어나는 것은 지구 속에서 나오는 작용이고, 바다에 해일이 일고 홍수가 생기고 전쟁도 일어나고 지구의 대기권이나 인간들에게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을 볼 때, 지구라는 몸체는 처음 형성될 때 인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뭉쳐졌다면 파괴 난리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지구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고 정화하기 위한 작용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몸도 인연에 의한 업식으로 뭉쳐진 것이라면 우리가 화산과 홍수가 작용을 하듯이 나를 제도하고 정화하기 위한 주인공의 작용이라 생각하니 그대로 넉넉한 마음이 듭니다. 지구가 작용을 하였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듯이, 나 한테서 나온 것을 제자리에 도로 놓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스님 법문 중에 "병이라고 이름 짓지 마라. 병이 병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과 뜻이 같은지요?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도 공부가 되어 가는 증명인지요?

▲스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간다 하더라도 역력하게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패기도 생기고 잔잔한 물결같이 편안하기도 하면서 편안하고 잔잔한 그 속에서 솟아나오는 심력은 정말 그 무엇도 당해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가신다면 잘 되실 것입니다. 계정혜 삼학이라고 했는데, 계율도 한마음 속에 들어 있고 지혜도 한마음 속에 들어 있으니 계 · 혜 · 정이죠. 계와 혜가 정 속에 들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정 속에 듦으로써 지혜가 풍부해서 해탈이 생기고 해탈지견향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도반으로서 열심히 해보십시다.

믿는 마음의 능력이란 건, 여러분이 못났든 잘났든 자기 마음이라는 건 이 태산을 지고도 남음이 있고 이 우주를 뚫을 수도 있고, 탱크를 부술 수도 있는, 이런 도리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도리입니다. 그런 건데 믿지들을 못해가지고선 그렇게 허우적허우적거리니 마치, 이 허공을 허우적거리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 단단히 믿음을 가져서 세세생생에 이 중세계의 통 속에서 벗어나십시오.

틀림없이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딱 뒤집어 놓거나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패기가 생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 다리 절름발이며 한쪽 눈 장님이며 한쪽 귀 귀머거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이저 광선이 그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지만 마음의 심력만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지만 50% 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좀더 우리 도반으로서 내가 더 높으니 네가 더 얕으니 이런 걸 떠나서 부처님께서는 자기 아님이 없기 때문에 높은 게 없이 그저, 하다못해 개가 염원을 해도 개로 화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또 무명을 벗겨주셨기에 어떠한 개체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전체 한 덩어리의 불기둥을 표현해서 부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체가 없어서 전체 한 기둥을 말합니다. 한 기둥의 마음으로서 전체 한마음으로 심력을 길러 애고병고 등 그 어떠한 업식이라도 다 태워버립시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63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쁘든 언덕을 넘듯 그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사이버불교교양대학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집에서 인터넷 이용 강좌 한눈에
시 · 공간 제약받는 불자들에 각광
학습한계, 철저한 자기관리 필수

울릉도에 사는 최수영 씨는 평소 불교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울릉도에는 사찰이 그리 많지 않고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 불교에 대한 배움의 열망을 버려야 했다. 그러나 얼마전 최수영 씨는 이 같은 고민을 해결했다. 우연히 인터넷 가상공간을 서핑하다가 대구 관음사에서 개설한 사이버불교대학에서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1년 과정의 불교교양대학을 이수하며 기초교리를 배우고 있다.

직장생활을 하는 박희숙 씨는 지난해 불교 교양대학에 등록해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워보겠다고 서원했다. 바쁜 회사업무로 인해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지만 사이버불교교양대학인 붓다스쿨에 등록해 현재 4학기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추운 겨울, 직장이나 집안일을 마치고 언 손을 호호 불며 오프라인 불교교양대학을 방문해 수업을 듣기란 쉽지 않다. 또한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10시를 훌쩍 넘기기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특히 일상의 피곤함을 풀어야 하는 주말에는 더더욱 외출하기가 힘들다. 불교는 배우고 싶고, 현실 상황은 직접 교양대학에 나오기 힘들다면 사이버불교교양대학에 노크를 하면 어떨까? 집에서 편안하게 간식을 먹으면서 당대 최고의 강사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불교교양대학은 부여받은 개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출석, 강의 시청 정도 등 모든 사항들이 자동적으로 체크되는 시스템으로 학사일정이 진행된다. 그러나 특정 공간에 모여 교수의 강의를 받는 일반적인 수업과 달리 가정이나 직장, 기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되기에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사이버 불교교양대학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1992년 대구 관음사에서 시작한 영남불교대학은 10여년의 불교교양대학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98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다양한 불교 강의를 음성으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1년 과정으로 예불,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등의 기초반과 서장, 치문, 법화경, 인도불교사, 화엄경, 포교사 문제풀이, 근본불교를 배우는 고급반을 운영하고 있다.

대원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불교대원회의 사이버 불교교양대학인 붓다스쿨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2년제 오프라인 대원불교대학의 강의를 캠코더로 촬영해 다음날 사이버 대원불교대학에 업데이트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붓다스쿨에는 최봉수, 장휘옥, 허경구, 김사업 교수, 일운 스님이 유식사상, 부파불교의 이해, 중국불교사 등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정규 커리큘럼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조계사도 홈페이지를 통해 수행법 강좌를 무료로 개설하고 있다. 조계사불교청년회 주최로 내년 3월 9일까지 '겨울나무에서 봄나무에로'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 조계사에서 열리는 수행법 강좌를 녹화해 서비스한다. 또한 일요법회, 큰스님 법문 등의 동영상 강의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교양대학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 외에도 삼보사이버불교대학, 전북불교대학, 인터넷불교대학 등의 사이버 교양대학도 다양한 불교 강좌를 개설해 불자들에게 불교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있다.

사이버영남불교대학 학장 우학 스님은 "가상대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온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도구"라며 "불자들은 가상대학을 통해 불교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참다운 수행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가볼만한 사이버 불교교양 대학

교양대학명	주 소	운영 주체
사이버영남불교대학	www.tvbuddha.net	대구 영남불교대학관음사
붓다스쿨	www.buddhaschool.or.kr	한국불교대원회
조계사 홈페이지	www.ijogyesa.net	조계사
삼보사이버불교대학	www.sambobuddha.org	대한불교 삼보회
전북불교대학	www.webbuddha.co.kr	전북불교대학
인터넷불교대학	www.buddhistweb.com	(주)큐어TV

게시판 엿보기

⊙ 살아오면서 막연히 생각만 해오다가 근래에 도리사를 찾게 되었답니다. 관광길에서 보아오던 사찰의 모습과 내가 다닐 나의 도리사는 마음가짐부터 바꿔놓는데요, 도무지 어설프기만 합니다. 모든 분들 성불하시고요. 저처럼 우매한 초심불자들이 혹여라도 실수가 있더라도 이쁘게 봐주시고 많은 가르침 주시옵소서.

도돌이 다음 도리사카페, 가입인사 게시판

⊙ 바빠질수록 오히려 삶에 긴장을 하게 되는 일상과 나는 모호한 그리고 아주 애매한 긴장관계를 가집니다. 미운정도 정일까요? 그렇게 시큰둥하고 나를 스스로 지치게 만들었던 바쁜 일상이 다시 나의 몸과 마음에 긴장을 불어 넣습니다.

정원학, 네이트 연꽃나라, 자유게시판

해외불교사이트 순례

포레스트상가뉴스레터

(http://www.fsnewsletter.net)



포레스트상가뉴스레터(이하 상가)는 세계적인 불교 뉴스레터 사이트로 전액 불자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가는 세계 지부 소개를 비롯해 불교이슈, 뉴스 기사 등 다양한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온라인 구독신청을 하면 다양한 불교이슈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해 준다.

또한 불교에 대한 학문 정보, 재가 불자들의 재교육 프로그램 등도 소개되어 있어 불자라면 한번쯤 둘러보아야 할 홈페이지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절 digital · cyber 불사

결 산

'의욕'과 '현실'거리 좁혀야

정보사회에 대한 사찰의 적응도는 어느 정도 일까? 지난 1년간 '우리절 사이버디지털 불사'를 연재하며 내린 결론은 '부분적 만족'이다.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만 현상은 그에 미치지 못하거나 투자에 비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도된 사찰들은 약 30여개 정도로 대다수의 사찰에서는 주지스님을 비롯해 소임을 살고 있는 스님들과 사중의 사부대중이 높은 정보마인드를 갖고 있었다. 스님들의 정보마인드는 자연스럽게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이나 사찰 홈페이지 또는 종무 전산화 부분에 대한 투자로 이어졌고 사찰의 정보사회 적응도 그만큼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소개된 30개 사찰 정보마인드 갖춰
투자에 비해 비효율적 운영이 문제
종무관리, 신도카드 의존 사례 많아

사찰에 전산담당 종무원을 배치하는 것도 공통된 특징이다. 특히 사찰에서 중고등부나 청년회 등 열심히 신행활동을 한 청년 불자가 종무원으로 사찰 홈페이지나 종무관리 프로그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찰도 많았다. 스님의 정보마인드와 정보사회에서 자란 젊은 불자의 만남은 수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사찰이 정보사회에서 지리적,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나의 절 친구 또는 나의 포근한 집과 같은 느낌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의 열매를 맺게 했다.

그러나 종무관리의 전산화는 아직까지 신도카드에 의존하고 있는 사찰이 많았다. 물론 스님이 법회를 진행할 때 신도카드를 보고 축원하는 경우를 위해 신도카드는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찰의 신도관리, 회계관리 등의 종무를 전산화 했을 때 사찰 종무의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것 같다. 특히 종무원의 연령이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실제로 사찰의 종무가 모두 전산화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활용 빈도가 높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사찰 종무관리 전산화나 홈페이지 운영은 지속적 관리가 생명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찰도 적지 않다. 실례로 몇천만원을 투자해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를 몇 년째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찰도 일부 있어 스님들이나 종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동안 투자한 모든 재원이나 노력들이 헛수고가 된다. 지속적 투자와 관리가 필수적이다.

중앙승가대학교 김응철 교수는 "사찰이 정보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불교의 미래는 밝지 않다"며 "우선 스님들의 정보마인드를 갖고 신도들을 교육해야 하고, 사찰 홈페이지나 종무관리도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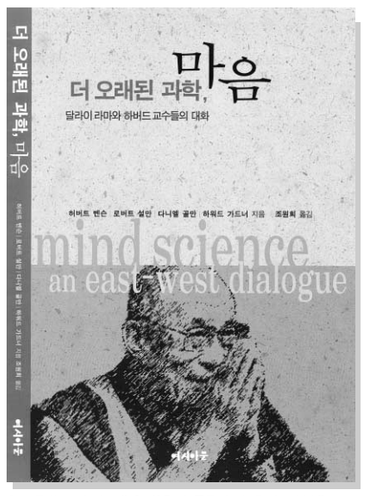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8881(代) Fax : (02)737-0697 http://www.yosiamun.com

명상은 몸과 마음 건강에 큰 도움... 미국인 천만명 '명상 붐'
- <타임>지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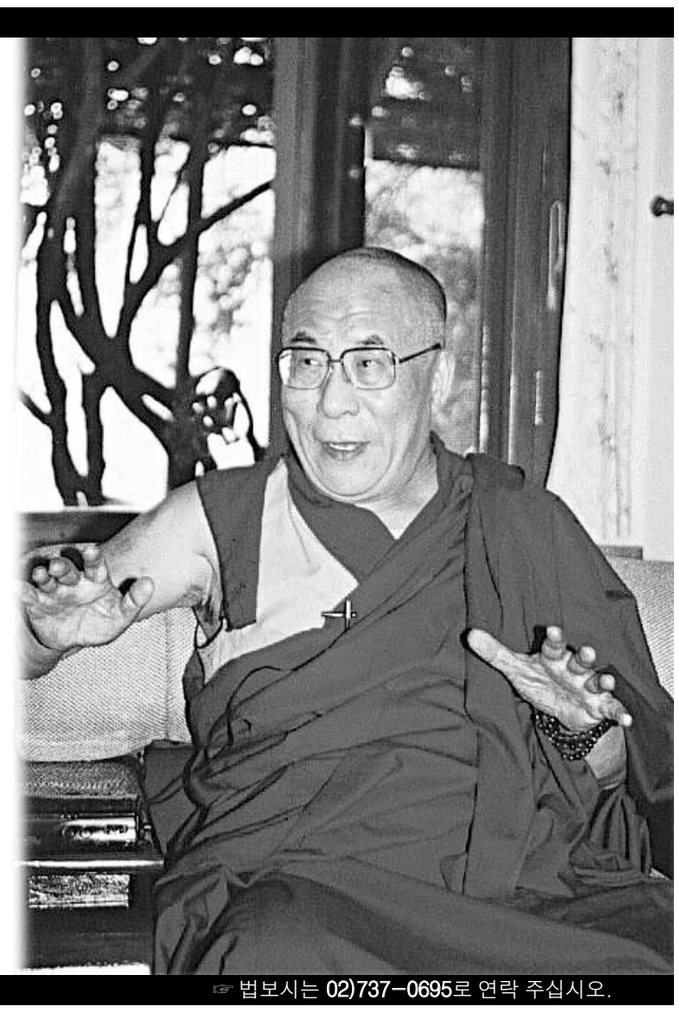
마음
더 오래된 과학,
달라이 라마와 하버드 석학들 '마음과학(Mind Science)'에 대해 말하다

<타임>지 최근호는 미국 하버드 의과대 행동의학과 허버트 벤슨 박사등이 연구한 명상할 때의 뇌상태 결과를 소개하는 등, 명상이 심장병, 암등의 만성적인 난치성 질병의 고통을 예방하거나 완화한다고 소개했다. 또 우울증, 주의력 결핍증 등 심적 불균형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명상요법이 널리 활용되는데연구결과도 소개하고 있다.
하버드 의대를 대표하는 허버트 벤슨 박사등 하버드 석학들이 달라이 라마를 초청, 마음과학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마음과 몸 연결 작용에 관한 중요하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책이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이다.

마음과 몸의 섬세한 관계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이 관계에 대해 불교 사상의 대가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서양과 동양의 접근법을 통합하여 마음의 본성, 인간성장 잠재력, 정신적 · 육체적 건강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가?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은 현대 과학과 불교 간의 역사적 대화의 시작을 기록함으로써 이들 문제를 탐구한다.



허버트 벤슨 외 / 조원희 옮김 신국판 / 200면 / 9,000원



달라이 라마
" 마음은 정신적 사상들이 상호 연관된 대단히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마음은 몸의 생리학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는 역동적이고 항상 존재하는 과정(process)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mind science

☞ 법보시는 02)737-0695로 연락 주십시오.

인도그림기행

30 그림·글 이호신

우주의 질서·대자연에 순응한 진리



노거수가 있는 마을 (87×32cm).

붓다의 뒷모습과 어린 천사들

(바이살리의 빛과 바람속에서)

정겨운 농가 풍경에 인류의 고향 온듯
마지막 안거 지낸 벨루마서 열반예언

무릇 고유한 것은 아름답다.

더구나 자연에 의지한 생활환경이 공생(共生)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삶은 짙은 그리움을 낳는다.

인도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비애와 안타까움, 그 빈곤과 질병의 현장이었던 역, 정거장, 시장과 도심거리에 비해 농촌의 삶은 그래도 안심이 된다.

간디는 말한다. "촌락이 망하면 인도 또한 망하게 된다. 그 때 인도는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내가 반대하는 것은 기계 그 자체가 아니라 기계에 대한 광신이다. 그것은 이른바 노동을 절약하게 하는 기계에 대한 광신이다. 사람들이 계속 '노동을 절약'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일하지 못하고 큰 길에 버려져 굶어 죽게 될 것이다… 국토 상에 인구압박이 큰 나라의 경제와 문명은 그런 압박이 가장 작은 나라 경제와 문명과는 다른 것이 정상이다. 인구가 듬성듬성한 아메리카는 기계를 필요로 할지 모르지만 인도는 전혀 기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수백만, 수천만의 할 일이 없는 노동집단이 있는 곳에 노동을 절약할 기계를 생각한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간디평전> p333~335 곽영두 옮김)

문명사회를 꿈꾸는 시대상황에 비해 간디의 발언은 지나칠지 모르지만, 사실 문명의 가속화는 삶의 '발전' 이기보다 '변화' 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그 부작용을 떠올릴 때 사실 행복지수는 미지수이기 때문.

바이살리 아쇼카석주와 스투파를 지나 연못 뒤편으로 난 길을 따라가자 한적한 농가로 접어든다. 그런데 지금껏 만난 어느 마을 보다도 정겨운 풍광이 펼쳐지니 인도 농가의 전형을 보는 것 같다.

즉 야자수와 망고나무로 둘린 마을 정경은 아득한 인류의 고향처럼 느껴지는데 소, 염소, 양, 닭들이 마당에 오종종하고 흙벽돌과 나무로 지은 가옥들이 너무도 소박하다. 또 동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알이든 닭장은 높이 매달아 두었는데, 익히 아프리카 여행 때 보았던 것과 유사하다.

한편으로 쇠똥 땔감과 짚더미주변, 잿불에 옹기종기 모여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 얼비치는 얼굴들. 흙과 빛, 그 바람속에 익어온 모습들이다.

고백하건데 나의 부족한 붓끝과 필설로서는 마을의 정경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해 주저되는 시간, 바람결에 들려오는 한 영혼의 목소리가 있었으니….

"아난다야, 나는 등창이 났는지 등허리가 아프구나,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것이 어떻겠는냐."

바이살리 근교 벨루바(Beluva)마을에서 마지막 안거(安居)를 지낸 붓다께서 열반지(쿠시나가르)로 가던 도중 이곳에 머물며 하신 말씀(대반열반경)이다.

그리고 바마세나 카팔라라 언덕에 이르러 힘든 몸을 일으켜 성을 돌아보시고 웃으시며 "이것이 내가 이 성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다. 이제 떠나면 이 몸으로서는 다시 이 성으로 오지 못할 것이다" 하시니 열반을 앞둔 붓다의 예언이었다. 이 위대한 인간 붓다의 마지막 뒷모습을 따라가는 여정 속에 마을을 빠져나오자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나무. 그 나무의 뿌리를 감싸주고 있는 자그마한 동산으로 올라갔다.

마치 우리네의 정자목, 당산나무 같은 실감은 노거수 허리에 붉은 천을 감아놓은 것에서 뭉클한 친화를 느끼며 상상의 나래를 편다. 붓다가 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 나무그늘 아래 잠시 머물며 쉬어가는 광경은 우리 영화 '서편제' 의 당산 목에서 이별하는 장면이 떠오르며 들녘을 이윽히 바라보는 눈길. 푸른 밭으로 난 길을 따라 아스라이 펼쳐지는 야자수 숲을 응시하며 우주의 질서와 대자연의 뜻에 순응하는 뒷모습이 영상처럼 펼쳐진다.

기록상에 의하면 붓다가 바이살리를 최초로 방문한 것은 기원전 585년(전법 5년), 기근과 전염병으로 위기에 빠진 이곳 밧지족들의 요청을 받아 머물렀다. 이때 붓다는 밤낮 이레동안 마을을 돌며 백성을 구제하는 경을 설하였다. 그리고 붓다가 이곳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것은 기원전 545년(전법45년), 마지막 안거를 위해 머물렀다고 전한다. 이때 팔순 노구의 붓다가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가 회복한 후 3개월 후 쿠시나가라로 가서 열반할 것을 천명한다.

"아난다야, 나는 이제 여든살의 노인, 늙고 쇠하였구나.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 간신히 굴러가듯 나 또한 간신히 굴러가고 있느니라.

아난다야, 그대들은 자기 자신을 등불 삼고 자기자신에게 귀의하라. 그리고 법을 등불삼고 그 법에 귀의하라. 그 밖의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라"고 설파하였다.

이 의미 깊은 붓다의 길을 따라 걷노라니 어느새 농가가 사라지고 끝없는 지평의 푸른 밭이 펼쳐진다. 그리고 노오란 겨자꽃이 흐드러지게 핀 풍광은 마치 제주의 땅과 유채꽃 길처럼 아름다운 들판이다.

그 꽃길을 끊임없이 따라오는 아이들. 볼펜과 루피를 달라고 조르는데, 순례객중 늘 후미에 처지는 나에게 벌떼처럼 달라든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꼭 무엇을 얻기 보다는 낯선 이방인들을 본 아이들이 재미와 호기심으로 심심하던 차에 우리 뒷꽁무니를 따라오는 것이다. 내가 뛰면 아이들도 뛰고 내가 걸으면 그들도 천천히 걸으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따라온다.

청명한 하늘, 산들바람이 옷깃을 스치는데 어린천사들과 함께 걷는 이 길이 혹 붓다가 걸어간 길은 아니었을까. 열반으로 가는 꽃길이 정녕 이처럼 아름답게 자연의 축복 속에서 이어졌을 것이라는 상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lhs1957@lycos.co.kr

쿠시나가라 가는길(32×24cm).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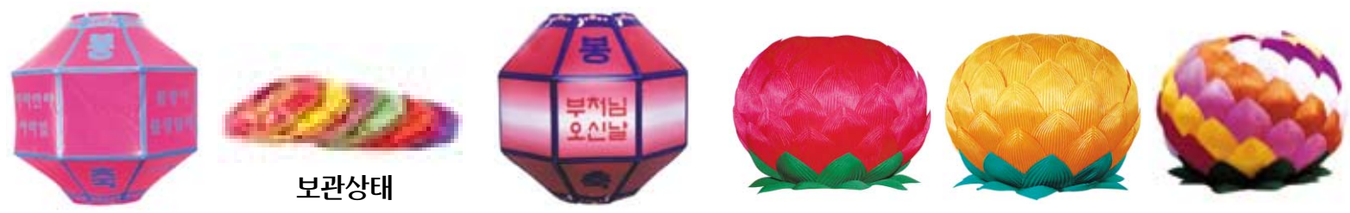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 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접등 팔모조립등 공단등 (비단등 실크등)



보관상태

종 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